

# 에이티 옥션

## 경매 순서

정회원 가입 - 초대장·도록 수취 - 전시회 관람/작품확인 - 응찰 접수/응찰 - 낙찰 확인 - 구매대금 납부/작품 인수

## 회원 가입

(주)에이티 옥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운영됩니다. 본 책자의 뒷면에 게재된 원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 또는 팩스 전송하시거나, 에이티 옥션 홈페이지(www.at-auction)를 방문하시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경매 응찰은 '에이티 옥션 정회원'만 가능합니다.

**정회원:** 유료(연회비 10만원)이며, 에이티 옥션의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경매 도록 및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준회원:** 에이티 옥션의 뉴스레터 무료 수신과 홈페이지 경매 정보의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시회(프리뷰) 관람

프리뷰는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을 미리서 감상하고 응찰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으며, 출품작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시 기간: 2011. 5. 20(금) ~ 26(목) 오전 10시 ~ 오후 7시
- 전시 장소: 에이티 옥션 전시장

## 경매 좌석 예약

경매가 열리기 전에 경매 응찰 좌석을 미리 예약해두면 편리하게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매가 열리기 하루 전인 5월 26일(목) 오후 7시까지 좌석을 예약해두십시오. 단, 좌석 예약은 경매에 응찰하는 분께 우선권을 드리며, 먼저 접수하신 분이 선 순위입니다.

## 응찰 접수(현장, 서면, 전화 응찰)

일반적으로 경매는 소정의 일시 및 장소에서 구매자가 직접 응찰하지만, 이런 '현장 응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화로 경매에 응찰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 및 전화 응찰은 경매일 하루 전인 5월 26일(목) 오후 7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 응찰은 경매 때 직원이 해당 작품에 대한 응찰을 대리하며, 전화 응찰은 회사의 직원이 응찰자와 전화하면서 경매에 응찰하는 방식입니다.

## 홈페이지(www.at-auction.com)

에이티 옥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고미술품 및 근현대미술품에 대한 정보와 국내외 경매시장 동향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 출품작품에 대한 자료 검색은 물론 회원 가입, 작품 위탁 신청 등의 상세한 내용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에 가입하시면 온라인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및 문의

에이티 옥션 경매의 좌석 예약과 응찰 신청,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3675-7533

# 경매에 참여하시는 방법

## 1. 응찰 등록

에이티 옥션의 경매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연회비 10만원)이 되셔야 합니다. 정회원님께는 경매 응찰에 참고하시도록 경매 도록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회원 가입은 회사 소정의 '회원 가입 원서'를 작성하시어 우편발송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고, 연회비를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등록됩니다.

## 2. 작품 확인

에이티 옥션의 회원이 되시면, 회사의 경매일정이 확정된 뒤 경매 도록 및 초대장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도록에는 출품작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추정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구매하실 작품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에 대한 상태·크기·재질·보수 여부 등은 도록에 게재된 작품 사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매가 열리기 전의 전시(프리뷰)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작품에 대한 상담도 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뷰는 에이티 옥션의 홈페이지 [www.at-auction.com](http://www.at-auction.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이와 함께 경매 출품작들의 열람과 경매 참여를 위한 회원 가입 및 응찰 신청도 가능합니다.

## 3. 응찰

경매 참여는 회사 소정의 '경매 응찰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사 사무국에 접수시키신 다음에 가능합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경매에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장 응찰** : 경매 당일 경매 현장에 참석하여 직접 응찰하는 방법입니다. 경매 시작 전에 회사 소정 양식의 응찰등록서를 작성한 뒤 응찰 번호판을 교부받으시고,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사의 호가에 따라 번호판을 들어 구매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 ② **서면 응찰** : 응찰자의 사정으로 현장 응찰을 하실 수 없을 경우에는 경매 하루 전날까지 회사 소정의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경매 진행시 직원이 대리로 응찰해드립니다. 낙찰 결과는 경매가 끝난 뒤 전화로 통보해드립니다.
- ③ **전화 응찰** : 응찰자의 사정으로 현장 및 서면 응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매 하루 전날까지 전화 응찰을 신청하시면 경매가 진행될 때 담당 직원이 응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응찰을 대신해드립니다.

## 4. 낙찰 확인

낙찰 확정 : 내정이 이상으로 응찰한 서면응찰자·현장응찰자·전화응찰자 중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됩니다.  
낙찰 우선순위 : 동일 작품에 대하여 전화 응찰자·서면 응찰자·현장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경합할 경우에는 ①서면 응찰자, ②현장 응찰자, ③전화 응찰자 순으로 낙찰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복수의 서면 응찰자가 동일 가격으로 응찰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응찰서'를 회사에 먼저 제출하신 분께 낙찰돼 해당 작품을 구매하시게 됩니다.

## 5. 구매 대금과 낙찰 수수료

- **구매 대금** : 경매에서 낙찰 받으신 금액(낙찰가)에 낙찰 수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낙찰 받으신 작품은 이 금액을 완납하셔야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 **낙찰 수수료** : 낙찰하신 금액에 따라 낙찰가의 8~10%의 낙찰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 낙찰가 1억원 미만: 낙찰가의 10%(V.A.T 별도)
  - 낙찰가 1억원 이상: 낙찰가 1억원까지에 대한 낙찰가의 10%(V.A.T 별도)와 초과 금액에 대한 낙찰가의 8%(V.A.T 별도)를 합산한 금액

### ▣ 낙찰 수수료 적용 예

#### ① 낙찰가가 1억원 미만인 경우

낙찰가: 50,000,000원  
+낙찰 수수료: 5,000,000원(낙찰가×10%)  
+부가 가치세: 500,000원(낙찰수수료×10%)  
구매대금: 55,500,000원

#### ② 낙찰가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낙찰가: 200,000,000원  
+1억원 낙찰 수수료: 10,000,000원(낙찰가×10%)  
+초과 낙찰 수수료: 8,000,000원(낙찰수수료×8%)  
+부가 가치세: 1,800,000원(낙찰수수료×10%)  
구매대금: 219,800,000원

## 6. 구매 대금 납부 및 작품 인수

- **납부 기간** : 작품을 낙찰 받으신 응찰자님께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낙찰가가 5,000만원부터 3억원 미만이면 14일 이내에, 3억원 이상이면 20일 이내에) 구매 대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작품 인수** : 구매 대금을 완납하신 7일 이내에 해당 낙찰 작품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 인수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인수하시는 분께서 전담하셔야 합니다.

**7. 경매 물품의 보증** : 경매되는 작품에 대한 보증은 경매가 열리는 시점의 상태에 준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실 분은 응찰 이전에 작품의 크기·상태·재질·보수여부 등을 확인하신 뒤 응찰하실 것을 권합니다.

## 8. 기타

-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록 뒷면에 명시되어 있는 에이티 옥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에이티 옥션 홈페이지([www.at-auction.com](http://www.at-auction.com))를 통해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 응찰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경매가 열리기 전에 좌석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작품의 상태 등 확인

에이티 옥션의 경매에 응찰하기 전에 작품의 상태·크기·재질·보수 여부 등을 직접 실물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되는 작품의 상태에 대한 보증은 경매 시점에 준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국외 반출 금지

낙찰자는 낙찰 작품이 문화재 및 유물일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 전칭작의 표기

경매에 출품된 작품 중 '傳'으로 표기된 작품은 전칭작(傳稱作), 즉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작가의 기준이 되는 작품도 전칭작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도서 낙관이 불분명하더라도 기법상의 특징이 특정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전칭작에 해당합니다.

## Lot(경매번호)의 표기

경매에 출품된 작품에 부여된 'Lot'은 경매 번호입니다. 경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Lot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추정가의 표기

경매에 출품된 작품의 추정가는 작품의 판매 예상 금액입니다. 경매에서의 시작가는 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응찰의 정도에 따라 추정가보다 많은 금액에 낙찰되기도 합니다.

## 시작가

시작가는 도록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경매에서는 추정가보다 낮은 금액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작품의 크기 표기

- 평면 작품: 세로 × 가로 cm
- 입체 작품: 가로 × 세로 × 높이 cm, 지름 × 높이 cm
- 도 자 기: 높이 × 구연부 지름 × 굽 지름 cm

## 구매가격 300만원 미만 시의 법인 손금 처리

2009년 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미술품의 손금 한도가 기존의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업이 300만원(낙찰 수수료 포함) 이하의 작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손금 산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시행일 2010.3.19]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 ATAuction

Art & Treasure Auction 에이티 옥션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瓷靑畫雲龍紋壺)  
참조 <크리스티 2011년 3월 23일 경매, Lot. 1004>



백자철화포도문호 (白磁鐵畫葡萄文壺)  
참조 <국보 제107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백자호**  
白瓷壺

52x19,5x17,5cm  
조선시대 <17세기>

특별전시품

구연부는 알맞게 서있으며, 구연부에서 어깨까지 둥글게 팽창되는 모습이 당당함을 느끼게 한다. 좌우 대칭의 비례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넓어진 어깨 중앙부터 굽다리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 유색은 유백색이며 굽다리는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구웠다. 이러한 향아리는 크기가 대형인 탓에 한번에 물레로 올리지 못하고 상하 부분을 따로 만든 후, 두 부분을 접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성형(成型)과 번조(燻造)가 매우 어려운 작품이다. 순백의 미와 균형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백자의 독특하고 대표적인 형식이다. 향아리의 크기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조선 향아리의 전형으로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조선 17세기 후기~18세기 전기의 약 1세기 동안(특히 18세기 전기 50년간) 조선왕조 유일의 관요(官窯) 사용원(司饗院)의 분원(分院) 백자제작소(경기도 광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광주지역에 산포해 있던 340여 개소의 가마 가운데 금사리 가마에서 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청자음양각연화문합  
靑瓷陰陽刻蓮花紋盒

12,3x16,5x6,5cm  
고려시대

₩ 10,000,000~15,000,000







2 청자상감국화문유개소호  
靑瓷象嵌菊花紋有蓋小壺

5.8x2.9x3.5cm  
고려시대

₩ 5,000,000~6,000,000





**3 청자음각앵무문접시**  
靑瓷陰刻鸚鵡紋楨匙

5x17.5x7cm  
고려시대(모서리 조금수리)

₩ 1,500,000~2,000,000



4 흑유잔, 잔대  
黑釉盞, 盞臺

높이 9cm  
고려시대

₩ 2,000,000~3,000,000



5 청자철화모란당초문합  
靑瓷鐵畫牡丹唐草紋盒

11.5x17.5x12.7cm  
고려시대(부분수리)

₩ 2,500,000~3,000,000





6 청자상감국화문잔  
靑瓷象嵌菊花紋盞

7.8x6.4x4cm  
고려시대

₩ 9,000,000~10,000,000



7 청자역상감국화문유개잔  
靑瓷易象嵌菊花紋有蓋盞

9x6x4.5cm  
고려시대

₩ 10,000,000~12,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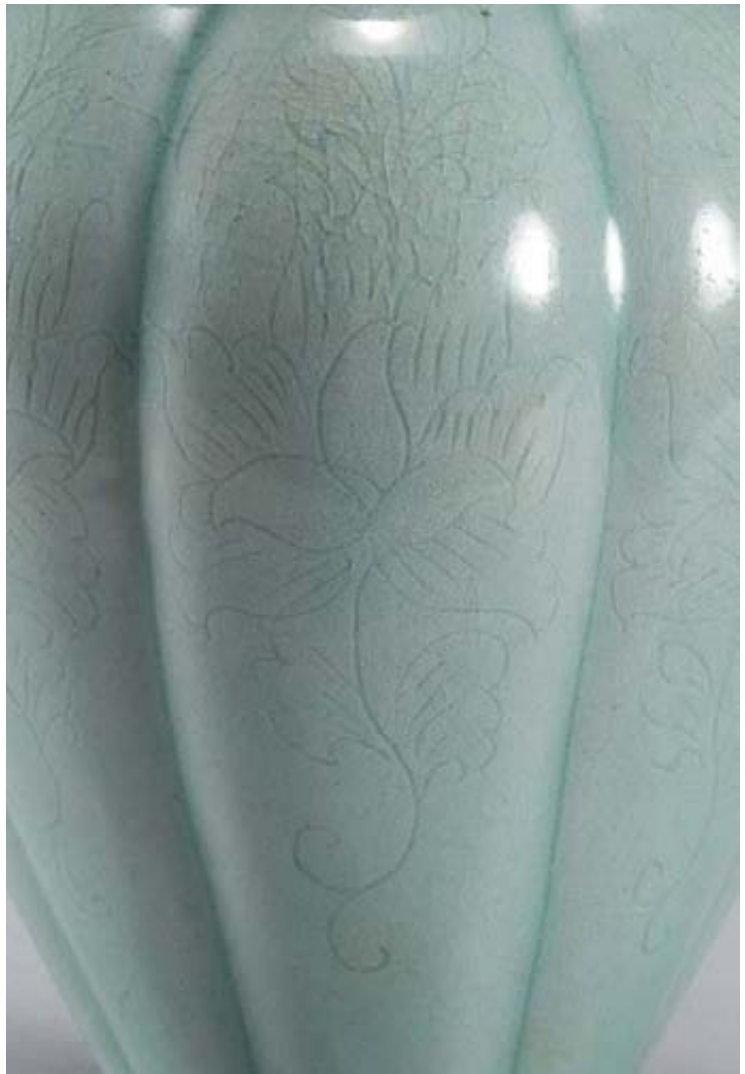


## 8 청자음각초화문과형화병 靑瓷陰刻草花紋瓜形花瓶

22.5x9x5.7cm  
고려시대 (12세기)

### 별도문의

참외형의 골이 파인 동체위로, 쪽 뺀어 벌어진 화형의 구부와 작지만 꽃잎처럼 세워진 저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고려시대 참외형 화병이다. 유색은 담옥청색으로 전면에 곱게 시유되어 은은한 광택을 자아낸다. 동체 8곡면마다 3개의 꽃잎과 줄기로 구성된 초화문이 가는 음각으로 시문되어 깔끔하다. 굽다리 바닥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耐火土)를 받쳐 구웠다. 고려 인종 장릉(仁宗 長陵)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청자들 중에 이와 같은 형태의 청자과형병(국보 제94호)이 있다. 12세기 강진 사당리에서 제작되었으며, 아름다운 유색(釉色)과 깔끔하고 세련된 기형(器形) 등 전성기 고려청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작이다.



〈참고작품-국보 제94호〉  
청자소문과형병 靑瓷素文瓜形瓶  
-소장처 국립중앙 박물관-







9 분청음각원형소병  
粉靑陰刻圓形小瓶

14.5x4x6.7cm  
조선전기

₩ 20,000,000~25,000,000





**10** 백자상감당초문완  
白瓷象嵌唐草紋碗

7.5x16.5x6.5cm  
조선전기(균열수리)

₩ 5,000,000~6,000,000





**11** 고려백자철화초문광구병  
高麗白瓷鐵畫草紋廣口瓶

29.5x8.4x9.5cm  
고려시대

₩ 2,000,000~3,000,000



**12 분청인화문호**  
粉靑印花紋壺

27.5x10x9.5cm  
조선전기(구연부 약간수리)

₩ 5,000,000~5,500,000



**13 분청음각초화문병**  
粉靑陰刻草花紋瓶

27,2x6x7,5cm  
조선전기

₩ 12,000,000~13,000,000





14 분청음각초화문편병  
粉靑陰刻草花紋扁瓶

22,2x4,5x8,3cm  
조선전기

₩ 45,000,000~50,000,000







**15** 분청상감연류문유개호  
粉靑象嵌蓮柳紋有蓋壺

30x12.6x11.5cm  
조선전기(균열수리)

₩ 35,000,000~40,000,000





**16 분청음각초화문편병**  
粉靑陰刻草花紋扁瓶

22.3x5x8.5cm  
조선전기

₩ 55,000,000~60,000,000

몸체가 풍만하고 살짝 벌어진 입과 넓게 벌어진 굽다리를 지니고 있는 편병이다. 전면을 귀얄로 곱게 분장을 하고 어깨에는 화문을, 몸체 앞 뒷면은 엽문으로 짙게 음각하였고, 좌우 옆면은 추상적인 초문을 음각하였다. 굽은 유약을 닦아내고 점토가 섞인 내화토 받침을 하였다.





**17 백자상준**  
白瓷象尊

높이 16.5cm  
조선전기

₩ 4,500,000~5,000,000

코끼리 모양의 준(尊)이다. 이러한 상형의 준(尊)은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제기도설(祭器圖說)(1574년)에서 확인되고 있어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몸체가 장군처럼 옆으로 길고, 긴 코를 줄인 얼굴에는 눈과 입, 귀가 표현되었다. 짧은 4개의 다리와 상면 중앙을 중심으로 안장을 장식한 능화형의 파문 장식과 네모난 투공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투공은 뚜껑이 없으나 제기도설과 유기(鑰器) 상준의 경우로 볼 때 별도의 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색은 담청 회백색이며 바닥 배 부분에 음각으로 「祭」 명이 시문되어 제기용도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다리 바닥 4곳에 내화토를 받쳐 구웠다. 16세기 향교, 서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상준 중에 매우 개성있고 잘 생긴 작품이다.





**18** 백자장군  
白瓷缶

26.5x5.5x13.5cm  
조선전기

₩ 4,500,000~5,000,000







**19** 백자청화송호문호  
白瓷靑畫松虎紋壺

24x9.5x8.5cm  
조선후기

₩ 1,200,000~1,500,000





20 백자병 白瓷瓶

25x4x9cm

조선시대

₩ 4,500,000~5,000,000





**21** 백자호  
白瓷壺

30x12.7x12.5cm  
조선시대 <18세기>

₩ 13,000,000~15,000,000





22 백자호  
白瓷壺

34.5x12x13cm  
조선시대 <18세기>  
(부분수리, 구연부 약간 수리됨)

₩ 7,500,000~8,000,000





**23** 백자철화문병  
白瓷鐵畫紋瓶

27.5x4x7.5cm  
조선후기

₩ 2,000,000~2,500,000





24 백자양이주자  
白瓷兩耳注子

11x3,5x6,5cm  
조선전기

₩ 16,000,000~17,000,000





25

백자청화박쥐문환형연적  
白瓷靑畫蝠紋環形硯滴

5x6.5cm  
조선시대

₩ 3,000,000~3,500,000



26

백자청화초화문육각연적  
白瓷靑畫草花紋六角硯滴

2.1x6.3cm  
조선시대

₩ 1,000,000~1,500,000



27

분청인화문「내섬」명접시  
粉靑印花紋「內贍」銘標匙

3.2x13.2x5.6cm  
조선전기

₩ 1,100,000~1,200,000



28

백자청화화접문타호  
白瓷靑畫花蝶紋唾壺

11.9x7x8.8cm  
조선시대

₩ 6,000,000~7,000,000



29

백자청화운봉문소호  
白瓷靑畫雲鳳紋小壺

10.5x5.5x5.5cm  
조선시대

₩ 1,700,000~1,800,000





**30 백자양이잔**  
白瓷兩耳盞

3,2x6,7x3,2cm  
조선전기

₩ 7,000,000~8,000,000

밖으로 완만하게 벌어진 몸체에 「T」 자형의 손잡이가 양쪽에 부착되어 있다. 유색은 맑은 백자유가 전면에 곱게 시유 되어있으며, 기벽은 얇고 예리하다. 굽다리에는 가는 모래 받침을 하였다. 16세기 경기도 광주 번천리, 우산리 일대의 관요에서 제작되었다. 기품이 있고 격조가 높은 최상급 백자의 하나이다.





31

백자촛대  
白瓷燭臺

19x7x9.5cm  
조선시대

₩ 2,500,000~3,000,000



32

백자향꽃이합  
白瓷香꽃이합

9.5x10.8x5.5cm  
조선전기

₩ 3,500,000~4,000,000







33

백자청화초화문소병  
白瓷靑畫草花紋小瓶

6,5x2,2x3,6cm  
조선시대

₩ 1,500,000~2,000,000



34

백자청화「수」명접시  
白瓷靑畫「壽」銘楪匙

3,8x15x8,5cm  
조선시대

₩ 1,200,000~1,500,000





35

백자청화 「수」 명팔각호  
白瓷靑畫「壽」銘八角壺

10x7x8cm  
조선시대(구연부/굽 약간수리)

₩ 2,200,000~2,500,000





**36** 백자청화연화문잔  
白瓷靑畵蓮花紋盞

4.5x12.3x6.2cm  
조선시대

₩ 1,700,000~2,000,000





37 백자청화 「수복」 명대鉢  
白瓷靑畫 「壽福」 銘大鉢

10x24x10,5cm  
조선시대

₩ 13,000,000~15,000,000



**38** 백자호  
白瓷壺

32.5x11x11cm  
조선시대(구연부 약간수리)

₩ 3,000,000~3,500,000







**39** 백자양이호  
白瓷兩耳壺

27x17.5x15.5cm  
조선시대

₩ 1,500,000~2,000,000





40 분청인화문접시  
粉靑印花紋楪匙

3.7x12x4.8cm  
조선전기

₩ 100,000~200,000



41 백자병 3점  
白瓷瓶 三点

높이 17.5cm 내외  
조선후기

₩ 500,000



**42** 청자상감운학문잔  
靑瓷象嵌雲鶴紋盞

6.1x12.1x3.7cm  
고려시대(균열수리)

₩ 2,500,000~3,000,000



43 백자청화운학죽문병  
白瓷靑畫雲鶴竹紋瓶

16,2x2,8x7,3cm  
조선시대

₩ 3,000,000~3,500,000





44 백자청화운학죽문병  
白瓷靑畫雲鶴竹紋瓶

20,3x2,9x9cm  
조선시대

₩ 12,000,000~13,000,000







**45** 백자청화모란문병  
白瓷靑畫牡丹紋瓶

22x3.8x9.8cm  
조선시대

₩ 3,200,000~3,500,000





46 백자청화모란박쥐문병  
白瓷靑畫牡丹蝠紋瓶

30x4.5x3.5cm  
조선시대

₩ 3,500,000~3,700,000





47 백자청화운학죽문병  
白瓷靑畫雲鶴竹紋瓶

19,2x4x8,3cm  
조선시대

₩ 10,000,000~12,000,000





48 백자청화매죽조문병  
白瓷靑畫梅竹鳥紋瓶

26x5.6x9.5cm  
조선시대

₩ 13,000,000~15,000,000





**49 백자양각매화문병**  
白瓷陽刻梅花紋瓶

18,2x3,5x8,9cm  
조선시대

₩ 6,000,000~7,000,000

작고 균형감 있는 형태에 구연부는 살짝 밖으로 말려있으며, 몸체 전면에 매화문을 단아하게 양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몸체를 깎아낸 것이 아니라 문양에 따라 백토를 덧붙이거나 도톰하게 바른 뒤 다시 예리한 도구로 세부문양을 음각한 것이다. 흰 바탕에 백색의 문양은 언뜻 눈에 띄지는 않지만 빛의 음영에 따라 달리 보이는 매화문은 이 작품에 매력을 더해준다. 유색은 유백색이며 굽은 유약을 닦아 내고 모래를 받쳐 구웠다. 광주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되었다.







50 백자향로  
白瓷香爐

높이 17.5cm  
조선시대

₩ 7,000,000~8,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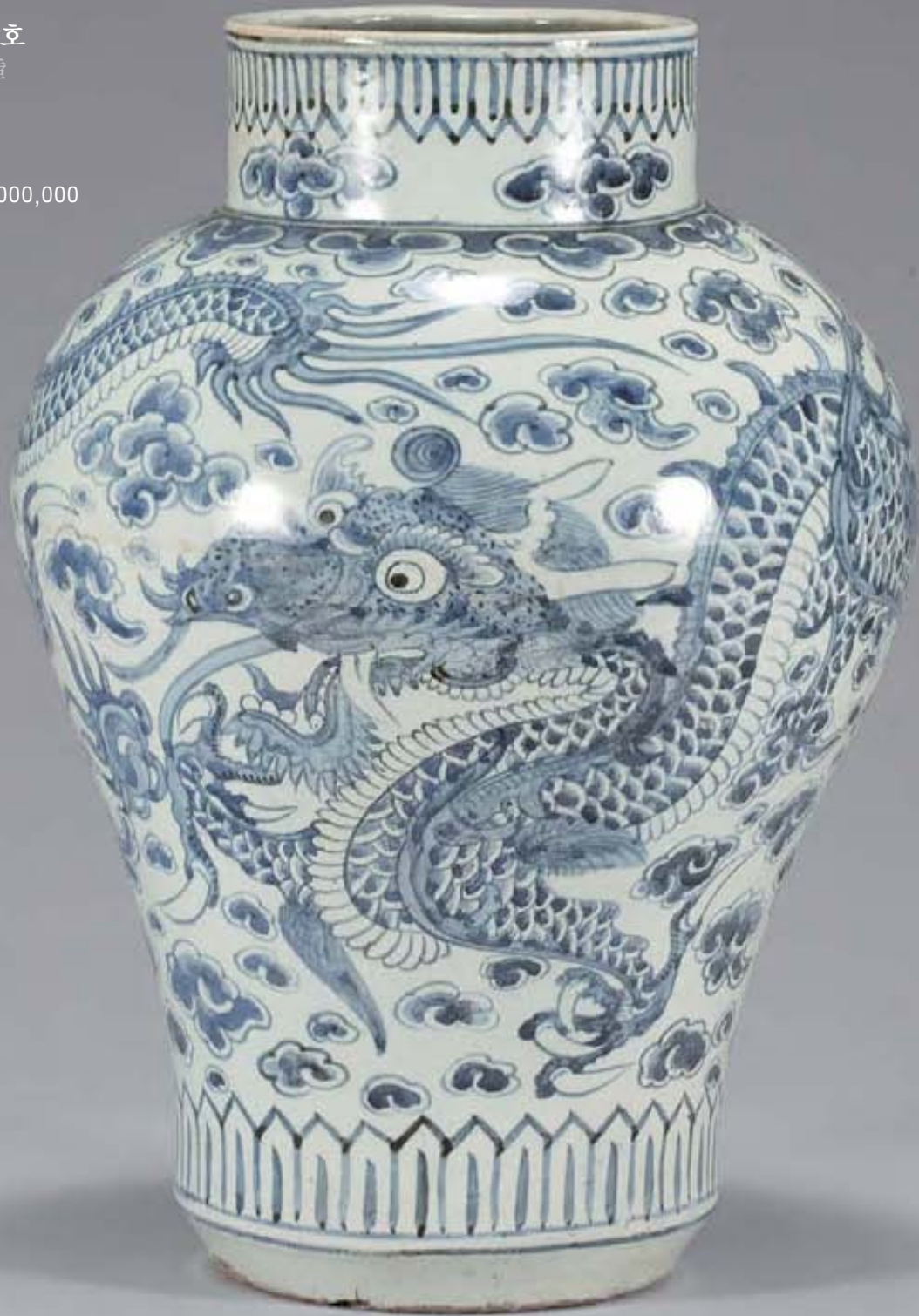


51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瓷靑畫雲龍紋壺

38.5x14.5x14cm  
조선시대

₩ 13,000,000~15,000,000





52 백자청화「수복강녕」명팔각호  
白瓷靑畫「壽福康寧」銘八角壺

14x10,2x10,5cm  
조선시대(18세기)

₩ 8,000,000~9,000,000





**53** 백자유개호(쌍)  
白瓷有蓋壺(雙)

左 27.5x11x13cm  
右 30.5x11x13cm  
조선전기

₩ 35,000,000~40,000,000



54

백자청화화조문호  
白瓷靑畵花鳥紋壺

13x9.3x8.7cm  
조선시대(18세기)

₩ 32,000,000~35,000,000



둥근 몸통에 구연부는 밖으로 벌어져 있는 형태이다. 몸체에는 화조문을 활달한 붓질로 대칭되게 그려 넣었는데 청화안료가 약간 번져 있다. 꽃나무에 앉은 두 마리가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도록 교차시켜 배치하였다. 담청색이 감도는 고운 백자유약이 입혀졌으며, 광택이 좋다. 굽은 단정하게 깎은 다리굽으로,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다. 기형이나 문양이나 유약 모두 아담하면서 단정한 기품을 자아낸다.





**55** 백자청화그물문환형연적  
白瓷靑畫網紋環形硯滴

4,5x8,2x6,6cm  
조선시대

₩ 22,000,000~25,000,000

면은 편평하며 한 쪽에 물구멍이 있고, 그 맞은편에 주구(注口)가 달려 있다. 윗면은 그물같은 기하학적인 문양이 화려하게 가득 채워져 있고, 측면에는 뇌문이 돌려져 있으며, 그 아래 초문이 그려져 있다. 푸른색이 감도는 유약을 시유하였고 굽은 다리굽으로, 모래를 받치고 구웠다. 19세기 광주 분원리요에서 제작되었다.



**56** 백자청화죽문환형연적  
白瓷靑畫竹紋環形硯滴

지름 14.8cm  
조선시대

₩ 22,000,000~25,000,000

몸체가 둥근 토아리 모양의 연적으로, 한쪽에 주구(注口)가 있고 윗면에는 구멍이 나있다. 문양은 청화로 대나무를 그려 넣었는데, 화원이 그린 듯 대담한 필치로 나타내었다. 유색은 담청을 머금은 백자유로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굽은 다리굽으로 모래를 받치고 구운 후, 매끈하게 다듬었다. 남아있는 토아리형(環形)연적 가운데 보기 드문 큰 기형(器形)이다. 단정한 형태, 맑은 유색과 청화가 조화를 잘 이룬 작품이다. 19세기 전반 광주 분원리요에서 제작되었다.



**57** 백자청화운용문병  
白瓷靑畫雲龍紋瓶

30,2x5,7x13,5cm  
조선시대

₩ 35,000,000~40,000,000





58 백자청화모란문유개호  
白瓷靑畵牡丹紋有蓋壺

16,5x11x12cm  
조선시대

₩ 3,300,000~3,500,000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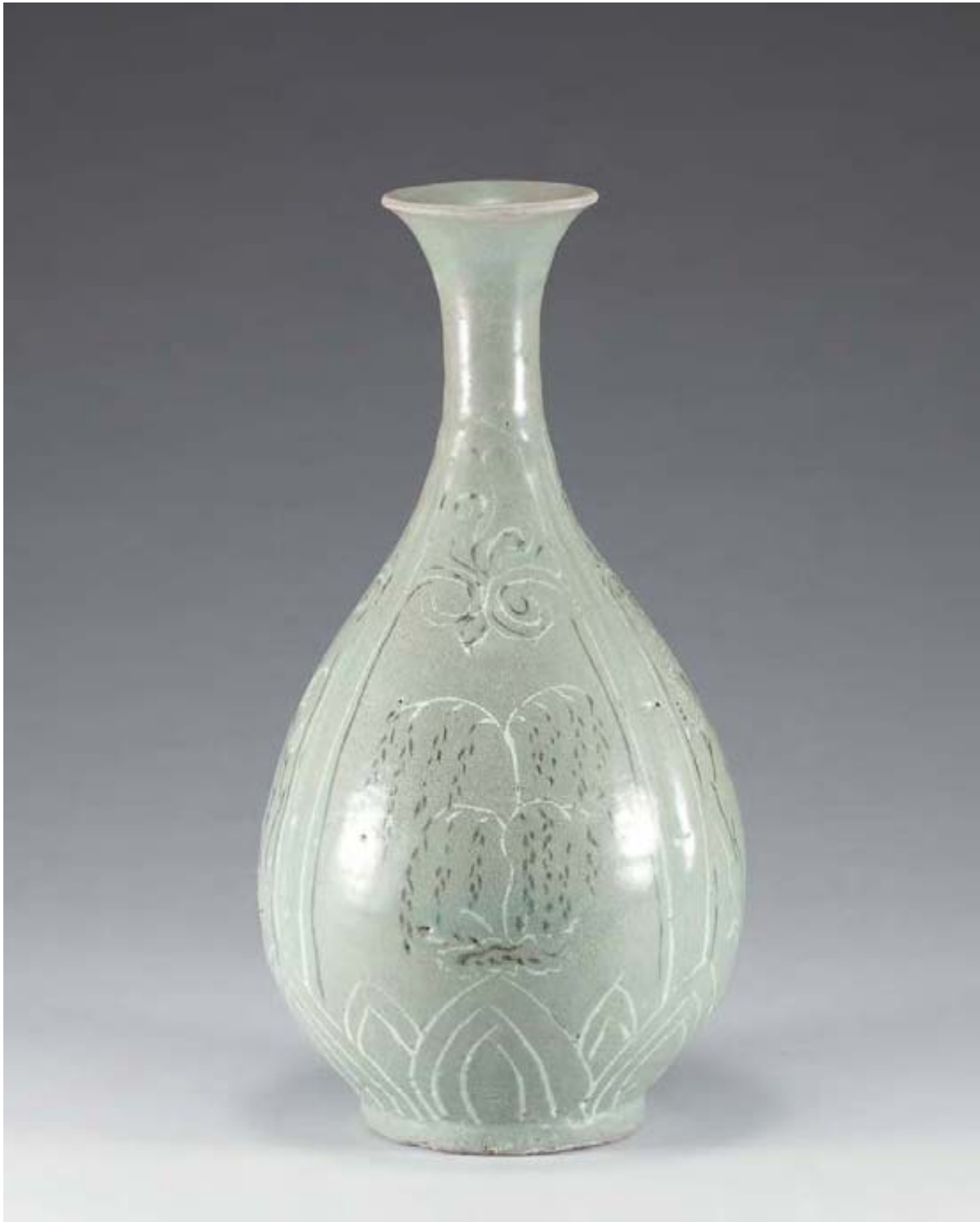
백자청화초화문 「수복강녕」 명호  
白瓷靑畫草花紋 「壽福康寧」 銘壺

26.2x14.3x13.5cm  
조선시대(18세기)

별도문의

구부가 곧게 세워졌고, 상부에서 벌어졌다 좁아지며 세워진 형태이다. 문양은 청화로 하부에 선을 돌리고, 그위로 패랭이 꽃, 국화꽃, 춘란 등을 시원스럽게 그려 넣었다. 꽃 사이 사이 위로 이중 원대에 「수」, 「복」, 「강」, 「녕」 명의 명문을 해서체로 큼직하게 나타내었다. 오랫동안 건강하며 복을 받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잔치·연회에서 술을 담아 사용하였던 주호로 추정된다. 담청을 머금은 백자유가 전면에 맑게 시유되었으며, 굽다리 안바닥에는 희고 검은 모래 받침으로 받쳐 구웠다. 18세기 중반 광주(廣州) 관요에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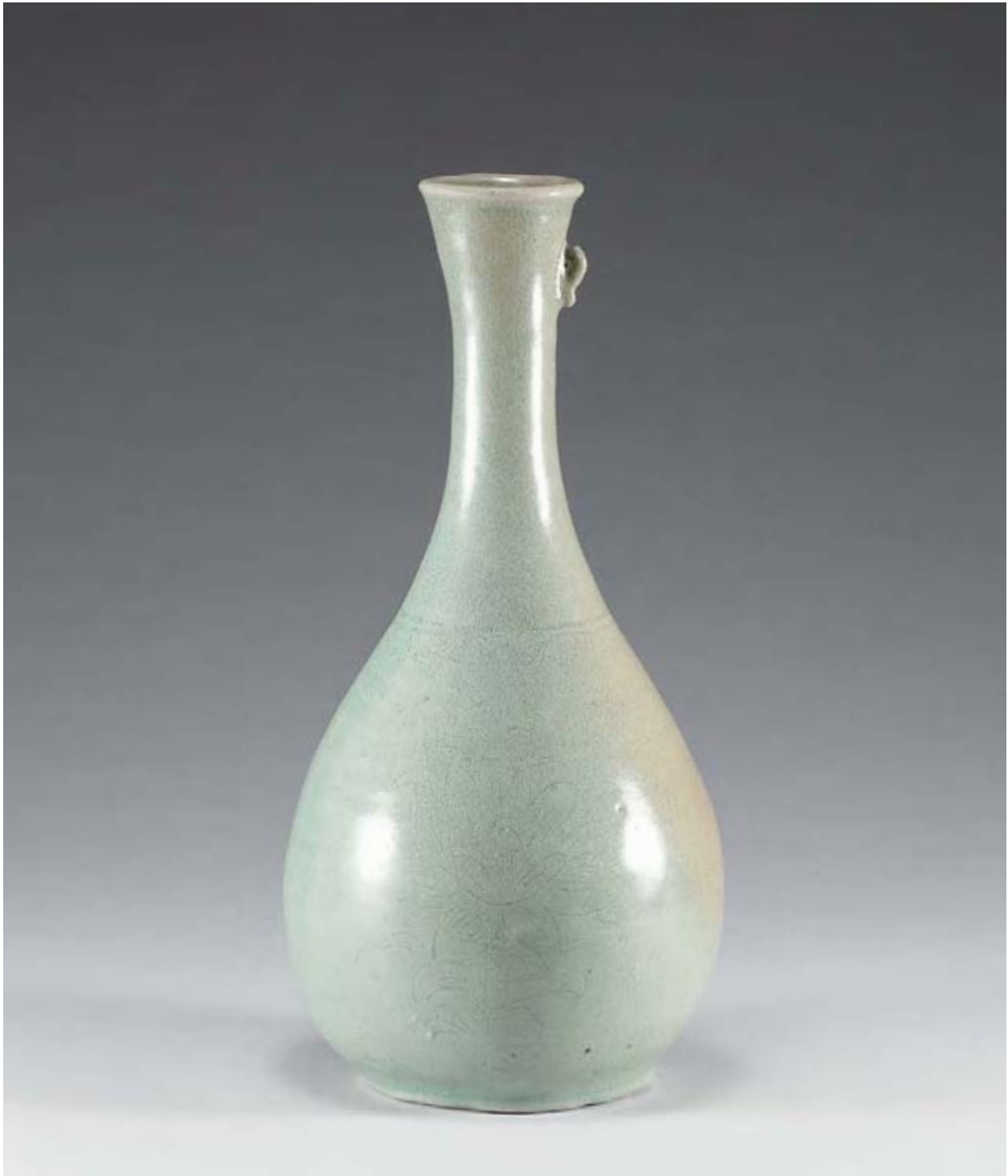


60 청자상감포류수금문병  
靑瓷象嵌蒲柳水禽紋瓶

32.1x7.5x9.8cm  
고려시대

₩ 20,000,000~25,000,000





61 청자음각연화문병  
靑瓷陰刻蓮花紋瓶

29.1x5.2x9.4cm  
고려시대

₩ 15,000,000~20,000,000





**62** 청자상감국화문주자  
靑瓷象嵌菊花紋注子

30.8x7.5x11.3cm  
고려시대(부분수리)

₩ 30,000,000~35,000,000





**63** 청자음각연화문과형주자  
靑瓷陰刻蓮花紋瓜形注子

24,5x4,5x9,8cm  
고려시대

₩ 30,000,000~35,000,000





**64** 청자음각초화문합  
靑瓷陰刻草花紋盒

4x7.5x4cm  
고려시대

₩ 12,000,000~13,000,000





**65** 청자상감국화당초문유병  
靑瓷象嵌菊花唐草紋油瓶

7.5x3x6cm  
고려시대

₩ 1,500,000~2,000,000



**66** 청자유병 9점 靑瓷油瓶 九点

8,5x3,5x5cm 내외  
고려시대

₩ 8,000,000~9,000,000



67 청자상감국화당초문유병  
靑瓷象嵌菊花唐草紋油瓶

4x2,3x4cm  
고려시대

₩ 900,000~1,000,000



68 청자상감국화문접시  
靑瓷象嵌菊花紋楪匙

3,8x12,4x6cm  
고려시대

₩ 900,000~1,000,000



**69** 청자상감운학문발  
靑瓷象嵌雲鶴紋鉢

8.8x18x7cm  
고려시대

₩ 9,000,000~10,000,000





70 청자상감운봉문발  
靑瓷象嵌雲鳳紋鉢

6x20x6.5cm  
고려시대(균열수리)

₩ 8,000,000~9,000,000





**71** 청자양각화문발  
靑瓷陽刻花紋鉢

7.1x20x5.5cm  
고려시대

₩ 13,000,000~15,000,000







**72** 청자양각화문발  
靑瓷陽刻花紋鉢

7x19.5x6.4cm  
고려시대

₩ 13,000,000~15,000,000



〈굽에 새겨진 명문〉



**73** 청자양각동자문발

靑瓷陽刻童子紋鉢

7x19.5x6.3cm

고려시대

₩ 5,000,000~6,000,000





**74** 청자상감운학문접시  
靑瓷象嵌雲鶴紋楨匙

2,5x13x6,5cm  
고려시대(모서리 약간 수리)

₩ 1,500,000





**75** 청자병  
靑瓷瓶

20x4.5x7cm  
고려시대

₩ 2,000,000~3,000,000



**76** 청자음각연화문병  
靑瓷陰刻蓮花紋瓶

26.4x6.5x10.5cm  
고려시대

₩ 12,000,000~15,000,000





77 청자타호  
靑瓷唾壺

9,5x19,5x6cm  
고려시대

₩ 8,000,000~10,000,000





78 토기기대  
土器器臺

34x37x33cm  
삼국시대

₩ 1,000,000



79 토기기대  
土器器臺

36x38x32cm  
삼국시대

₩ 1,000,000

80 토기호  
土器壺

32x11cm  
삼국시대

₩ 800,000





**81** 토기 화로  
土器火爐

높이 36cm  
청동기시대

₩ 20,000,000~25,000,000



82 빗살무늬토기

櫛紋土器

높이 31cm

신석기시대

₩ 15,000,000~20,000,000

83 청동합 일괄(2점)  
 靑銅盒 一括(二点)  
 17.2x17.5x10.5cm 내외  
 고려시대

₩ 2,000,000~2,500,000



84 청동합, 잔, 잔대 일괄(2점)  
 靑銅盒, 盞, 盞臺 一括(二点)  
 높이 각 15cm, 7cm  
 고려시대

₩ 2,000,000~2,500,000







85 청동반자  
靑銅盤子

8.5x31cm  
고려시대

₩ 25,000,000~30,000,000



〈청동반자 측면 명문〉





86

청동범종  
靑銅梵鐘

높이 31.5cm  
고려시대

₩45,000,000~50,000,000

신라 범종에 비하여 크기는 작아졌지만 기본 형식은 물론 음통이나 용뉴 등도 신라의 형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고려시대의 범종이다. 종정(鐘頂) 둘레에는 연판문의 입상대가 두드러지게 둘러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용뉴와 음통은 종의 크기에 비하여 큰 편이고 조각은 매우 생동감이 있다. 이 종은 상하대에 당초문이 아닌 뇌문과 연주문이 배치되고 있어 특이하며, 유두와 당좌의 연화문이 정교하고 크게 도드라져 있는 점이 주목된다. 종신의 중앙부에 천의 자락을 휘날리는 비천상의 조각도 우수하다.





**87 백자양각송죽문호**  
白瓷陽刻松竹紋壺

23x11.5x12cm  
조선시대

₩ 45,000,000~50,000,000



구연부가 약간 벌어져 세워졌으며, 몸체는 어깨에서 벌어져 좁아지다 다시 벌어져 세워졌다. 몸체 한쪽에는 간략한 소나무가지와 다른면에는 대나무를 간결하게 시문하였고, 그 중간에 불로초(不老草) 한 송이를 양각하였다. 유색은 담청을 머금은 백자유로 전면에 곱게 입혀 졌으며 광택이 은은하다. 굽다리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를 받쳐 구웠다. 광주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깔끔하고 당당하게 잘생긴 작품이다.



**88** 백자양각국화문병  
白瓷陽刻菊花紋瓶

28.5x4.3x11.8cm  
조선시대

₩ 45,000,000~50,000,000



구연부가 약간 밖으로 말리고 목부분은 길게 세워졌으며, 몸체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려 안정감을 주는 병이다. 몸통부분에는 큼직한 국화문이 선명하게 양각되어있는데, 그 솜씨가 대단히 뛰어나다. 담청색을 머금은 유약이 전면에 고루 입혀졌으며, 광택이 은은하다. 문양을 양각으로 장식한 백자는 18세기말 정조(正祖) 임금이 청화백자의 제작과 사용을 금지하면서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굽안쪽에 상(上)명이 음각으로 새겨져있으며 굽다리는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구웠다. 광주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수작(秀作)이다.

89

백자청화동채운봉문호  
白瓷靑畫銅彩雲鳳紋壺

26x11.5x11.7cm  
조선시대

₩ 70,000,000~80,000,000

직립된 구부와 어깨에서 팽창되었다가 서서히 좁아져 세워진 장신호이다. 동체 전면에 활달한 솜씨로, 구름속에서 봉황이 여의주를 집어 삼키려는 역동적인 순간의 모습을 청화로 간략하게 그린 후 산화동을 칠해 개성있게 나타내었다. 담청을 머금은 백자유가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저부가 깎인 굽다리에는 유약을 닦아내고 모래를 받쳐 구웠다. 광주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된 수작(秀作)이다.







90 다듬잇판, 방망이 등 일괄  
砧板, 砧杵

76x36x30cm  
조선후기

₩ 500,000



91 가죽퇴침문서함  
革退枕文書函

13x41x15cm  
조선시대

₩ 3,000,000~3,500,000





92 등잔대 燈盞臺

높이 39cm  
조선시대  
₩ 500,000



93 등잔대 燈盞臺

높이 70cm  
조선시대  
₩ 500,000



94 서류함 書類函

37x22x14cm  
조선시대

₩ 1,000,000



95 조각연상  
彫刻硯床

41x28,5x26,5cm  
조선시대

₩ 2,000,000~2,500,000

96 빗집  
梳函

29x25x32cm  
조선시대

₩ 1,000,000





97 나전빗집  
螺鈿梳函

29.5x29.5x26.5cm  
조선시대 (18세기)

₩ 15,000,000~17,000,000





**98** 서류함 書類函

39x20x22cm  
조선시대

₩ 1,500,000~2,000,000



**99** 서류함 書類函

33x16,5x12cm  
조선시대

₩ 1,000,000



**100** 버선장  
버선櫥

72x30x46cm  
조선시대

₩ 2,000,000~2,500,000

**101** 뒤주  
斗廚

47.5x32.5x39cm  
조선시대

₩ 1,500,000





102 경기도반달이  
京畿道櫃

102x45.5x106cm  
조선시대

₩ 4,500,000~5,000,000







103 전주반단이  
全州櫃

91x42.5x75cm  
조선시대

₩ 3,000,000



104 주칠돈궤  
朱漆錢櫃

83x42x32cm  
조선시대

₩ 2,000,000

105 박천반달이  
博川櫃

97x49x81cm  
조선시대

₩ 10,000,000~12,000,000



106 약장  
藥櫥

62,5x24x62,5cm  
조선시대

₩ 7,000,000~8,000,000







107 나주반  
羅州盤

46x37.5x28cm  
조선시대

₩ 500,000



108 나주반  
羅州盤

45.5x37.5x28cm  
조선시대

₩ 500,000



109 해주반  
海州盤

44.7x35.5x27cm  
조선시대

₩ 500,000

**110** 호족반  
虎足盤

41x41x26.5cm  
조선시대

₩ 500,000



**111** 호족반  
虎足盤

41x41x27.5cm  
조선시대

₩ 500,000







**112 약상 3점 藥床 三点**

높이 12cm 내외  
조선시대

₩ 1,500,000~2,000,000

**113 백동은입사담배합  
白銅銀入絲煙草盒**

13x10x7.5cm  
조선시대

₩ 9,000,000~10,000,000



[참조]  
〈백동은입사 담배합 白銅銀入絲煙草盒〉  
-소장처 국립중앙 박물관-



114 일월연 日月硯

13,5x23,5x2cm  
조선시대

₩ 1,300,000



115 일월연 日月硯

16,5x27x2cm  
조선시대

₩ 1,300,000



116 일월연 日月硯

21x31x2,5cm  
조선시대

₩ 2,600,000



117 일월연 日月硯

15x23,5x2,5cm  
조선시대

₩ 1,800,000



118 하회탈  
河回假面

길이 26cm  
조선시대

₩ 7,000,000~8,000,000



119 석조나한좌상  
石造羅漢坐像

높이 26cm  
조선전기

₩ 5,000,000







AT auction

Art & Treasure Auction 에이티 옥션





**120 화엄경 39권**  
華嚴經 三十九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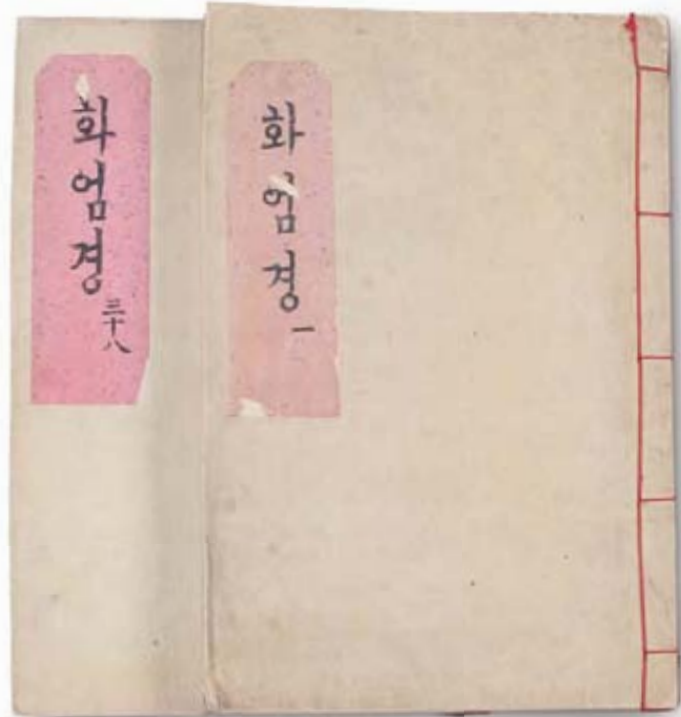
종이에 먹  
각 34.5×23cm  
1904년 작

₩ 60,000,000~70,000,000

이 언해본(諺解本)은 1904년, 창덕궁(彰德宮)에 있는 궁녀들이 쓴 것으로 전해지며, 조선의 제26대 왕인 고종(高宗, 1852~1919)과 영친왕(英親王) 등 왕실의 만수무강과 번영을 축원하는 뜻을 정성들여 한글로 필서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다.

궁중에서 보관해 오던 유물로 전래되어지며, 불교유물로서 귀중한 유물로 여겨진다. 모두 3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1권은 상·하로 분리되어 있어 총 39권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석가(釋迦)가 도를 이룬 뒤 이레가 되던 날 깨달은 대로 설한 경문(經文)으로서 불교(佛敎)의 가장 높은 교리(敎理)이다. 695년에 인도의 승려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중국 낙양[洛陽]으로 가져와 한역(漢譯)하였던 <화엄경(華嚴經)>(80권)을 토대로 구성한 불교 경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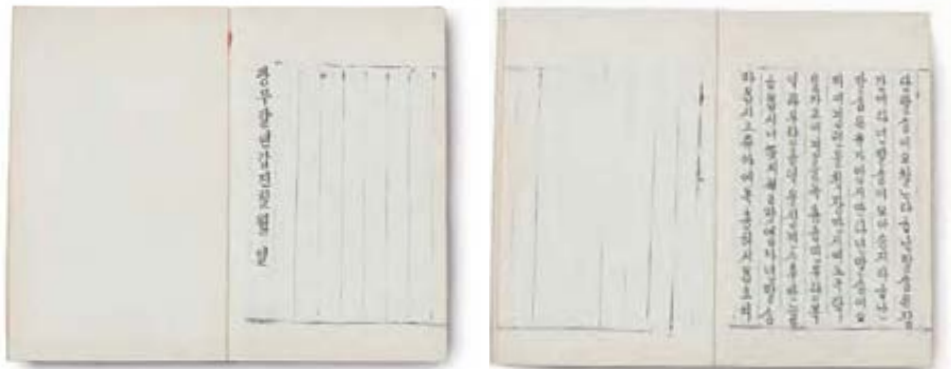
제1권

〈세주묘엄품(世州妙嚴品)〉은 화엄경의 총론으로 붓다께서 깨달음의 눈을 뜨고 본 역사현장의 보리수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화엄법회의 실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열린 가슴과 마음으로 보기만 하면 분명 지금 여기 삶의 주체인 그대와 내가 본래부터 완전한 부처였고 두발을 딛고 서있는 역사현장이 그대로 화엄의 연화장세계임을 목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보여주고 있다.



제38권

궁녀들의 축원문이 담긴 〈입법계품(入法界品)〉은 번뇌가 모두 소멸된 깨달음의 경지를 말한다. 선재동자가 갖가지 수행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고 법계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선재동자가 천주광(天主光)이라는 왕녀(王女), 우바이 현승(賢勝), 견고(堅固) 해탈 장자, 묘월(妙月) 장자, 무승군(無勝軍) 장자, 덕생(德生) 동자, 유덕(有德) 동녀 등을 만나서 각각 법문을 듣고 점차 해탈의 법계로 진입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아무런 구속도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 극락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불도를 닦아 수행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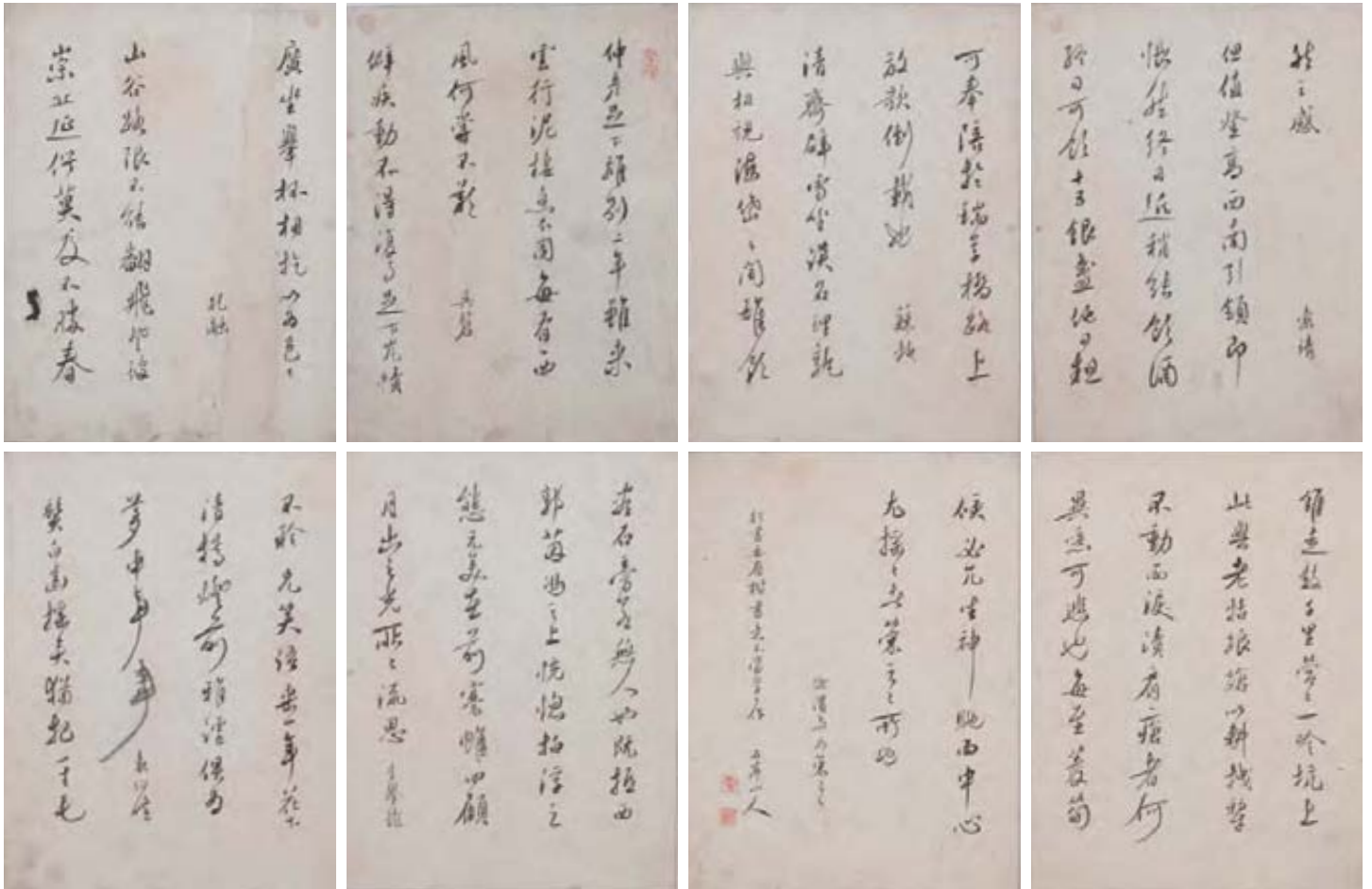
“내가 15살에 서울에 왔는데, 그때는 포교당도 많이 없었고 신도들도 별로 없었지요. 포교당이라는 것이 지금 조계사 자리의 각황사와 선학원, 대각사 정도였어요. 지금의 풍문여고 자리는 그 당시 별궁이었습니다. 창덕궁에 있는 궁녀들이 살면서 창덕궁으로 출근하는 그런 곳이었지요.……별궁의 상궁들이 선학원에 나오고 그랬어요. 가끔 오는 신도도 양반댁 부녀자와 그들을 따르는 시녀들 정도였습니다. 다른 데 있는 일반 사람들은 절에 올 줄 몰랐던 때였어요.” [석주 스님(칠보사 조실) ‘어른들에게 듣는 덕담-우수한 불교를 알기 쉽게’ 〈월간 붓다〉 2000년 4월호]



121 책가도 8폭병풍  
册架圖 八幅屏風

종이에 수묵채색  
각 85×35cm  
조선시대

₩ 9,000,000~10,000,000



122 석정 이정직-묵서 8폭병풍  
 石亭 李定稷- 墨書 八幅屏風

종이에 먹  
 각 25×19cm  
 1840-1910년

₩ 3,500,000~4,000,000

석정 이정직(石亭 李定稷)은 뛰어난 유학자로 27세 때인 1869년(고종 6)에 중국으로 가는 사신을 수행하게 되었다. 베이징[北京]에 머무르는 동안 중국의 시문학에 대한 고증과 논평, 성리학에 있어서의 정주학과 양명학에 대한 변해와 논평, 칸트 등 서양 철학에 대한 연구와 동서 철학의 절충론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석산방미정문고(燕石山房未定文庫)』 11책 등을 남겼다. 후에 향리로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면서 어음학(語音學), 천력학(天歷學), 술수학(術數學) 등 다방면에 걸쳐 저술을 남겼다.





**123 화조영모도 12폭병풍**  
花鳥翎毛圖 十二幅屏風

종이에 수묵담채  
각 134×34cm  
조선시대

₩ 15,000,000~20,000,000

\*오원 장승업 화풍(畫風)



124 위창 오세창-와당도 12폭병풍  
葦滄 吳世昌-瓦當圖 十二幅屏風

종이에 먹, 6폭병풍 2틀, 1939년 작  
각 135.5×32.5cm  
1864~1953년

₩ 10,000,000~12,000,000



## 125

### 심전 안중식-고사인물도 12폭 병풍 心田 安中植-故事人物圖 十二幅屏風

비단에 수묵채색, 6폭병풍 2틀  
각 143.5×28.5cm  
1861~1919년

₩ 55,000,000~60,000,000

심전 안중식(心田 安中植)은 생애와 작품으로 보아 두 시대(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이어주는 다리에 서서 흔적을 남긴 화가라 하겠다. 그러니까 조선말기의 전통회화를 근대화단으로 계승시키는 역할을 했던 명화가였다.

안중식은 조석진(1853-1920)과 함께 생애를 마칠때까지 함께 공부하러 가기도 했고(1881년에 중국으로 1년간), 고종황제의 어진도 그렸으며(1902년), 서화미술원을 설립(1911년)하고 제자들(김은호, 노수현, 이상범 등)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물론 글씨와 그림도 비슷하게 쓰고 그렸다. 그래서 근대화단에 끼친 소림과 심전의 영향은 컸다.

심전과 소림은 1919년에 민족서화가들을 중심으로 서화협회(書畫協會)를 결성하여 중심인물로 활동하였고, 그 해와 그 다음해 연이어 세상을 떠나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심전은 못 그리는 그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그림(산수화, 화조화, 기명절지화, 인물화 등)을 두루 다 잘 그렸다.

심전의 대표작으로는 백악춘효도(白岳春曉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성재수간도(聲在樹間圖, 간송미술관 소장), 도원문진도(桃源問津圖, 호암미술관 소장) 등이 있다.

모두 12폭에 이르는 대작으로 6폭씩 병풍 두 틀로 꾸며졌다. 배경을 이루는 산수와 적당한 조화를 이루며 비중 있게 등장한 인물, 완숙이나 활달함과는 구별되나 차분한 필선으로 전통적인 기법에 충실한 산세처리, 담채(淡彩)의 사용, 동자를 거느리거나 벗과 함께 한 또는 홀로 취한 유연(幽然)한 자연관조(自然觀照) 등 등장인물의 자세나 표정마저 읽을 수 있는 적확(的確)한 표현, 뚜렷한 주제와 서정성, 유려한 서체의 제실(題詞) 등 41세 장년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화가의 기량(技倆)을 잘 보여준다. 좋은 비단에 좋은 물감을 써서 세필로 정성스럽게 그린 명품이며 조금 전에 그린 그림인 양 현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東園竟日  
看水鳥入花  
卷之九



春衣與君遠  
分及又買花



甚佳  
初晴  
近清明



竹解  
心是我師  
蓮十箇  
外宜行  
心宜而  
御覽典  
蓮  
并稱  
君子  
方非  
以長  
其語  
共祥



溪下  
風恬  
物外  
心  
以我  
清淨  
耳聽  
此六  
古音



顧夫  
曉月  
如燈  
光武  
辛酉  
嘉平  
月心  
田安  
中種  
畫



秋林  
紅葉  
晚蕭  
垂與  
清  
琴  
乃遠  
野  
倦人  
生翠  
不  
凡  
台  
中  
小  
練  
未  
山  
青



湖雁  
自南  
人自  
北一  
時  
王任  
自明  
中



折  
題  
寒  
錦  
上  
翠  
街  
洪  
武  
辛  
酉  
嘉  
平  
月  
心  
田  
安  
中  
種  
畫



一  
溪  
新  
漲  
天  
前  
行  
照  
見  
青  
山  
亦  
不  
香  
何  
自  
香  
魚  
不  
食  
釣  
竿  
只  
好  
玉  
蟾  
蟾



南  
信  
竹  
葉  
秋  
秋  
掃  
小  
荷  
根  
村  
光  
同  
故  
屏  
惟  
何  
月  
初





126 소림 조석진-화조도 8폭명품  
小琳 趙錫晉-花鳥圖 八幅屏風

종이에 수묵담채  
각 146×32cm  
1853~1920년

₩ 30,000,000~40,000,000

# 小琳 趙錫晉



소림 조석진(小琳 趙錫晉)은 1902년 고종 등극 40주년 기념으로 고종황제의 어진과 황태자의 초상을 안중식과 함께 그렸다. 이로 인해 정3품(正三品)에 올랐고 영춘군수(永春郡守)를 역임했다. 소림도 <군리도(群鯉圖)>를 남기고 있는데, 대를 물려 화업(畵業)을 이은 화원가문으로 조부 조정규(趙廷奎, 1791-1837이후)는 특히 어해도(魚蟹圖)에 명성이 높았다. 1881년 28세 때 안중식과 함께 신무기 제조법 연수차 중국 텐진에 1년간 다녀왔다. 1911년 경성서화미술회를 조직했고 서화미술전을 개최했다. 1918년 최초의 미술단체인 서화협회를 조직해 1대 안중식에 이어 제2대 회장을 맡기도 했고 산수·인물·화조 등 다방면에 재능을 보였다. 외손자인 변관식을 비롯해 그의 문하에서 적지 않은 화가들이 배출된다.

매죽(梅竹)에 깃든 참새, 목련과 계수나무에 앉은 구육새, 버드나무와 도화(桃花) 가지 위의 까치 한 쌍, 연꽃 아래 해오라기, 파초와 국화를 배경으로 수탉과 나비, 오통과 장미 사이 개, 단풍 든 나무 위의 백응(白鷹), 갈대 위를 나는 기러기 등 봄에서 늦가을까지 계절 감각이 선명한 식물에 개 한 소재를 제외하곤 7점 모두 새를 등장시켰다. 매 폭에 있는 유려한 서체의 소림의 그림에서 어렵지 않게 살필 수 있는 제시(題詩)는 두 사람의 친밀(親密)을 말해주는듯 안중식이 모두 썼다. 농채(濃彩)는 아니나 장승업의 영향을 짙게 담고 있다.





**127 춘방 김영-산수도 10폭병풍**  
春舫 金瑛-山水圖 十幅屏風

비단에 수묵담채  
각 160.5×34cm  
1837~1917년 경

₩ 30,000,000~40,000,000

춘방 김영(春舫 金瑛)은 1863년부터 10년간 지속된 칠송정시사(七松亭詩社)에 참여한 중인출신 여향문인으로 시·서·화 모두에 두루 능했다. 젊어서 이름은 종대(鍾大)로, 본관은 분성(盆城)이며 자는 성원(聲遠)이고 호는 춘방(春舫)이다. 안중식(安中植, 1861-1919)이나 조석진(趙錫晉, 1853-1920)에 앞서 청대(清代) 정통파(正統派)를 따른 6폭에서 12폭에 이르는 여러 틀의 산수병풍 대작·양주화파(揚州畫派) 김농(金農, 1687-1764)의 영향이 감지되는 <죽란(竹蘭)>과 <석란(石蘭)> 등 사군자·괴석(怪石)·화조·책가도 등 수묵담채만이 아닌 채색화 등 다양한 화목의 유작들이 최근에 두루 공개되면서 새롭게 조명이 이루어진 화가이다. 비록 그가 지은 것은 아니나 그림에 부친 제시를 통해 유려한 서체를 엿볼 수 있다. 새로운 감각으로 주목되는 김수철 그림에 추제(追題)를, 장승업(張承業, 1843-1897) 그림에 제시를 남겨 이들과의 교류를 짐작케 한다.

세로 긴 화면에 수묵 위주에 담채를 가했으며 각기 독립된 주제이나 계절을 담고 있으며, 산세 표현이나 나무 묘사에서 섬세하며 꼼꼼한





처리 등 다소 고답적이며 화본풍임을 피하기 힘들으나 먹 사용과 필치에서 기본(基本)에 충실한 나름대로의 성실함, 두 폭씩 살필 때도 소밀(疏密)과 개폐(開閉)를 고려한 지그재그식 논리적 화면 구성, 화면 구성 요소인 양 상단 좌우에 예외 없이 적고 있는 형식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유려한 서체의 관련 제시 등 일련의 그의 산수에서 두루 감지되는 일정 유형을 이 병풍 또한 어김없이 견지(堅持), 고수(固守)하고 있다. 이들 일련의 산수를 통해 청화풍의 유입과 더불어 조선말에서 근대로 이어지며 안중식과 조석진에 의해 정형화된, 틀 잡힌 산수양식의 선구(先驅)를 짐작케 한다. 이 산수도10폭병풍(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의 산수도10폭병풍과 아주 닮았다)은 그의 그림재주와 글씨를 잘 볼 수 있는 대표적 작품이라 볼 만하다. 그림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전래되는 그의 작품 중 규모면에서 이처럼 큰 작품은 보기 드물다.

◆참고문헌◆

李源福, 「少南과 春舫의 그림 -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古美術저널』 30호(2006.10), pp.58-66.

김소영, 「春舫 金瑛의 生涯와 繪畫 研究」, 『미술사학연구』 267호(한국미술사학회, 2010.9), pp.111-138.





## 128

### 묵노 이용우-산수도 10폭병풍

墨鷺 李用雨-山水圖 十幅屏風

종이에 수묵담채  
각 116,5×32,5cm  
1904~1952년

₩ 9,000,000~10,000,000

정겹고 따뜻한 전원(田園)과 산천풍경을 통해 한국인의 온화한 심성을 즐겨 다룬 화가 이용우의 처음 호는 춘전(春田)이다. 1911년 경성서화미술원 제1기생으로 입학,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16세인 1918년 최연소자로 서화협회 정회원이 되었고 18세 때 오일영과 함께 그의 대표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창덕궁 대조전의 벽화인 <봉황도(鳳凰圖)>를 그렸다.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고성춘심(古城春深)>으로 4등을 수상했다. 1923년 제3회 서화협회전에 <월야독서(月夜讀書)>, 선전에 <실제(失題)>를 출품했다. 또한 이상범·노수현·변관식과 함께 최초의 동양화가 동인인 '동연사(同研社)'를 조직하고 고려미술원 전시에도 출품했다. 선전에는 3회부터 출품, 제18회에 <산가(山家)>로 특선을 했다. 1942년 서울 부민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1948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이 산수병은 현존하는 유작 중 대작에 들며 방금 전 그린 그림인 양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꽃 피는 봄부터 풍광 언 산하인 겨울까지 사계절을 10폭에 전개시킨 산수도이다. 산수화보다는 풍경화(風景畵)에 가까우나 논리적이며 시각 확장의 대관적(大觀的) 화면 전개, 자연스럽게 펼쳐진 계절 감각, 그 안에 깃든 여러 형태의 건물과 배, 작게 등장한 인물들, 사실적인 묘사를 감각적인 요소를 살린 경쾌하고 빠른 습필(濕筆)과 파필(破筆)로 짧은 필선의 반복, 청신감(清新感)이 물씬 풍기는 수채화풍(水彩畵風)의 담청(淡靑)과 담황(淡黃)의 사용 및 먹색의 조화 등이 돋보인다. 폭마다 '묵로'로 관서했고 화면 내 제작연도를 알려주는 간기는 없으나 1951년 한국동란 때 전주(全州)에서 병사하기 1년 전 그린 <설경(雪景)>과 유사한 필치로, 그 보다는 앞선 그림으로 생각된다.





129 소정 변관식-사계산수도 8폭병풍  
 小亭 卞寬植-四季山水圖 八幅屏風

종이에 수묵담채  
 각 127.5×32cm  
 1899~1976년

₩ 40,000,000~50,000,000





네 계절을 각기 두 점씩 모두 8폭에 전개한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는 현존작을 살필 때 조선 초 안견(安堅, 15세기)의 전칭(傳稱) 화첩까지 소급된다. 조선왕조 전체와 근대를 지나 오늘날까지 화첩이나 대작 병풍으로 즐겨 그려 지니 그 역사는 사뭇 오래고 길다. 변관식은 정선(鄭敼, 1676-1759)과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이후) 등 조선 후기 거장들의 실경산수를 천작(穿鑿)해 맥을 이어 조방(粗放)한 필치이나 적묵법(積墨法)과 파선법(破線法)으로 20세기 후반 산수화에 있어 독자적인 경지를 이룩했다.

각 폭마다 예외 없이 제시가 있으며, 분홍색 꽃이 돋보이는 봄, 묵색 짙은 여름, 단풍 든 가을, 설경 등 두 폭씩 계절 감각이 선명하게 잘 드러난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으로 1957년 그린 <설경(雪景)>을 비롯해 1960년대 후반 즐겨 그린 <산수대련> 등에서도 이들 그림과 같은 7언절구를 살필 수 있다.



**130** 의도인 허백련-십군자 10폭병풍  
 毅道人 許百鍊-十君子 十幅屏風

종이에 수묵  
 각 103.5×32.5cm  
 1891~1977년

₩ 7,000,000~8,000,000





‘최후의 전통 남화가’로 지칭되는 허백련은 진도에서 허련(許鍊, 1808-1893)의 방계(傍系)로 태어나 운림산방에서 허련의 넷째 아들 허형(許瀾, 1852-1931)에게 그림을 배웠다. 1915년 일본에 가 법학을 전공하다 중단하고 1917년 일본 남화(南畵)의 거장 고무로 스이운(小室翠雲, 1874-1945)에게서 남화를 배웠고, 1918년 귀국해 1920년 나이 서른에 목포공회당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1922년 <추경산수>로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1등 없는 2등에 수상, 1938년 광주에 연진회(鍊眞會) 창설, 1945년 무등산 증심사(證心寺) 계곡에 위치한 오방정(五放亭)에서 삼애학원 설립, 1948년 농업기술학교를 세웠다. 이어 오방정을 헐고 춘설軒(春雪軒)을 짓고 차밭을 가꾸며 탈속한 다인(茶人)으로 예술가의 삶을 영위했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지도해 호남의 화맥(畵脈)을 이었다.

이 작품은 사군자인 매화·난초·국화·대나무에 목련·모란·연꽃·파초·포도·소나무 여섯 식물을 더한 열 가지 식물을 그린 10군자도이다. 이들 10군자의 소재는 각자가 지닌 좋은 상징성과 관련고사와 일화로 한자문화권 전통사회에서 오랜 세월 그림뿐 아니라 시문(詩文)으로 즐기치게 상찬(賞讚)되었다. 황집중(黃執中, 1533-1593 이후)의 목포도, 이정(李霆, 1554-1626)의 목죽, 어몽룡(魚夢龍, 1566-1617)의 목매 등 조선시대 중기 문인화가들에 의해 각기 한 소재씩 발전해 조선 후기화단에 이르러 심사정(沈師正, 1707-1769)와 강세황(姜世晃, 1713-1791) 등에 의해 사군자와 함께 일괄로 그려졌다. 이후 19세기 조선 말기 화단에서 근대화단, 그리고 오늘날 서예 영역에 이르기까지 8군자, 10군자 등 대작 병풍으로 그려지게 된다.

매 폭에 악관을 ‘의도인(毅道人)’으로 쓰고 있다. 이 낙관은 1951년 해남에서 환갑을 맞은 해부터 사용했다. 채색 사용 없이 먹만으로 그렸으며 농담의 적절한 구사가 주는 용묵(用墨)의 묘, 맑고 담백함이 돋보인 구성, 유려한 필치, 비록 화가 자신의 지은 시(詩)는 아니나 마치 화면의 한 구성 요소인 양 화면 상단 좌우에 있는 7언시(言詩)가 있다. 화면 내 제작연대를 밝힌 간기는 없으나 문인화(文人畵)의 격조와 기량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완숙기에 수묵으로 그린 가작(佳作)임을 짐작케 한다. 꽃피는 순서대로 일괄로 배치했으며 각 폭이 독립된 소재이나 전체를 함께 살펴도 자연스런 흐름과 조화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金仁煥, 「毅齋 許百鍊論」, 『山水畵四大家展』 (호암미술관, 1989), pp.135-139



**131** 구룡산인 김용진-화훼도 8폭 병풍  
九龍山人 金容鎮-花卉圖 八幅屏風

종이에 수묵채색, 1959년 작  
각 128.5×32.5cm  
1882-196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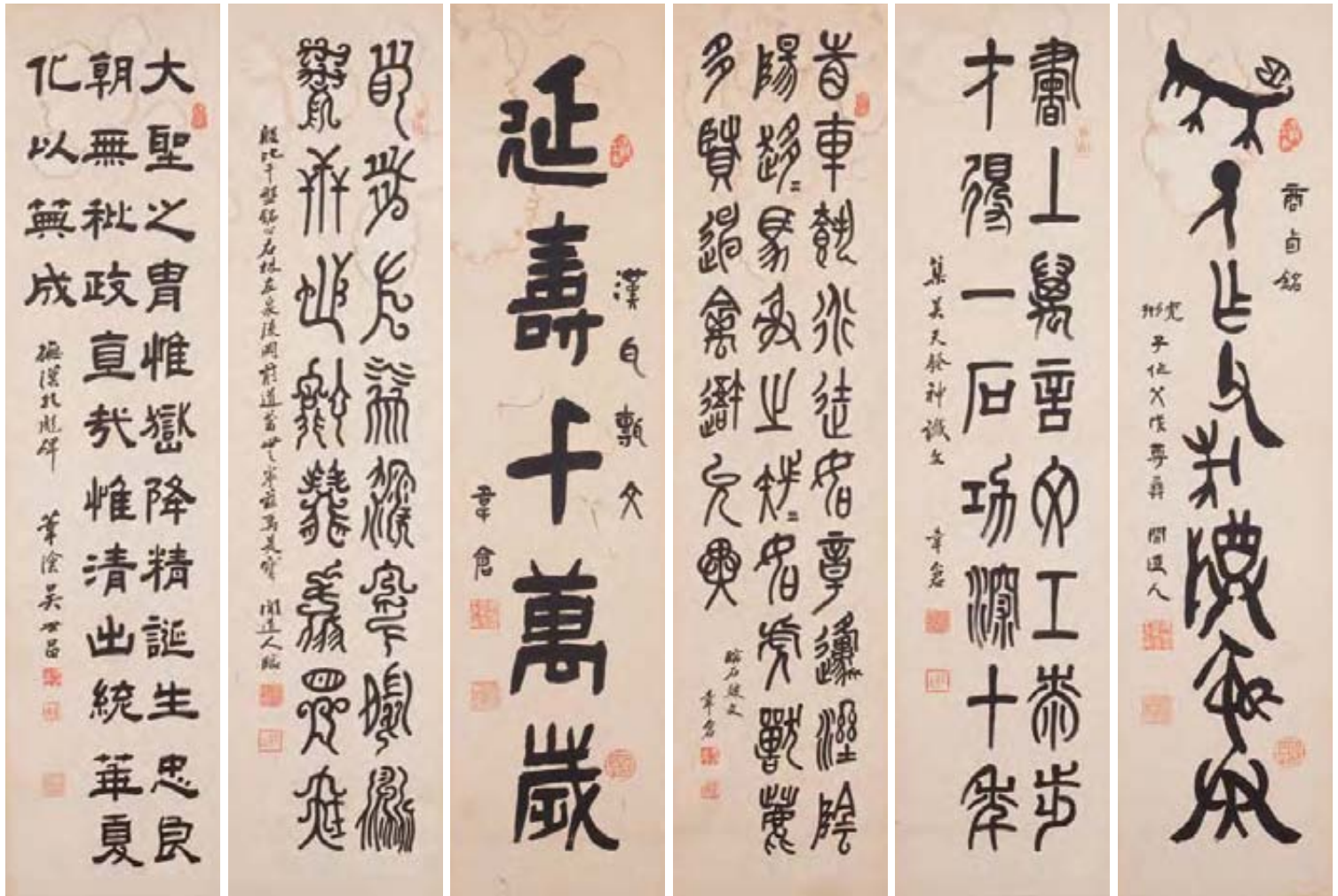
₩ 8,000,000~9,000,000





구룡산인 김용진(九龍山人 金容鎭)은 자는 성구(聖九)이며 호는 영운(穎雲)이다. 증조부 김병국은 영의정을 역임했고 모친은 대원군의 외손녀로 안동 김씨 명문가에서 태어나 한말(韓末) 20대 초에 수원 군수를 지냈으나 40대까지 거문고를 타며 유유자적하다가, 1919년 경 그림에 입문해 여러 저명한 서화가들과 교류하면서 서화를 수집하며 행서와 예서를 즐겨 쓰며 사군자와 화훼 등 서화로 평생을 자오(自娛)했다. 1949년부터 국전(國展) 서예부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서화가협회 고문을 맡는 등 서예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1964년 한국일보사 주최로 개인전을 열었다. 자신의 그림을 판 적이 전혀 없으며, 문인화풍이나 원색도 즐겨 사용해 그렸고 글씨와 어우러져 독특한 미감과 더불어 매우 강렬한 느낌을 준다.

청대 상해파(上海派) 오창석(吳昌碩, 1844-1927)의 영향이 감지되나 보다 너른 여백에 나름의 정형을 이루고 있다. 절지로 표현한 중국에선 옥란(玉蘭)이라 불리는 목련(木蓮)·바위를 배경으로 향지조(香之祖)인 청색으로 그린 난초·국색(國色)이며 부귀화(富貴花)인 붉은 모란·선도(仙桃)·비파·황국(黃菊)·석류·홍매(紅梅) 등을 채색으로 그렸다. 매화를 제외하곤 대체로 꽃 피는 순서를 따른 듯 계절 감각이 선명하다. 매 폭 그림에 걸 맞는 제시(題詩)가 화면의 구성 요소로 적당한 위치에 나타내 그림의 격조와 운치 그리고 문기(文氣)를 더한다. 매 폭에 쓰여진 ‘영운팔십이수(穎雲八十二叟)’, ‘구룡산인팔십이병수(九龍山人八十二病叟)’ 등으로 보아 제작 연도가 82세 때인 1959년임을 알 수 있다.



132 위창 오세창-묵서 6폭병풍  
 葦滄 吳世昌-墨書 六幅屏風

종이에 먹  
 각 127.5×30.5cm  
 1864~1953년

₩ 5,000,000~6,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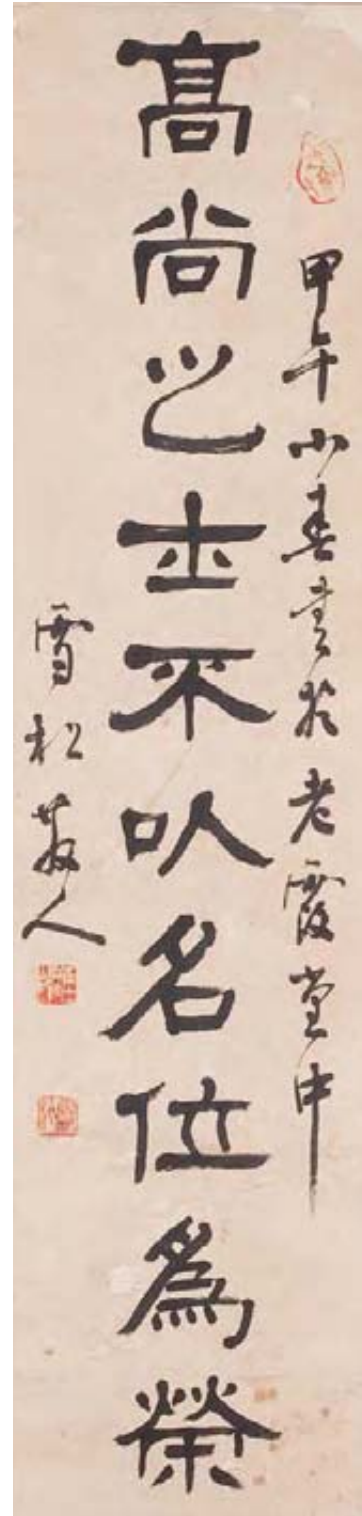
**133** 미산 허형-산수도 대련  
米山 許濬-山水圖 對聯

종이에 수묵담채  
각 96,5×31cm  
1862~1938년

₩ 2,000,000~3,000,000

미산 허형(米山 許濬)은 소치 허련의 아들 중 일찍 죽은 형의 호를 물려받았다. 화풍에서 독자성보다는 부친에 방불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이거나, 20세기 호남화단의 기둥인 광주 무등산(無等山) 춘설헌(春雪軒)의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1891~1977)과 목포에서 활동한 남농(南農) 허견(許健, 1907~1987)을 배출한 점에서 회화사적 의의와 역할이 부각된다.

두 폭 가리개로 꾸며진 이 그림은 관서가 없으면 부친의 그림으로 간주될 만큼 이 두 그림은 정형(定型)을 이룬 부친의 그림과 흡사(酷似)하여 나름의 개성을 찾긴 힘들다 하겠다. 각기 상단에 7언시가 있는 춘경과 하경 산수로 두 폭만이 아닌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계열일 가능성도 크다.



**134** 설송 최규상-묵서  
雪松 崔圭祥-墨書

종이에 먹  
107×25.5cm  
1891~1956년

₩ 500,000~600,000

## 135

### 추사 김정희-묵서

秋史 金正喜-墨書

종이에 먹  
133.5×30cm  
1786~1856

₩ 30,000,000~40,000,000

"근일에 과장(科場)에서 부의 제목을 내었는데, 해동청(海東靑 매 〈鷹〉)이라 한 것이 있었다. 《운부군옥(韻府群玉)》의 주(註)에 보면 옛 사람의 시구(詩句) 중에

아름다운 글귀는 천하의 이백보다 묘하고 / 麗句妙於天下白  
높은 재주는 뛰어난이 해동청과 같도다 / 高才駿似海東靑

한 것이 있는데..."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필원잡기(筆苑雜記) 1권 중에 보면 위 글귀가 나온다. 추사 역시 위 시구 중 한 부분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는 자는 원춘(元春)이고, 호는 추사(秋史)·완당(阮堂)·시암(詩庵)·과파(果坡) 등 무수히 많다. 충청남도 예산에서 1786년 출생하였다. 1809년(순조 9) 생원이 되고, 1819년(순조 19) 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충청우도암행어사·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24세 때 연경(燕京)에 가서 당대의 거유(巨儒) 완원(阮元)·옹방강(翁方綱)·조강(曹江) 등과 교유, 경학(經學)·금석학(金石學)·서화(書畫)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1840년(헌종 6) 윤상도(尹尙度)의 옥사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1848년 풀려나왔고, 1851년(철종 2) 헌종의 묘천(廟遷) 문제로 다시 북청으로 귀양을 갔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학문에서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주장하였고, 서예에서는 독특한 추사체(秋史體)를 대성시켰으며, 특히 예서·행서에 새 경지를 이룩하였다. 그는 함흥 황초령(黃草嶺)에 있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巡狩碑)를 고석(考釋)하고, 1816년에는 북한산 비봉에 있는 석비가 조선 건국시 무학대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진흥왕 순수비이며, '진흥'이란 칭호도 왕의 생전에 사용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실사구시설》을 저술하여 근거 없는 지식이나 선입견으로 학문을 하여서는 안 됨을 주장하였으며, 종교에 대한 관심도 많아 베이징[北京]으로부터의 귀국길에는 불경 40여권과 불상 등을 가져와서 마곡사(麻谷寺)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70세에는 과천 관악산 기슭에 있는 선고묘(先考墓) 옆에 가옥을 지어 수도에 힘쓰고 이듬해에 광주(廣州) 봉은사(奉恩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다음 귀가하여 세상을 떠났다. 문집에 《완당집(阮堂集)》 저서에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 《완당척도(阮堂尺牘)》 등이 있고, 작품에 《묵죽도(墨竹圖)》 《묵란도(墨蘭圖)》 등이 있다.



麗句妙於天下白

阮堂



麗句妙於天下白

아름다운 시구는 천하의 이태백보다도 묘하구나.



136 설송 최규상-묵서 대련  
雪松 崔圭祥-墨書 對聯

종이에 먹  
각 129×32.5cm  
1891~1956년

₩ 500,000~600,000

설송 최규상(雪松 崔圭祥)은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초명은 (규하) 자는 (백심) 호는 (설송) 본관은 전주이며 전주 최씨의 시조 문성공(文成公)의 22세손으로 고종28년 최보열(崔輔烈)과 광주 최씨 장남으로 태어났다. 일찍 석정 이정직(1841~1910)문하에서 공부하였으나 선생이 타계하자 성재 김태석(惺齋 金台錫, 1875~1953)에게 전서를 사사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운해 민택기(雲海 閔宅基)와 교유 하면서 전각을 익혔다고 한다. 특히 설송은 전북의 서화가 모임인 '전주한묵회'를 창설하여 후학을 양성 하고 1946년 3월에 발족한 전국적인 서예단체인 '대동한묵회' 발족에 참여 하여 한때 전북 서단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 하기도 하였다.

1954년 학술원의 추천 회원이 되었고,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예사로 입선 하였으며 지방을 순회 하며 개인전을 할 정도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였다. 이때 당대의 대가들과 교유하며 예업을 다졌다. 글씨는 각 서체에 두루 능하였으나 구양순과 안진경의 필체를 체득하였다

특히 전각에 뛰어나 위창 오세창 이후 전각의 일인자로 일컬어질 정도로 명성이 드높았다.

飛本不曉書聞自蒼頡云日月為畫象鳥自成文象形原已久物繁字  
 鷄辨解事秦李斯創止是篆小篆亦未易隸楷卽行出此卽種後難  
 人藪篆筆益麗藝琴苦愛篆又夢經是審多心篆有吳俊卿原本未可  
 欽代以無辨臨銀鈞而鐵索出藍青更淡持此要我贊草是兩句答和經  
 己無一看書應無甲

曹琴谷仁兄法家兩正

丙寅冬日雪朝書齋李道榮



飛本心經之篆書者尚矣古有宋孫東坡之李不篆心經者清嘉慶中完山人鄧石如者為其門人程新書之者  
 流上吳昌碩值柳一嘗臨之其版三曾見完白翁篆心經用筆剛柔並施處實並列收骨久之其秀繼乃筆去成之今  
 李不篆攝其法昌碩之筆尤覺秀潤可意性酷者篆意皆出法是年然智之疎抱左旋之漸故公之贊者云  
 善哉李不篆字其末無篆亦無隸心忘其手之忘筆之自茲紙非我使破借此以磁世翰不也此後為琴者皆星  
 實自後府推屏之作字既呈珍又本法有應有補於賢高梓之今日之心也 丙寅試代篆筆陰居士識

137

위창 오세창/관재 이도영  
 -묵서 가리개  
 葦滄 吳世昌/貫齋 李道榮  
 -墨書 二幅屏風

종이에 먹(左: 오세창/右:이도영)  
 1926년 작  
 각 131.5×29cm  
 오세창: 1864~1953년  
 이도영: 1884~1933년

₩ 3,000,000~4,000,000





138 성재 김태석-묵서대련  
惺齋 金台錫-墨書對聯

종이에 먹  
137×28.5cm  
1875-1953년

₩ 500,000~600,000

"도덕이 이미 높으시니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소한 데 있고 손익의 야러가지 정의(定義)는 겸양을 대시할 것이 없습니다. 학우(學愚) 문우(文友)가 바로잡아 주소서"

성재 김태석(惺齋 金台錫)은 조선말, 근대의 서예가로 전서, 예서, 전각에 뛰어났으며 해서는 안진경체를 따랐다.



139 해강 김규진-모란도  
海岡 金圭鎮-牡丹圖

종이에 수묵, 1929년 작  
122.5×39cm  
1868-1933년

₩ 1,000,000~1,200,000

"향은 소란보다도 좋고, 붉은 빛깔은 하성에서 초고라는 것보다 낮도다. 영공의 집 사람들이 흠어진 다음에, 그대는 꼭 보고 가시오. 강남에 가게 되면 이 꽃이 없으니.... 석천 인형의 어른신께서 바로잡아 주소서"

기사년 정월 초하루에 62세 늙은이 김해강(金海岡)







#### 140 심향 박승무-노안도

深香 朴勝武-蘆雁圖

종이에 수묵담채, 1972년 작  
32.5×64cm  
1893~1980년

₩ 1,000,000~2,000,000

심향 박승무(深香 朴勝武)는 ‘설경(雪景)의 화가’, ‘청렴하고 완고한 한 사람 풍류화가(風流畫家)’,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전통미술의 위상을 지켜온 작가’, ‘적극적 허무와 회의의 미술가’, ‘묵묵히 자신의 길만을 걸어갔던 외국의 화가’ 등으로 지칭된다. 그의 그림 세계는 ‘소탈한 문기’와 ‘단순 속의 다양’, ‘전통산수의 맥’, ‘고아한 미의식과 허무의 미학’ 등으로 인식된다.

심향은 충북 옥천 시인 정지용(鄭芝溶, 1902~1950)과 가까운 마을에서 태어났다. 승정원 부승지를 역임한 큰아버지 박경양(朴慶陽)의 양자로 입적되어 서울 효자동이 고향인 양 잘못 알려졌다. 유복한 소년기를 보냈고 신식교육을 접했다. 벗 김창환을 따라 그림을 시작, 21세인 1913년 서화미술회 강습소 화과(畵科)에 3기생으로 들어간다.

심향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철저하게 화업을 닦았으며 화력이 70년 가까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야인화가(野人畫家)로 불림은 긴 세월 중앙화단을 외면한 데서 기인한다. 붓을 쥐거나 놓지는 않았다. 이렇다 할 큰 목적의식 없이 삶의 질곡(桎梏)과는 별개로 그림 그리기를 지속 했다.

1940년 조선미술관에서 개최한 ‘십명가산수풍경화전(十名家山水風景畫展)’에, 1971년 서울신문사 주최 ‘동양화 여섯 분 전람회, 육대가전’에 포함되었다. 반백 나이에 10대 화가에, 70대 말엔 6대가 반열에 올랐다. 동아일보사에서 1976년 심향 회고전을 열었다. 1982년 타계 후 두 해 뒤 대규모 화집이 발간되었다. 1959년 그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설경(雪晴)>이 1986년 ‘현대한국화명품백선’에도 선정된다.

갈대와 기러기를 함께 그린 <노안>은 매우 오래된 그림 소재이다. 가로 긴 화면에 주변을 담청(淡靑)으로 바린 일부가 보이는 만월(滿月)과 세 마리 기러기, 그리고 갈대를 그린 흔들림 없는 선묘에 노필(老筆)의 담백함이 묻어나는 매우 간결한 그림이다. 노익장(老益壯)을 과시하듯 1972년, 화가 나이 80세에 그린 것이다.



**141 소정 변관식-기명절지도**  
小亭 卞寬植-器皿折枝圖

종이에 수묵담채  
40.5×125.5cm  
1899-1976년

₩ 15,000,000~16,000,000

오늘날 정물화에 가깝게 각종 고동기(古銅器)와 도자기(陶瓷器) 및 사랑방 기물인 문방사우(文房四友), 서화 권축(卷軸), 여의(如意) 등 진기한 옛 그릇에 길상적(吉祥的) 의미를 지닌 각종 화훼 · 과일 · 채소류를 소재로 한 그림은 기명도(器皿圖)나 기명화과도(器皿花果圖) 또는 청공도(淸供圖)라 칭한다. 이에서 연원이 있으나 투시기법과 명암법과 입체감에 화려한 채색으로 장식용 병풍으로 새롭게 독립된 장르로 정형(定型)을 이룬 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책거리[冊架圖]이다. 궁중의 장식병으로 시작해 수요의 확산으로 민화로도 이어져 강원도와 제주도 등 지역양식이 탄생한다.

기명도는 청 후기부터 독립된 화목으로 그려졌다. 우리나라에선 조선 후기 『십죽재서화보(十竹齋書畫譜)』 유입과 더불어 윤두서(尹斗緒, 1668-1715)와 강세황(姜世晃, 1713-1791) 등 문인화가를 비롯해 다수 화원들의 소품이 전해지나, 본격적인 발전은 조선말 장승업(張承業, 1843-1913)을 필두로 그를 따른 안중식(安中植)과 조석진(趙錫晉) 그리고 이도영(李道榮) · 이한복(李漢福) 등 근대화단으로 이어졌다.

변관식이 65세 때인 1963년 이른 가을 돈암사방(敦岩山房)에서 제작한 이 그림은 중앙에 태호석(太湖石) 괴석과 녹슨 청동향로를 중심으로 분에 담긴 백합(百合), 수선(水仙), 복사꽃 가지, 잎이성한 무, 구근(球根), 잉어와 붉은 도미를 비롯한 몇 종 어족(魚族)을 함께 그렸다. 수묵이 중심이되 담청과 담홍 설채로 풋풋한 청신감과 생동감 등 각 소재별 특징이 잘 살아난다.



**142** 의재 허백련-팔가천향, 일품당조 대련  
毅齋 許百鍊-八哥天香, 一品當朝 對聯

종이에 수묵담채  
각 91×34.5cm  
1891~1977년

₩ 2,500,000~3,000,000

팔가조는 까마귀의 일종으로 효를 의미해 민화(民畵)로도 즐겨 그려졌다. 계수나무에 앉은 한 쌍을 등장시켰다. 일품당조는 “지금 조정에서 일품까지 오르다.”는 의미다. 아울러 바닷가 붉은 태양, 넘실대는 파도, 백령(百齡)을 의미하는 소나무 아래 바위에 당당히 등장한 단정학(丹頂鶴)은 천수(千壽)를 기원함이다. 허백련은 이들 소재를 즐겨 그려 같은 제목의 학 및 동백에 팔가조를 그린 것 등 몇 점이 알려져 있다. 이 두 폭은 대련으로 함께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143 고암 이응로-석란도  
顧菴 李應魯-石蘭圖

종이에 수묵  
130×33cm  
1904~1989

₩ 1,500,000~2,000,000



144 남농 허건/현당 김한영-기명절지 합작도  
南農 許健/玄堂 金漢永-器皿折枝 合作圖

종이에 수묵담채  
40×30cm  
허건: 1908~1987, 김한영: 1913~1988

₩ 1,000,000~1,500,000





145 소정 변관식-산수도  
小亭 卞寬植-山水圖

종이에 수묵담채  
128×30.5cm  
1899~1976년

₩ 900,000



146

송은 이병직-석란도  
松隱 李秉直-石蘭圖

종이에 수묵담채  
140×31cm  
1896~1973년

₩ 500,000~600,000



**147 이당 김은호-남극수성도**  
以堂 金殷鎬-南極壽星圖

종이에 수묵채색, 1946년 10월 4일 작  
31.5×122cm  
1892~1979년

₩ 10,000,000~12,000,000

이당 김은호(以堂 金殷鎬)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흥학교에서 측량을 익혀 측량기사의 조수로 일하기도 했으며 이왕직에서 운영한 조선서화미술회 강습소를 거쳐 화가가 되었다. 뛰어난 인물 묘사 실력으로 순종어진 등 얼굴을 그리면서 점차 이름을 얻게 되었다. 변관식과 함께 동경 유학을 떠나 동경미술학교를 3년 수학하고 귀국해 1936년 후소회(後素會)를 창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 해방 후 친일 경력으로 한 때 소외되기도 했으며,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풍채 좋은 수노인 남극성(南極星)을 일반 선풍도골(仙風道骨) 노인으로 바꿔 노송과 바위, 사슴과 영지 등 장수를 기원하는 소재를 함께 담아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148 소남 이희수-고사도교, 폭포, 연지수금, 송학

小南 李喜秀-高士渡橋, 瀑布, 蓮池水禽, 松鶴

종이에 수묵담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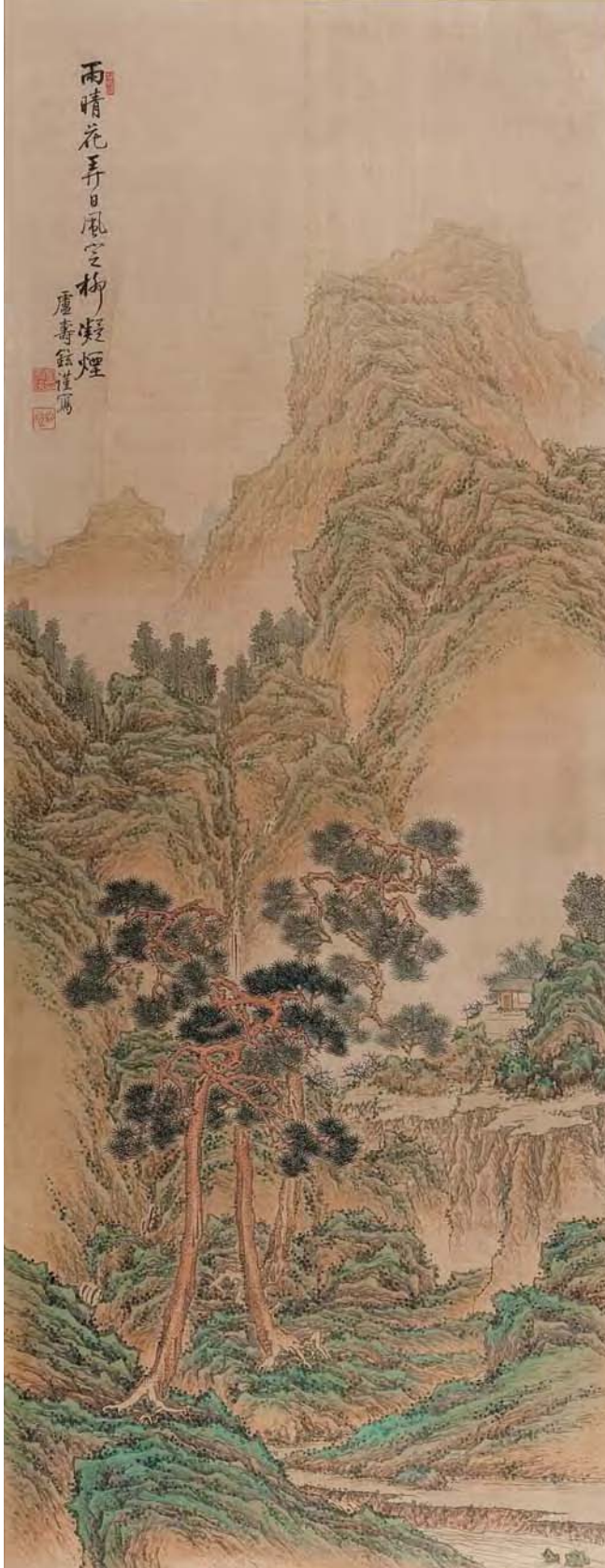
각 90×31cm, 107×31cm, 88.5×31cm, 118×31cm

1836~1909년

₩ 7,000,000~8,000,000

산수와 영모 두 장르에 각기 2점씩 이번엔 새로 공개되는 4점은 그림의 크기나 필치로 볼 때 함께 일괄로 제작된 것은 아니다. 나귀 타고 다리를 건너는 <고사도교>는 산수나 산수인물화에 즐겨 그려진 전통적인 주제이다. 수묵이 주가 되었으나 수지법이나 산세 처리 준법이나 형태의 변형과 활달하고 분방한 묘사기법, 근경의 담청 물색과 원산 등에 보이는 열게 가한 붉은 색조 등 여러 면에서 전통에서 꽤나 떨어진 새로운 시도를 보인다. 이 점은 수묵만으로 그린 <폭포>도 마찬가지로 화면 상단을 점한 다소 부산한 듯한 제시 서체는 마치 부서지고 튀는 물방울인 양 제멋대로이나 이를 상쇄시키는 듯 완만한 타원 곡선을 이루며 떨어지는 굵은 폭포 물줄기와 각진 바위와 물보라 등 여백과 물상이 빛는 흑백대조, 먹색 농담 변화가 빛은 표현주의적 신선감으로 다가온다.

<연지수금>은 연꽃에 날아드는 비취조(翡翠鳥)라 지칭되기도 하는 청호반새나, 연잎 아래 좋은 금슬(琴瑟)을 보여주듯 쌍을 이뤄 유영하는 원앙이나 물오리뿐 아니라 시든 연꽃 아래 물고기를 낚는 부리에 문 해오라기를 등장시키는 등 한자문화권에서 일찍부터 그려진 주제이다. 조선 초를 시작으로 중기 화단에 수묵위주의 사계영모화(四季翎毛畫)에서 일반화된 양상으로 문인들도 즐겨 그렸으며 직업화가 및 민화에서도 빈번히 그려졌다. 이와 달리 화사한 연꽃 분위기와는 달리 꺾인 연잎 줄기에서 큰 새우를 문 청호반새를 등장시켰다. <송학> 또한 뿌리가 드러난 잎이 성근 장송(長松)을 화면 우측에 치우쳐 큰 비중으로 나타냈고 가는 솔가지에 날개짓하는 불안한 자세의 학을 등장시켜 <연지수금>과 같은 분위기이다. 산수와 달리 영모에는 관서는 물론 제시가 없어 이희수 작품으로 단정하긴 힘들으나 여타의 유작들과 비교할 때 표현 기법 등 화풍에서 친연성이 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그림은 강원도 민화의 계보(系譜)에서도 이희수가 선두를 점함을 알 수 있다.



149 심산 노수현-청록산수도  
心汕 盧壽鉉-靑綠山水圖

종이에 수묵담채  
119×46cm  
1899~1978년

₩ 15,000,000~20,000,000

전통적인 관념산수(觀念山水)의 심산유곡(深山幽谷)을 새로운 감각과 기법의 풍경으로 변모시킨 노수현은 황해도 곡산에서 태어나 조실부모(早失父母)하고 독립운동가인 조부 노헌용(盧憲容, 1866-?) 아래서 성장했다. 1914년 민영으로 운영된 최초의 화가양성소인 서화미술회 강습소 화과(畫科)에서 안중식과 조석진에게 그림을 배웠고 1918년 졸업 후 안중식의 경묵당에서 계속 공부했다.

1920년 이상범과 함께 창덕궁 대조전 벽화제작에 참여, 1921년 동아일보사에 들어가 삽화와 만화를 담당했다. 1921년부터 시작된 서화협회 전람회에 매년 참여했고 조선미술전람회에도 1922년 1회부터 11회까지 출품했다. 1922년 근대적 회화로의 모색으로 이상범·변관식·이용우 등과 함께 동연사(同研社)를 만들었고, 1924년 이상범과 함께 2인전을 열었다. 1940년 '10대가전(十大家展)'에 출품했고, 심산화숙을 세워 1948년까지 제자를 길러냈다. 해방후 조선미술건설본부 동양화 부위원장을 지냈고, 1948년부터 1961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49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부터 1960년 9회까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961년 국전의 기구개편으로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1971년 김은호·박승무·이상범·변관식·허백련과 함께 서울신문사 주최 '6대가전(大家展)'에 참여했다. 실재하는 산수를 합리적인 원근법에 바탕하여 묘사하는 근대적 조형관을 보임으로써 근대 동양화단에 실경산수의 전통을 확립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산수형태를 이상화해 웅장한 산세의 형태미를 추구, 만년엔 산과 바위의 윤곽선에 황갈색 태점(苔點)을 사용해 점묘로 장식성을 높였다.

이 <청록산수>는 근경의 세 그루 장송(長松), 중경의 폭포(瀑布)와 집, 첩첩으로 이어진 산세인 원경 등 화면 내 간기는 없으나 비교적 시대성이 선명한 그림이다. 김영에서 안중식과 조석진을 통해 이어진 청대 전통산수의 영향이 짙은 노수현의 초기 그림이다.





**150** 묵노 이용우-어해도  
墨鷺 李用雨-魚蟹圖

종이에 수묵담채  
118×43cm  
1904~1952년

₩ 500,000~700,000



**151** 소호 김응원 - 묵란도  
小湖 金應元-墨蘭圖

종이에 수묵  
108×32cm  
1855~1921년

₩ 1,000,000~1,200,000

\*어해도-수초(水草) 사이 유명한 잉어와 또 다른 물고기 두 마리를 비롯해 바위에 전복과 조개, 새우 등 민물과 바다에 있을 어족(魚族)을 함께 나타냈다. 전통적인 소재이나 묘사에 있어서는 사실보다는 이와 구별되는 표현주의적 경향이 감지된다. 흔치 않은 이용우의 어해도로, 이 한 폭만이 여러 점으로 된 병풍에서 떨어진 한 폭으로 사료된다.



## 152 심전 안중식-무릉도원

心田 安中植-武陵桃源

종이에 수묵담채, 1919년 작

140.5×39.5cm

1861~1919년

₩ 8,000,000~10,000,000

심전 안중식(心田 安中植)은 생애와 작품으로 보아 두 시대(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이어주는 다리에 서서 흔적을 남긴 화가라 하겠다. 그러니까 조선말기의 전통회화를 근대화단으로 계승시키는 역할을 했던 명화가였다.

안중식은 조석진(1853-1920)과 함께 생애를 마칠 때까지 함께 공부하러 가기도 했고(1881년에 중국으로 1년간), 고종황제의 어진도 그렸으며(1902년), 서화미술원을 설립(1911년)하고 제자들(김은호, 노수현, 이상범 등)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물론 글씨와 그림도 비슷하게 쓰고 그렸다. 그래서 근대화단에 끼친 소림과 심전의 영향은 컸다.

심전과 소림은 1919년에 민족서화가들을 중심으로 서화협회(書畫協會)를 결성하여 중심인물로 활동하였고, 그 해와 그 다음해 연이어 세상을 떠나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심전은 못 그리는 그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그림(산수화, 화조화, 기명절지화, 인물화 등)을 두루 다 잘 그렸다.

심전의 대표작으로는 백악춘효도(白岳春曉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성재수간도(聲在樹間圖, 간송미술관 소장), 도원문진도(桃源問津圖, 호암미술관 소장) 등이 있다.

모두 12폭에 이르는 대작으로 6폭씩 병풍 두 틀로 꾸며졌다. 배경을 이루는 산수와 적당한 조화를 이루며 비중 있게 등장한 인물, 완속이나 활달함과는 구별되나 차분한 필선으로 전통적인 기법에 충실한 산세처리, 담채(淡彩)의 사용, 동자를 거느리거나 벗과 함께 한 또는 홀로 취한 유연(幽然)한 자연관조(自然觀照) 등 등장인물이 자세나 표정마저 읽을 수 있는 적확(的確)한 표현, 뚜렷한 주제와 서정성, 유려한 서체의 제사(題詞) 등 41세 장년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화가의 기량(技倆)을 잘 보여준다. 좋은 비단에 좋은 물감을 써서 세필로 정성스럽게 그린 명품이며 조금 전에 그린 그림인 양 현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153** 청전 이상범-설경산수도  
 靑田 李象範-雪景山水圖

종이에 수묵담채, 1965년 作  
 31×78.5cm  
 1897~1972년

₩ 25,000,000~30,000,000

靑田

우리나라 근대 한국화에 있어 독자적인 화풍으로 분명한 자기 세계를 구축한 청전은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9세 때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10세부터 한문을 배웠고, 1914년 18세 때 서화미술원에 입학해 본격적인 그림수업을 받았다. 조석진과 안중식·강필주·이도영·강진희에게 수업을 받았으며 특히 ‘청년 심전(心田)’이란 의미로 호를 지어준 안중식의 영향이 컸다.

1940년대 말에서 50년대에 걸쳐 나름의 정형을 이룩한 시기를 지나 완숙함을 드러낸 60대 후반의 동경산수이다. 가로로 긴 화면에 하늘은 담묵으로 입혔고 한두 채 집과 나목(裸木)들로 칠해진 다소 스산한 정경이나 약간의 담황색이 어느 정도 차가움을 녹인다.





## 154 소치 허련-산수도

小癡 許鍊-山水圖

종이에 수묵담채  
26×31.5cm  
1808~1893년

₩ 8,000,000~10,000,000

"學古人 不知變便 是籬堵間物 去之轉遠 乃繇絕似耳"

"옛것을 배우는 사람은 변화시키거나 평할 대로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는 울타리나 담장 같은 것이니, 떠나면 곧 멀어져서 길이 끊어진 것과 같을 뿐입니다."

-노치(老癡)

비록 한 폭만 액자로 꾸몄으나 그림과 제시가 동가로 접하며, 소품임에도 '노치(老癡)' 관서에 맞는 화면 내에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그림이다. 제시의 절묘한 조화와 화면에 있는 네 도장까지 그림에 구성요소로 통일성을 부여해, 감칠 맛 나는 일품이라 하겠다.

소치 허련(小癡 許鍊)은 김정희가 원말사대가(元末四大家)의 수장인 대치(大癡) 황공망(黃公望, 1269-1354)을 염두에 두고 지어준 호이다. 허련은 호와 당호(堂號) 운림산방이 시사하듯 운림산인(雲林散人) 예찬(倪瓚, 1301-1374)과 더불어 대치를 평생 스승으로 섬겼다. 그는 추사를 계승, 남종문인화에 전념해 추사에 방불한 서체나 유사한 화풍뿐 아니라, 실제 추사 앞에서 그림을 그려 촌평(寸評)을 얻은 8명의 화가 가운데 하나이다.

28세 때 해남 윤두서(尹斗緒, 1668-1715)의 고택 녹우당에 보관된 명화뿐 아니라 그곳에 간직된 『고씨화보(顧氏畫譜)』 등을 통해 중국그림의 이해 및 남종문인화의 요체를 파악했다. 초의(艸衣, 1786-1869)의 소개로 추사에게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익혔다. 권돈인(權敦仁, 1783-1859) · 신현(申櫨, 1810-1888) · 이하응 등과 인연으로 중국역대명화를 두루 열람하여 안목을 키웠다. 41세 때에는 헌종(憲宗) 앞에서 그림을 그렸으며 이 때 그린 화첩이 전해진다. 50세에는 진도로 낙향하여 운림산방을 세워 그림에 전념하게 된다. 그의 자와 호는 그림의 소종래와 그가 평생을 추구한 지향처를 짐작케 한다.

허련은 꾸준한 작품 활동에서도 타의 귀감이 되니, 화력 60년 동안 산수·산수인물·초상·사군자·묵모란·파초·연꽃·소나무·화훼(花卉)·괴석(怪石) 등 전통회화의 모든 화목에 두루 뛰어났다. 화풍상의 특징은 짙은 먹[濃墨] 위주에 마른 붓(乾筆)이 구사된 거친 필치, 다소 성근 화면구성, 옅은 황색과 청색의 가채 등이다. 소치에 대한 회화사적 의의와 평가는 남종화풍의 토착화(土着化)와 이를 통한 호남화단의 형성을 들 수 있다.





155

소치 허련-산수도 대련  
小癡 許鍊-山水圖 對聯

종이에 수묵담채, 1873년 작  
각 79.5×28cm  
1808~18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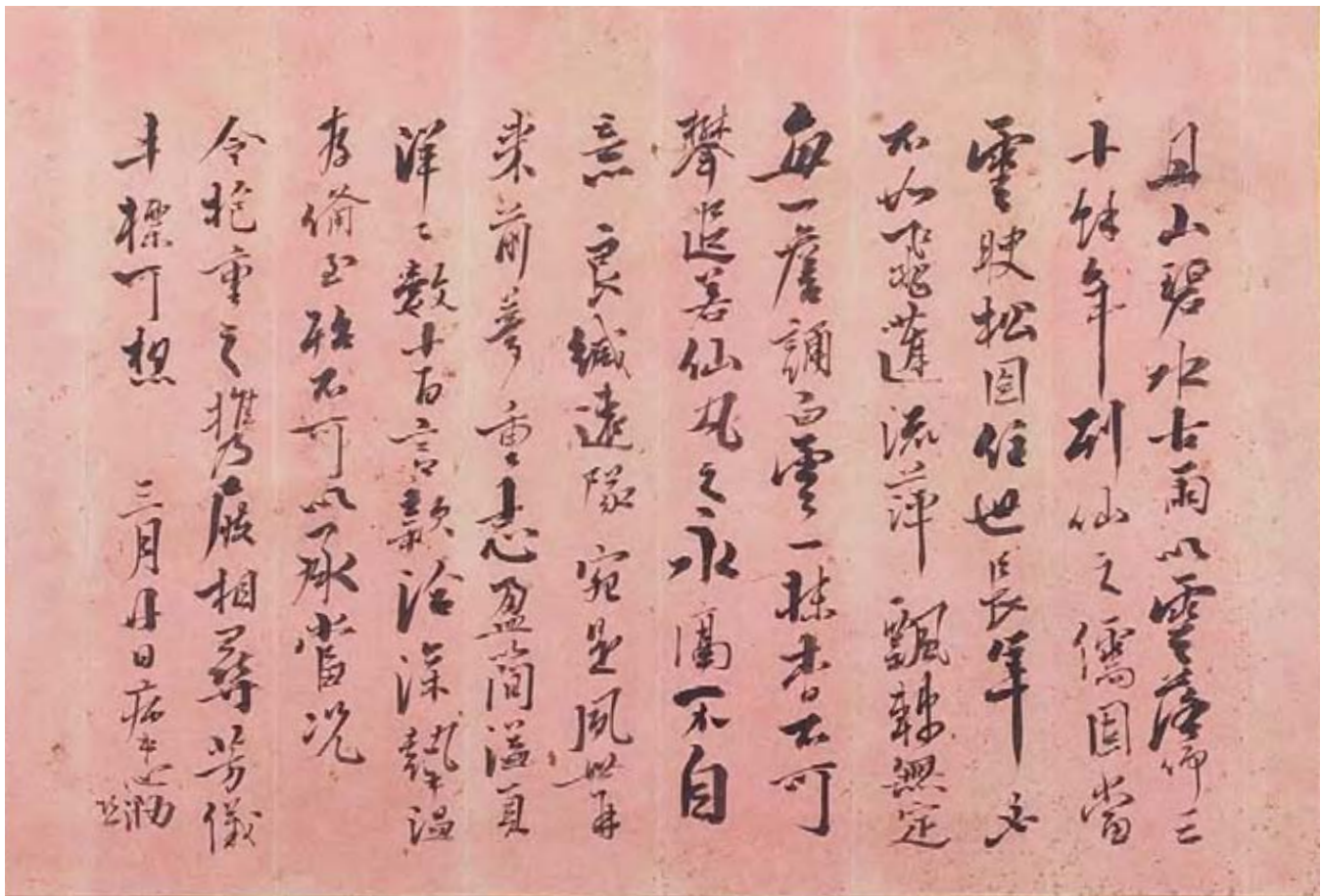
₩ 2,000,000~3,000,000

"孤亭落日無人來 臨崖只聞鳥聲亂 政是富春江上宿 落梅花裏過巖州 癸酉早春 小癡老人"

"외로운 정자에 해 지니 오는 이 없고, 절벽에는 다만 새소리가 요란하네. 정년 이는 절강성 부춘강(富春江)에서 자는 것이니 매화 꽃 떨어지는 가운데 암주(巖州)를 지나가네"

계유년 이른 봄 小癡노인(小癡老人)

마치 대련처럼 보이는 이 두 그림은 화면 내 간기에 의해 1873년 이른 봄 '소치노인(小癡老人)'이란 관서가 말해주듯 자신감 넘치는 활달한 필치에 담황(淡黃)과 담청(淡靑)이 적절한 가채, 조화로운 화면 구성, 시적 정취, 제시의 유려한 서체 등 완숙기로 접어든 66세 때에 그렸다. 이 해는 일본에서 미술(美術)이란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이 그림 또한 두 폭이 어느 정도는 대칭구도를 이루나 쌍폭 대련보다는 병풍에서 산략된 편폭들로 보인다.



"丹山碧水間 雨以雲落 仰三十餘年 列仙之儒 固當雲腴松固 住世長年 必不如飛蓬流萍 飄轉無定 每一詹誦 白雲一抹 杳不可攀 迢若仙凡之永隔 不自意良緘遠隊 宛是夙世再來前夢 重志盈簡溢頁 洋洋數十百言 款洽深摯 溫存備至 殆不可以承當 況令抱重之 携履相尋 芳儀丰標可想"

三月廿日 病弟心泐

"붉은 산 푸른 물 사이, 비도 오고 구름도 나리는데, 30여년을 우러러보며, 신선(神仙)의 반열(班列)에 계신 선비께서는 진실로 마땅히 구름처럼 살피고 소나무처럼 단단하여 여러해 세상에 머무시며 반드시 날아다니는 쭉대나 흘러 다니는 부평초처럼 정처 없이 표전(飄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며, 늘 줄곧 말은 되풀이하여 왔으나, 일말(一抹)의 흰 구름처럼 아득하여 기어오를 수 없으니 멀기가 마치 신선(神仙)과 범인(凡人)처럼 영영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뜻하지 못하였는데 반가운 편지가 멀리서 와 떨어지니, 이는 완연하게 옛날 세상에서 앞서의 꿈이 다시 온 것이라, 무게 있는 말씀이 간찰(簡札) 종이에 꼭 차고 넘치는 것이 양양하게 수십(數十) 수백(數百) 마디가 되는데 다정하여 마음에 흡족(洽足)하고 깊이 있고 진지(眞摯)하며 따뜻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갖추어 지극하시니, 거의 승당(承當)할 수 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영손(令孫)께서 두 번이나 나막신을 들고 찾아주셨는데, 꽃다운 의표(儀表)로 아름다운 지표(指標)를 알만 하였습니다."

3월 20일 병든 아우가 마음으로 올립니다.

## 156 추사 김정희-간찰

秋史 金正喜-簡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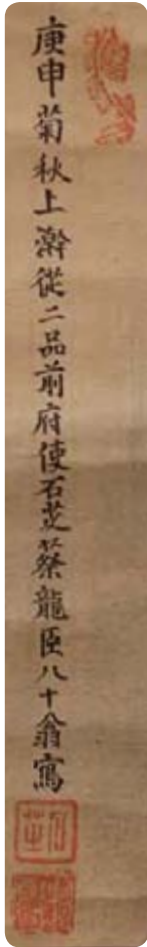
종이에 먹  
36.5×53.5cm  
1786~1856년

₩ 8,000,000~9,000,000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는 자는 원춘(元春)이고, 호는 추사(秋史)·완당(阮堂)·시암(詩庵)·과파(果坡) 등 무수히 많다. 충청남도 예산에서 1786년 출생하였다. 1809년(순조 9) 생원이 되고, 1819년(순조 19) 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충청우도암행어사·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24세 때 연경(燕京)에 가서 당대의 거유(巨儒) 완원(阮元)·옹방강(翁方綱)·조강(曹江) 등과 교유, 경학(經學)·금석학(金石學)·서화(書畫)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1840년(현종 6) 윤상도(尹尙度)의 옥사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1848년 풀려나왔고, 1851년(철종 2) 현종의 묘천(廟遷) 문제로 다시 북청으로 귀양을 갔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학문에서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주장하였고, 서예에서는 독특한 추사체(秋史體)를 대성시켰으며, 특히 예서·행서에 새 경지를 이룩하였다. 그는 함흥 황초령(黃草嶺)에 있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巡狩碑)를 고석(考釋)하고, 1816년에는 북한산 비봉에 있는 석비가 조선 건국시 무학대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진흥왕 순수비이며, '진흥'이란 칭호도 왕의 생전에 사용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실사구시설》을 저술하여 근거 없는 지식이나 선입견으로 학문을 하여서는 안 됨을 주장하였으며, 종교에 대한 관심도 많아 베이징[北京]으로부터의 귀국길에는 불경 400여권과 불상 등을 가져와서 마곡사(麻谷寺)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70세에는 과천 관악산 기슭에 있는 선고묘(先考墓) 옆에 가옥을 지어 수도에 힘쓰고 이듬해에 광주(廣州) 봉은사(奉恩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다음 귀가하여 세상을 떴다. 문집에 《완당집(阮堂集)》 저서에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 《완당척독(阮堂尺牘)》 등이 있고, 작품에 《묵죽도(墨竹圖)》 《묵란도(墨蘭圖)》 등이 있다.





157

석지 채용신-초상화  
石芝 蔡龍臣-肖像畫

비단에 채색, 1920년 작  
88.5×54.5cm  
1850~1941년

₩ 20,000,000~30,000,000

이 작품은 정자관에 옥색 도포를 두른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전신초상이다. 화면 속 주인공은 화문석 위에 앉아 소매 밖으로 양손을 꺼내 놓고, 버선발을 드러낸 채 가부좌를 틀고 있다. 오른손에는 대나무로 만든 고급 합죽선을, 왼손에는 대모로 만든 안경을 쥐었다. 가슴 한가운데에 둥글게 매 리드미컬하게 흘러내리는 세조대(細條帶)를 두르고 있는데, 세조대는 신분에 따라 색깔을 달리 매는 것으로 당상관은 붉은색, 당하관은 녹색을 사용했다. 초상 속 인물은 녹색의 세조대를 두른 것으로 보아 하급관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얼굴은 대체로 짙은 갈색톤의 무수한 붓질을 반복적으로 가함으로써 안면의 입체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콧등과 눈꺼풀, 눈썹 근처의 둔덕부분에는 하이라이트를 주어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이는 채용신의 전형적인 얼굴 형용법이다. 인물 뒤편에 음영을 주어 공간감을 표현했고, 상하단에 파란 띠를 두른 화문석은 앞 뒤 '亞' 자형 문양의 크기로만 원근을 표현하여 1920년대 이전 석지초상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화면 좌측 중단에는 "경신년 9월 상순에 종이품 전 부사 80세 늙은이 석지 채용신이 그리다(庚申 菊秋 上澣 從二品 前府使 石芝 蔡龍臣 八十翁 寫)"라는 목서가 있다. 경신년은 1920년으로 채용신이 71세 되던 해이나 70세가 넘은 노인을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八十翁)을 빌린 것으로 여겨진다. 목서 옆에는 파초잎 모양의 도장이, 아래에는 주문방인(朱文方印)의 '석지(石芝)', '채용신인(蔡龍臣印)'이 찍혀 있다.

이 작품은 표제(標題)를 남기고 있지 않아 초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제작년대를 밝히고 있고, 전형적인 채용신 초상화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제작당시의 표장(表裝)이 훼손없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주목된다. 그가 제작한 다른 초상화들처럼 조선조 일반적인 초상화보다 크기가 작고 화본의 비율이 크다. 또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응하기 위해 족자를 미리 제작해 놓았던 채용신 초상화 족자의 정형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독특한 푸른색의 회장비단을 사용했고, 변아를 좌우와 위부분에만 두었으며 호분으로 장식을 그렸다. 축 양 끝을 붉게 장식하였고, 축 위 족자끈을 다는 곳에는 꽃문양의 금속 장식을 하였다. 변아부분에서 위부분만 화본과 동일한 비단이고 양 옆은 다른 비단을 덧댄 점은 특이한 형식이다. 또 좌우 변아 장식은 위부분 장식에 비해 다소 흐릿하여 얼핏 거의 보이지 않는다. 족자 축의 양끝 장식을 붉은 비단으로 덧대었다. 전체적인 만듬새는 정형적인 형식을 잘 갖추고 있으며 그 가치가 크다.





唐中尉秋上翁從二品前府佐丞吳龍臣八十歲寫





〈초상화 얼굴 부분〉





〈오른손 부분〉



〈왼손 부분〉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활동한 초상화가이다. 조선시대 전통 초상화법에 서양화법과 근대 사진술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회화양식을 개척하였다. 대대로 무관직을 역임한 명망있는 가문출신이었던 그는 자신도 무관으로 입신하여 종 2품 가선대부(嘉善大夫)의 반열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국권이 침탈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 전주로 내려가 전문직업 화가로 활동하였다. 1900년 고종의 어진도사(御眞圖寫)에 조석진(趙錫晉, 1853-1920)과 함께 어용(御容)을 담당하는 주관화사(主管畫師)로 참여하였고, 창덕궁 선원전(璿源殿)의 화재로 소실된 어진을 모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분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초상을 남겼으며, 만년에는 '채석강도화소(蔡石江圖畫所)'라는 일종의 공방을 차려놓고 광고를 내어 초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간재 전우(艮齋 田愚), 면암 최익현(勉庵 崔益鉉), 매천 황현(梅泉 黃玟) 등 우국지사의 초상을 그려주기도 하였다. 여든이 넘는 나이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여러 수작들을 남겼다.



**158 지홍 박봉수- 설경**  
智弘 朴奉洙-雪景

종이에 수묵담채  
33×45.5cm  
1916 ~ 1991년

₩ 500,000~1,000,000

지홍 박봉수(智弘 朴奉洙)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일본에 유학했으며, 19세 때 선전에서 입선했다. 동양적 사유와 서양의 추상적 사고를 초월한 회화세계를 열었다.



**159 무속도**  
巫俗圖

종이에 수묵채색  
77×53cm  
조선시대

₩ 1,000,000~2,000,000





160 위창 오세창-묵난도  
葦滄 吳世昌-墨蘭圖

종이에 수묵  
29.5×11cm  
1864~1953년

₩ 1,000,000



161 위창 오세창-와당도  
葦滄 吳世昌-瓦當圖

종이에 먹  
37.5×56cm  
1864~1953년

₩ 1,500,000~2,000,000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은 20세에 역관(譯官)이 되었다가, 1886년 박문국(博文局) 주사로서 《한성순보(漢城旬報)》 기자를 겸하였다. 1894년에 군국기무처 총재비서관이 되었고, 이어 농상공부 참서관과 통신원 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1897년 일본 문부성의 초청으로 동경 외국어학교에서 조선어교사로 1년간 체류하였으며, 1902년 개화당사건으로 일본에 망명하던 중에 손병희(孫秉熙)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1906년 귀국 후 《만세보》·《대한민보》 사장을 역임하였고, 3·1운동 때에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다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18년에 근대적 미술가 단체의 효시인 서화협회(書畫協會)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였으며, 이후 우리 서화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해방 후 서울신문사명예사장·민주의원·대한민국축성국민회장·전국애국단체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전쟁 중 피난지 대구에서 별세하여 사회장이 거행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復章)이 수여되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주로 은거생활을 하며 부친 오경석과 자신이 수집한 풍부한 문헌과 고서화를 토대로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을 편술하였다. 이 책은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한국서화가에 관한 기록을 총정리한 사전이다. 그밖에도 조선 초기부터 근대에 걸친 서화가·문인 학자들의 입장자료를 모아 《근역인수(槿域印藪)》를 집성하였으며, 수집한 소품 고서화들을 화첩으로 묶은 《근역서휘(槿域書彙)》·《근역화휘(槿域畫彙)》 등 한국서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남겼다. 글씨는 전서와 예서를 즐겨 썼는데, 특히 전서와 예서를 혼합한 글씨와 와당(瓦當)·고전(古錢)·감골문형태의 구성적인 작품도 시도하여 독특한 경지를 이루었으며, 고서화의 감식과 전각(篆刻)에 있어서도 당대의 일인자였다. 합천 해인사의 <자통홍제존자사명대사비(慈通弘濟尊者四溟大師碑)>의 두전(頭篆)을 비롯한 기념비 글씨도 전국 곳곳에 많이 남겼다.



**162 금추 이남호-화조도**  
錦秋 李南浩-花鳥圖

종이에 수묵담채  
68×46cm  
1908-2001년

₩ 500,000~600,000

금추 이남호(錦秋 李南浩)는 대구 출신으로 이당 김은호에게 그림을 배웠다. 1952년에는 박승무, 안동숙과 함께 전주에서 3인전을 가진바 있다. 1979년 세종문화회관에서 회고전을 가진 후 동아일보사 주최 초대전도 가졌고, 산수·화조·영모·사군자·인물·서예 등에 뛰어났다.



**163 현초 이유태-설경산수도**  
玄艸 李惟台-雪景山水圖

종이에 수묵담채  
34×45.5cm  
1916~1999년

₩ 500,000~600,000

현초 이유태(玄艸 李惟台)는 서울에서 태어나 1940년 일본제국미술학교에서 공부하고 김은호에게 배웠다. 1942·44년 조선미술전람회(현판)에서 입선하였다. 1942년부터 1977년까지 이화여대 미술과 교수로 있었다. 국민훈장동백장·예술원상을 수상하였다.

50세 전후 절정에 이른 화경은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산천과 울창한 나무들이었다. 차분히 정제된 풍경들을 실경이면서도 작가 자신이 창조한 자연의 정취를 화폭 속에 담아왔다. 백설(白雪)에 나목(裸木)들을 비교적 섬세한 선묘로 그린 고건축이 있는 풍광으로 마치 1960년대 카드나 연하장을 보는 듯 묘한 향취를 준다. 먹 위주의 맑고 담백한 화면과 약간의 담홍과 담청이 스며 있는 고요가 깃든 정경에서 조선시대 성리학이 추구한 담박(淡泊)한 미감의 여운이 감지된다.



**164 의도인 허백련-미풍가전**  
毅道人 許百鍊-味風家田

종이에 수묵담채  
30.5×42cm  
1891~1977년

₩ 1,500,000~2,000,000



**165 옥주산인 김옥진-산수도**  
沃州山人 金玉振-山水圖

종이에 수묵담채, 1976년 작  
41×33cm  
1927년~

₩ 500,000~600,000

옥주산인 김옥진(沃州山人 金玉振)은 20세 때 의재 허백련선생 문하에서 그림을 배웠으며, 산수와 해경, 어촌 정경, 수선화 등 화도를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그렸다.



**166** 금추 이남호-고사후행  
 錦秋 李南浩-高士後行

종이에 수묵담채  
 44×34.5cm  
 1908-2001년

₩ 500,000~600,000

조선초기의 문인화가 강희안(姜希顔)이 그린 <고사도교도(高士鏡橋圖)>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참고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다. 복건(幅巾)과 도복(道服) 차림으로 다리를 건너는 선비의 뒤를 따라 동자가 책과 문방구류를 메고 주춤거리며 따르고 있다. 이러한 동자의 모습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167** 벽천 나상목-춘산연애  
 碧川 羅相沐-春山煙靄

종이에 수묵담채, 1974년 作  
 63.5×32.5cm  
 1924-1999년

₩ 1,000,000~1,500,000





**168 백포 곽남배-정우장락**  
白浦 郭楠培-靜友長樂

종이에 수묵담채, 1979년 작  
41×63cm  
1929~2004년

₩ 500,000~600,000

백포 곽남배(白浦 郭楠培)는 진도에서 태어나 조선대를 졸업했으며, 국전에서 10회의 입선과 5회의 특선을 차지했다. 국전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를 지냈으며, 전남대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였다.



**169 백포 곽남배-한거장락**  
白浦 郭楠培-閑居長樂

종이에 수묵담채, 1979년 작  
67.5×68cm  
1929~2004년

₩ 500,000~6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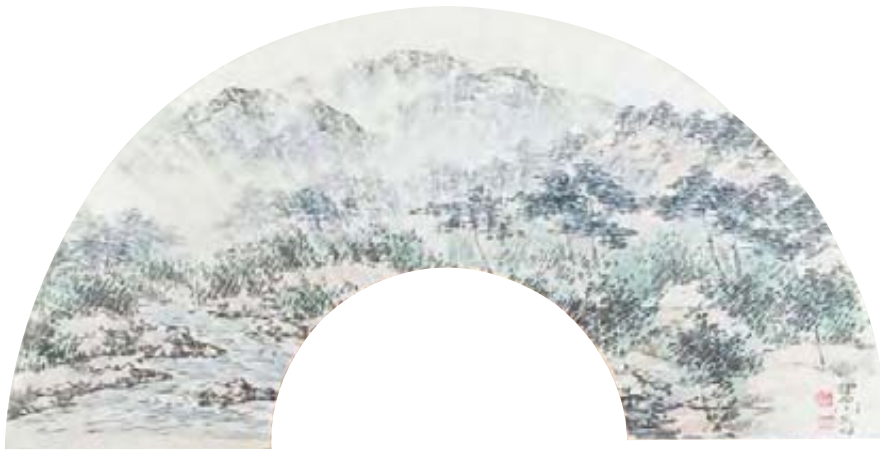


국화를 남달리 사랑한 자연 시인 도잠(陶潛, 365-422)의 고사에 연원을 두었으니 작품 제목만이 아니라 평평한 바위 평상 화병에는 황국(黃菊)이 담겨있다. 다소 안면색이 검은 얼굴의 주인공은 일창이니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소나무 아래 바위에 편한 자세로 기대어 앉아 휴식중인 노년의 의연하고 여유로운 초탈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냈다.

**170 이당 김은호-채국동리(선면)**  
以堂 金殷鎬-彩菊東籬(扇面)

종이에 수묵담채, 1959년 作  
12×44.5cm  
1892~1979년

₩ 1,500,000~2,000,000



1924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한국동란으로 피난 온 목로 이용우(李用雨, 1902-1952)에게 그림을 배워, 국전에서 연 4회 특선을 했고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원광대 교수로 퇴직 후에도 30년 넘게 후학을 양성했다. 화가가 회갑을 맞은 해 여름에 그린 그림으로 수묵에 전반적인 담청과 담록의 푸른 색이 돋보이며 화면 중앙에 적은 비중이나 분홍색 화목을 그려 초점과 구심점 역할을 한다.

**171 벽천 나상목-선면산수도**  
碧川 羅相沐-扇面山水圖

종이에 수묵담채, 1974년 作  
15×52cm  
1924~1999년

₩ 1,000,000~1,500,000

매우 절제된 화면 구성으로 단지 두 가지에 편성된 근매화이나 고고한 기품은 힘있는 글씨와 더불어 절묘한 조화를 보인다. 부채에 담은 소품이나 올곧으며 맑고 고운 선비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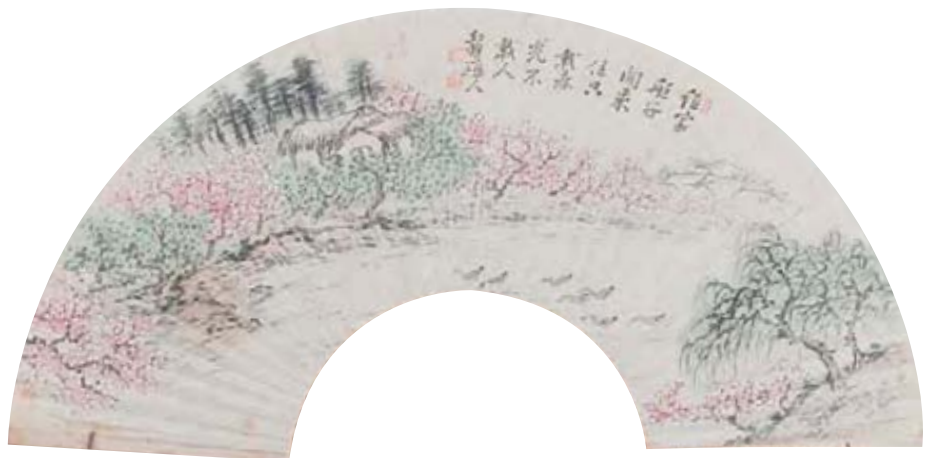
**172 의도인 허백련-선면매화도**

毅道人 許百鍊-扇面梅花圖

종이에 수묵담채  
13×45cm  
1891~1977년

₩ 1,500,000~2,000,000

물불은 시내엔 물오리 가족들이 유유자적 유영(遊泳)한다. 싱그러운 녹색으로 물 오른 수양버들에 연분홍 복사꽃이 대비되어 윤기와 청신함을 더 한다. 눈부신 춘광(春光)에 화사함과 따듯함이 깃든 평화로운 정경이다. 그 안에 자리 잡은 초옥(草屋)은 사람이 보이지 않으나 마냥 한가롭다.



**173 의도인 허백련-선면춘경산수도**

毅道人 許百鍊-扇面春景山水圖

종이에 수묵담채  
15×54cm  
1891~1977년

₩ 1,500,000~2,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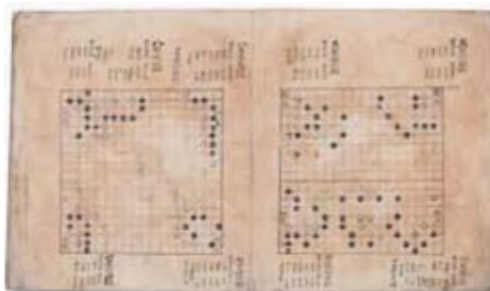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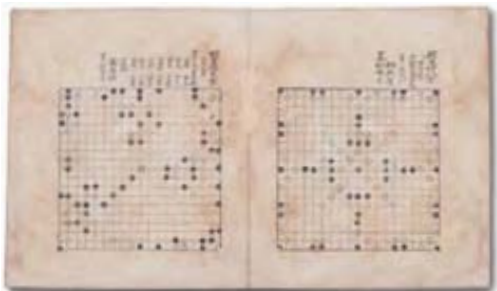


174 난가군옥 두권  
爛柯羣玉 二卷

종이에 먹  
각 29,5×25,5cm  
조선시대

₩ 30,000,000~40,000,000

제1권



바둑의 기예(技藝)는 요(堯) 임금 때 시작되었는데 /藝傳堯初 현인(賢人)과 성인(聖人)도 크게 의탁(依託)하였다네 /賢聖孔託 추성(鄒城)의 맹자(孟子)도 인용하여 가르쳤으니 /鄒孟引論 전심(專心)하여 뜻을 이르게 할 것이로다 /專心致志 지키는 것은 인(仁)이며 싸우는 것은 의(義)이며 /守仁戰義 양보하는 것은 예(禮)이며 취하는 것은 지혜로다 /讓禮取智 봉래(蓬萊) 섬과 낭원(閩苑) 같은 신선 사는 곳에서는 /蓬島閩苑 여러 신선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다네 /群真遊戲

[엄안씨신해(嚴晏氏神解)]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 /春夏秋冬 그 형상(形象)은 네 모서리가 있는 것이요 /厥象隅四 90으로 나누어 관할(管轄)하니 /分管九十 절서(節序)는 각기 제 자리가 정해져 있도다 /節序定位 눈금 360은 /三百六旬 하늘의 둘레 360도와 같이 모두 갖추었도다 /周天咸備 별들을 삼삼(森森)하게 뿌려 놓으니 /星斗森布 기묘(奇妙)하고도 그의 미(意味)가 심장(深長)하도다. /奇妙深邃

[진우당진장(眞愚堂珍藏)]

난가군옥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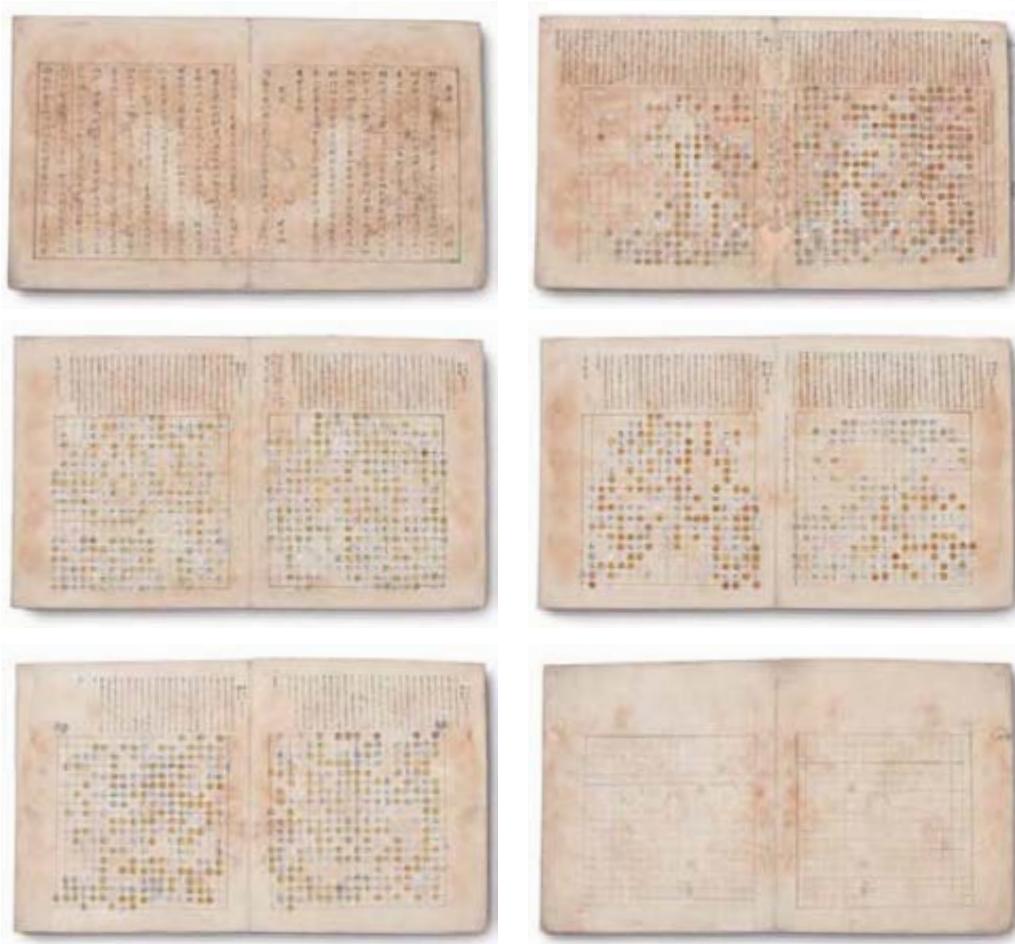


### \*난가군옥이란?

爛柯는 바둑을 말함, 나무꾼이 神仙들의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다가 도끼 자루 썩는 것을 몰랐다는 故事에서 온 말. 羣玉은 아름다운 글들을 비유하는 말이다.



제2권



오로봉(五老峯)앞의 백학관(白鶴館) 유지(遺地)는 큰 소나무가 마당에 그늘을 던지고 있는데 바람과 햇살이 맑고 아름답다. 나는 때때로 혼자 노니는데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니 누구와 함께 바둑을 둘 것인가? 반문 밖에 신이 두 걸레 있는데 사람 소리는 들을 수 없고 때때로 바둑알 떨어지는 소리만 들린다. 문추(紋楸) 바주 앉았으니 누가 이 재미를 끝내 알 것인가? 바늘 없이 낚시질하는 마음이 어찌 방어와 잉어에 있을까보냐? 소아(小兒)가 이 길을 좀 아니 손가락을 푹, 푹, 하는 소리를 낸다. 이기면 물론 기쁘지만 저도 또한 기쁘다. 우(優)하도다, 유(遊)하도다, 즐길 것은 너 뿐이로구나.

나는 평소에 바둑을 알지 못하였다. 혼자 여산(廬山) 백학관(白鶴觀)에 우람한 적이 있었는데 관중(館中)의 사람들이 모두 문을 닫고 낮잠을 자는데 다만 바둑 두는 소리가 고송(古松)과 유수(流水)사이에서 날 뿐이었다. 마음에 기뻐하며 스스로 배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끝내 알 수가 없었다. 아들이 잠시 들렸기에 이내 좀 잘 두는 자를 장중(帳中)을 지키도록 하여 날마다 같이 놀게 하였는데, 나도 또한 모서리에 앉아 종일토록 싫증이 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소동파(蘇東坡)]

난기군옥 중에서...



**175 원교 이광사-해동악부 하**  
圓嶠 李匡師-海東樂府 下

종이에 먹  
28.2×16cm  
1705-1777년

₩ 15,000,000~20,000,000

원교 이광사(圓嶠 李匡師)는 정제두(鄭齊斗)에게서 양명학을 배워 아들 영익(令翊)에게 전수하였으며, 윤순(尹淳)에게서 글씨를 배워 진(眞)·초(草)·진(篆)·예(隸)에 모두 능하였고 원교체(圓嶠體)라는 특유한 필체를 이룩하였다. 한편 저술을 통해 후진들을 위한 귀중한 자료를 남겼으며 조선의 서예중흥에 크게 공헌하였다. 해동악부란 역사를 악부형식으로 꾸민 시가집으로 원교 이광사가 이를 적어 엮은 책 중 하권이다.



**176 퇴계 이황-퇴계유묵첩 '화도집음주이십수'**  
退溪 李滉-退溪遺墨帖 '和陶集飲酒二十首'

종이에 먹  
31×10.5cm  
1501-1570년

₩ 별도문의

퇴계 이황(退溪 李滉)은 조선 명종·선조 시대의 명신으로 정치보다는 학자 지향형 인물이다.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퇴거계상[退居溪上]의 줄임말)·도수·퇴도(退陶), 본관은 진보(眞寶)이며,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조선 정치사에서 특히 남인 계열의 종주이다.





七其  
을 또한 옮겨 여긴다네 / 屏迹亦宜爾 구구한 의식(衣食) 사이에 / 區區口體  
間 어찌 꼭 고기를 먹고 비단을 입어야만 하겠는가 / 豈必魚與綺

어제 비로소 여기 온 것을 생각하니 / 憶昨始來茲 사방에 산화(山花)가 많  
이 피었었는데 / 四山花繁英 감자기 어둑어둑 녹음(綠陰)이 많아지니 / 俄  
然暗衆綠 유거(幽居)하는 마음이 초초(悄悄)하구나 / 悄悄幽居情 차라리  
무지(無知)한 사람으로 알려지리라 / 寧聞有石人 백세(百歲)가 쉽게 도  
올어 가는구나 / 百歲苦易傾 아득히 저 옛날 성현(聖賢)들은 / 邈彼古聖賢  
몸은 죽어도 도(道)가 오래도록 울리는데 / 身死道長鳴 문장(門牆)을 바  
라보기 미치지 못하니 / 不及望門牆 내 생(生)은 늘 맑고 한탄스럽도다 / 咄  
咄如吾生

八其  
임림에 아침비가 시원하게 지나가니 / 園林朝雨過 나무의 모습이 푸르게  
우거져서 아름답네 / 蔥蒨嘉樹姿 저녁의 서늘한 기운 허공(虛空)에 생기고  
/ 晚涼生衆虛 남은 안개는 높은 가지에 머물렀네 / 餘靄樓高枝 공허(空虛)  
한 모옥(茅屋)은 조용하기 그지없고 / 沈寥茅屋靜 행한 동구 골짜기는 기  
절(奇絕)하기 그지없네 / 豁衍洞壑奇 술에는 혼자 마시라는 법이 없으나 /  
酒無獨飲理 흥이 나니 즐겨서 스스로 그리 하네 / 偶興聊自爲 얼큰하게  
취하면 형적을 잊으니 / 陶然形迹忘 하물며 다시 티끌세상에 얽힐까 보  
나 / 況復嬰塵羈

九其  
아침해가 동북(東北)에서 솟아나오니 / 曛日出東北 바위집에 안개와 이  
슬이 개이네 / 巖居霧露開 갯벌은 넓어서 전망(展望)이 좋고 / 川原曠延矚  
유인(幽人)의 회포는 시원하고 명랑하네 / 爽朗幽人懷 마음은 제각기 스스  
로 삶에 만족하니 / 萬物各自得 하늘의 현묘한 조화는 어그리짐이 없구나  
/ 玄化妙無乖 제비들은 쌍으로 여기저기 날고 있고 / 飛飛雙燕子 긴 여름  
날에 제멋대로 와서 사는구나 / 長夏自來棲 입이 있어도 곡식은 쪼아 먹지  
아니하고 / 有口不啄粟 모두 병들면 진흙을 입에 머금은다네 / 卒瘡銜其泥  
동지가 되면 새끼를 쳐서 떠나니 / 巢成養雛去 물성(物性)은 천성(天性)과  
조화를 이루었네 / 物性天所諧 을가미가 없으면 홀로 지혜(智慧)로운 것  
같고 / 無機似獨智 교묘한 방법을 쓰면 또한 여럿이 미혹(迷惑)한다네 / 用  
巧還群迷 맑은 날 추녀에서 지지배배 노래하니 / 晴簷語呢喃 그때에 주인  
의 꿈은 비로소 돌아오도다 / 主人夢初回

十其  
동방에 어떤 선비가 있으니 / 東方有一士 일찍이 뜻을 사도(斯道)를 따르  
는 데 두었다네 / 夙志慕斯道 양식(糧食)을 쟁어 가지고 가서 배우고 자하  
였는데 / 春糧欲往從 모퉁이 지키며 지금 늙어 간다네 / 守隅今向老 누가  
능히 미혹(迷惑)한 길을 깨우쳐 줄 것인가 / 孰能諭迷塗 사람들은 모두 쇠  
약하고 말라빠진 사람을 싫어한다네 / 人皆惡衰槁 쭈글어들어 사방을 돌  
아보니 / 蹙蹙顧四方 함께 좋아하는 이 보이지 않네 / 不見同所好 헛되이  
다섯 수레의 말은 서적을 아니 / 空知五車書 마침내는 만금(萬金)의 보배  
보다 낫다네 / 終勝萬金寶 지극하다다 천하(天下)의 즐거움이여 / 至哉天  
下樂 종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네 / 從來不在表

十一其  
나의 생각 닿는 곳 그 자리가 어디메뇨 / 所思在何許 하늘의 끝자락과 대  
지의 한 모퉁이 / 天涯與地隅 높고도 또 높아라 세상 소리 멀어지고 / 迢  
迢隔塵響 넓고도 또 넓어라 길은 마냥 이어지네 / 浩浩綿川塗 사람의 인  
생살이 아침 이슬 같은데 / 人生如朝露 희어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물  
아대네 / 羲馭不停驅 손에 있는 녹기금은 / 手中綠綺琴 줄 끊어져 슬픔  
만 남아 / 絃絕悲有餘 오직 하나 잔 속에 채워진 이 술만이 / 獨有杯中物  
외로운 이 내 삶을 때때로 위로하네 / 時時慰素居



和陶集飲酒二十首

吾酒苦... 有酒斯飲之... 一其

我欲挾天風... 二其

我本山中... 三其

我思古賢... 四其

我思古賢... 五其

我思古賢... 六其

我思古賢... 七其

我思古賢... 八其

我思古賢... 九其

一其 도원명집에 실린 음주에 화답하여 시를 짓다 이십수 / 和陶集飲酒二十首

술 없으면 딱하게도 기쁨일랑 없나니 / 無酒苦無樂 술 있으면 이내 바로 그것을 마신다네 / 有酒斯飲之 한가해야 비로소 즐거움을 얻나니 / 得閒方得樂 즐거운 일 있거들랑 그때 바로 즐겨야지 / 爲樂當及時 혼 혼한 저 바람이 만물을 고무시켜 / 薰風鼓萬物 무성한 아름다움 이제 이와 같구나 / 亨嘉今若茲 만물과 내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거늘 / 物與我同樂 가난하고 병든 것을 걱정할 것있으니 / 貧病復何疑 저 세상 영화로운 내 어찌 모르랴만 / 豈不知彼榮 헛되고 헛된 이름 오래가기 어려워라 / 虛名難可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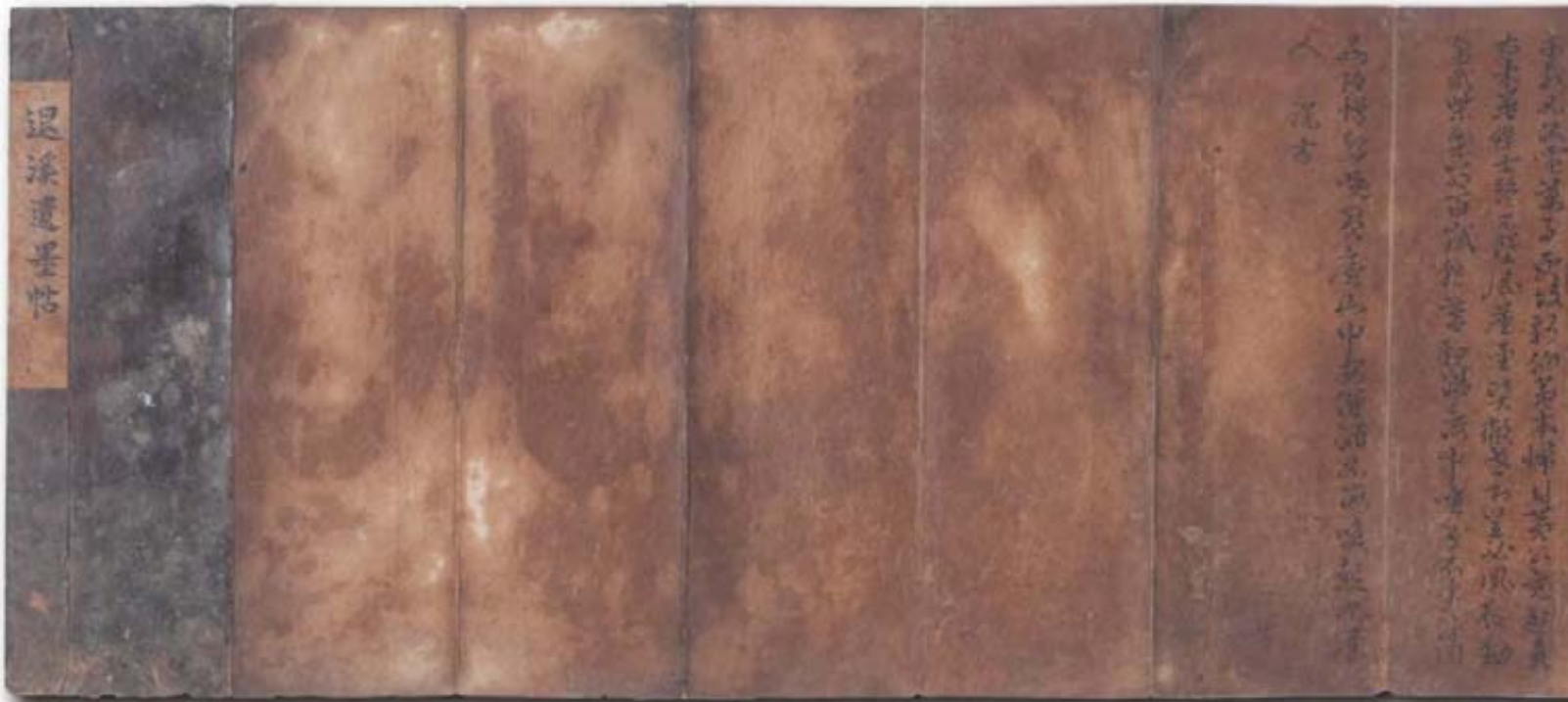
하늘에 부는 바람 거드랑이에 끼고 / 我欲挾天風 나는 공문산에 올라 줄 겁게 놀고자 하였건만 / 遨遊崑崙山 아직은 구구한 속진을 면하지 못했으니 / 區區未免俗 지금 와서 그대에게 말할 것이 없구려 / 至今無足言 과거에는 백 세대 천 세대가 있고 / 前有百千世 장래에는 또 억 만 년이 있으니 / 後有億萬年 취중에 친진한 모습을 본다면 / 醉中見天真 어찌 술 깬 사람에게 전하기를 걱정하랴 / 那憂醒者傳

지혜 있는 자는 올가미 던지기를 잘 하는데 / 智者巧投機 어리석은 자는 상정에 골똥하게 빠지네 / 愚者滯常情 도도한 말세의 조류(潮流)에 빠지니 / 滔滔汨未流 모두가 이욕(利慾)과 명예(名譽)에 중독되었구나 / 總爲中利名 옛날에는 현명하고 명철(明哲)한 사람 있었는데 / 古來賢哲人 나는 홀로 후세(後世)에 태어났구나 / 吾獨後於生 이 길은 곧 구갈(裘葛) 입는 은사(隱士)의 길이니 / 此道即裘葛 어찌하여 더러 시기(猜忌)하고 놀라는가 / 奈何或猜驚 권권하게 부지런히 힘쓰며 고심을 하니 / 拳拳抱苦心 지체(遲滯)하며 이른 것 없음이 부끄럽도다 / 淹留愧無成

흰 구름은 빈 골짜기에 있으니 / 白雲在空谷 무심히 하늘 위를 나는구나 / 無心天上飛 우연하게 바람을 따라 일어났으니 / 偶然隨風起 어찌 다시 그리움과 슬픔이 있을까보다 / 何更有戀悲 하늘에 노닐며 늘 동심동심 떠다니다가 / 游空恆泛泛 비를 머금어도 또한 의의(依依)하구나 / 含雨亦依依 비록 많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은택(恩澤)이 아니더라도 / 苟不霈嘉澤 어찌 그와 같이 돌아가는 것이 빠른가 / 曷若遄其歸 내 옛날 어진 이들이 온데 현달(顯達)한 분 생각하니 / 我思古賢達 말로가 어찌 그다지도 쇠약(衰弱)하게 되었던가 / 末路何多衰 비가 나릴테면 그치지 말아야 하는데 / 既雨不能罷 또한 천도(天道)와 마찬가지로 떠나 가버리는구나 / 亦與天道違

나는 본래 산야에 사는 체질이니 / 我本山野質 조종한 게 좋고 시끄러운 것은 싫다네 / 愛靜不愛喧 시끄러운 것 좋아하는 것은 원래 못하지만 / 愛喧固不可 조용한 것 사랑하기는 또한 의줄기로 치우친다네 / 愛靜亦一偏 그대도 큰 도인(道人)을 보았겠지 / 君看大道人 조정과 저자거리를 구름 깃산처럼 본다네 / 朝市等雲山 의(義)로움에 편안하면 곧 이를 실천하고 / 義安即蹈之 가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한다네 / 可往亦可還 다만 쉽게 주위의 정세에 영향을 받는 것이 두려우니 / 但恐易磷緇 차라리 조용함을 도타이하마 말을 미워하리라 / 寧敦靜憎言

인생에 뛰어난 게 훌륭한 이가 있으나 / 有人生卓然 나 말은 이런 사람과 다르다네 / 吾獨異於是 젊어서 어리석었고 / 晩年(晩年)에는 더욱 고집스러워 / 少愚晚益戇 이룬 거 없으며 도리어 망가지는 것이 있다네 / 無成反有毀 스스로 남들이 버리는 것을 좋아하며 / 自耽衆所棄 발자취 감추는 것



十七其  
소소(蕭蕭)하구나 폴로 덮은 집이여(蕭蕭草蓋屋 위에서는 비가 새고 걸  
에서는 바람이 들이치네(上雨而旁風 마른 데 찻느라 여러 번 잡자리 읊  
기고(就燥屢移牀 책을 거두어 남은 상자 속에 감추네(收書故篋中 다만  
줄 없는 거문고를 쓰다듬으니(但撫無絃琴 어찌 공하면 통한다는 이치를  
알라(寧知窮與通 자랑하는 말로 송옥(宋玉)을 비웃으며(誇言笑宋玉 할  
을 동쪽 부상(扶桑)에 걸어 두려고 하네(欲掛扶桑弓

十八其  
술 가운데 묘한 이치 있다고들 하지만(酒中有妙理 사람마다 반드시 다  
인지는 못한다네(未必人人得 취하여 고향치며 즐거움을 구하는 건(取  
樂酣叫中 그대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닌가(無乃汝曹惑 잠시 잠깐 거  
나하게 취기가 올라오면(當其乍醺醺 하늘과 땅 사이에 호연지기 가득  
차서(浩氣兩間塞 온갖 번뇌 풀어 주고 인색한 맘 녹이 나니(釋惱而破  
吝 괴안국의 영화보다 훨씬 더 나으리라(大勝榮槐國 필경 이런 경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니(畢竟是有待 바람 앞에 도리어 부끄러워 침묵하네(臨  
風還愧默

十九其  
어리고 젊었을 때 성인의 가르침 들었더니(小少聞聖訓 배움이 우수(優  
秀)하여 곧 벼슬길에 올랐다네(學優乃登仕 우연히 명리(名利)에 연루(連  
累)된 일이 있어서(偶爲名所累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부질없이 자신의 본  
분을 잃었네(輾轉徒失己 용종(龍鍾)은 오히려 강안(強顏)이요(龍鍾猶  
強顏 몰래 독처(獨處)하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 되었네(竊獨爲深恥 고담  
(高談)이란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高蹈非吾事 그럼저럭 향리(鄉里)  
에 남아 있게 되었다네(居然在鄉里 바라는 바는 착한 사람 많아지는 것  
이니(所願善人多 이것이 곧 천지(天地)의 기강(紀綱)이라네(是乃天地紀  
사시(四時)는 조화 이루어 옥촉(玉燭)과 같으며(四時調玉燭 만물(萬物)  
은 제각기 머무를 곳에 머물러 있네(萬物各止 뜻을 임학(林壑) 가운데  
서 마치려 하니(畢志林壑中 우리 임금님은 마치 부모와 같으시다네(吾  
君如怙恃

二十其  
근대(近代)로 말하면 소운경(蘇雲卿)이요(近代蘇雲卿 한나라 때로 말하  
면 정자진(鄭子真)과 같다네(漢時鄭子真 자취를 숨기는 뜻은 어떠한 것  
이었다(遯迹意何如 애오라지 그 순박(淳朴)한 근본으로 돌아가려 한 것  
이라네(聊欲還其淳 천년이 번갯불처럼 흘러가 버렸으니(千歲如流電  
만사는 다시 옛 것과 새 것이 바뀌었다네(萬事更故新 백이(伯夷)는 본  
디(周)나라로 돌아가고(伯夷本歸周 황공(黃公)은 결국 진(秦)나라를  
피하였다네(黃公竟避秦 옛날부터 영웅호걸의 선비는(古來英傑士 끝내  
풍진(風塵) 속에 떨어지지 않는다네(終不墜風塵 성현(聖賢)의 세상 구하  
려는 마음이(聖賢救世心 어찌 반드시 밤낮으로 부지런하였던가(豈必夙  
夜勤 높도다(시상(柴桑)의 노인(老人)이여(卓哉柴桑翁 백세(百世)를 내  
러오며 아침저녁으로 친하였다네(百世朝暮親 당당(蕩蕩)한 큰 물결 속  
에(湯湯洪流中 오직 그대만이 건너야 할 나루를 잃지 않았구나(惟你不  
迷津 동호인(同好人)은 옥수정(陸修靜)이니(同好陸修靜 만년(晩年)에는  
여산(廬山)의 두건(頭巾)을 저버렸네(晚負廬山巾 어찌하면 바다와 같  
이 많은 술을 얻어서(安得酒如海 저승에 가 있는 사람을 불러일으킬 거  
나(喚起九原人

滉書



十二其

문노니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시오 / 問君今何爲 / 정녕 보리타작 할 때를  
만났는데 / 麥秋正丁時 / 산의 샘물은 맑아서 슬 빗을 만 하니 / 山泉清可釀  
스스로 권하며 오히려 할 말이 있네 / 自勸寧有辭 / 늘 옛사람의 마음은 거  
머주고 있으니 / 每攬昔人懷 / 감개(感慨)는 다만 이와 같도다 / 感慨祇如茲  
어찌하면 금란과 같은 벗을 사귀어 / 安得金蘭友 / 취사(取捨)진퇴(進退)에  
다시는 의혹이 없으려가 / 趣舍不復疑 / 한마디 말로 많은 무고(誣告)가 풀  
리고 / 片言釋千誣 / 하나의 정성이 많은 거짓이 소멸(消滅)한다네 / 一誠消  
百欺 / 이때가 되면 모든 시름을 잊으리니 / 此時忘憂物 / 나도 또한 이렇게  
하고야 말 것이로다 / 吾亦可已之

十三其

나는 천년 전의 사람을 사모(思慕)하니 / 我思千載人 / 노봉산(盧峯山)과 건  
양현(建陽縣)의 경계라네 / 蘆峯建陽境 / 책 읽고 수양함에 한 암자(庵子)가  
어두웠고 / 藏修一庵晦 / 저서(著書)는 만고의 어두움을 깨우치셨다네 / 著  
書萬古醒 / 과거의 사람은 절충(折衷)하기를 기다렸고 / 往者待折衷 / 장래에  
오는 사람은 인도해 주는 수령(首領)을 얻었다네 / 來者得挈領 / 아름답도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성대(盛大)함이여 / 懿哉盛授受 / 근원이 멀면 노둔  
(魯鈍)함과 영특(穎特)함이 섞이도다 / 源遠雜魯穎 / 입과 귀는 거센 물결의  
지장(支障)이 있나 / 口耳障狂瀾 / 심경(心經)은 아름답게 가르침이 빛나  
도다 / 心經嘉訓炳

十四其

순 임금도 주 문왕도 오래 전에 세상 떠나 / 舜文久徂世 / 조양에는 봉새가  
이르지 않느구나 / 朝陽鳳不至 / 상서로운 기린마져 이미 멀리 떠났으니 /  
祥麟又已遠 / 말세는 어두워라 / 正心無以 / 叔季如昏醉 / 낙양과  
민중 땅을 멀리서 이르니 / 仰止洛與閩 / 현인들이 비늘처럼 뒤이어 일  
어났네 / 群賢起鱗次 / 내 어이 때 늦고 외진 곳서 태어났나 / 吾生晚且僻  
혼자선 귀한 본성(性)을 길들 모르겠네 / 獨味修良貴 / 아침에도 들으면 저  
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 / 朝聞夕死可 / 이 말씀 진실로 깊은 뜻이 있구나 /  
此言誠有味

十五其

길은 가까운데 먼 곳에서 구하니 / 道邇求諸遠 / 도도(滔滔)하게 몸을 들만  
한 인의(仁義)가 비었구나 / 滔滔曠安宅 / 철인(哲人)에게는 실마리의 말씀  
이 있으니 / 哲人有緒言 /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자취를 추적할 수 있겠네 /  
因可追心迹 / 비록 유일(唯一)함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 苟未及唯一 / 어찌  
많이 들은 것을 자랑하는 것과 다르랴 / 何異誇聞百 / 항상 초광(楚狂)의 무  
리를 괴이(怪異)하게 여기는데 / 常怪楚狂輩 / 함부로 제멋대로 흑백(黑白)  
을 분간하였네 / 妄自分黑白 / 성인(聖人)을 만나고도 뜻에 겸손함이 없었으  
니 / 遇聖不遜志 / 몸을 결백(潔白)하게 지닌 것이 또한 아깝구나 / 潔身還可  
惜

十六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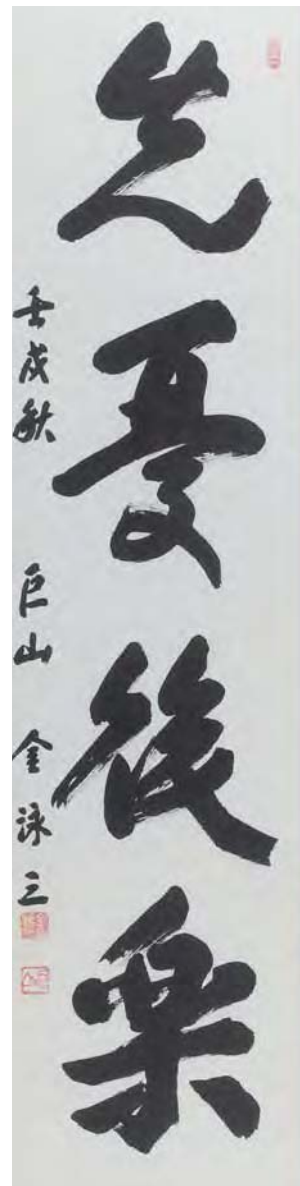
우리나라를 예로부터 추로라 부르나니 / 吾東號鄒魯 / 선비들이 모든들 유  
경을 읽는다네 / 儒者誦六經 / 그것이 좋은 줄 모르는 이 없진마는 / 豈無  
知好之 어느 누가 이를 과연 성취해 내었는가 / 何人是有成 / 높이 뛰어들어  
어라 정오친이여 / 矯矯鄭烏川 / 목숨 바쳐 지키며 끝내 변치 않았네 / 守  
死終不更 / 뒤를 이은 접필재는 쇠한 사문(斯文) 일으켜 / 佔畢文起衰 / 도  
구하는 선비들 그 문정에 가득했네 / 求道盈其庭 / 쪽빛에서 나온 청색 쪽  
빛보다 더 푸르니 / 有能靑出藍 / 김한훤과 정일두가 서로 이어 올렸네 /  
金鄭相繼鳴 / 그들의 문하에서 섬겨 보지 못했으니 / 莫逮門下役 / 이내 몸  
돌아보며 마음 슬퍼 하노라 / 撫躬傷幽情



177 민형식-묵서  
閔衡植-墨書

종이에 먹  
33×128cm  
조선시대

₩ 1,000,000~1,500,000



178 김영삼 전 대통령-묵서  
金泳三 前 大統領-墨書

종이에 먹, 1982년 작  
135×33cm  
1927년~

₩ 1,000,000~1,500,000



179 박정희 전 대통령-간찰  
朴正熙 前 大統領-簡札

종이에 먹, 1965년 작  
26.7×20cm  
1917~1979년

₩ 3,000,000~4,000,000

孫奭鎬 貴下

"이 해를 맞이하여 지난 일년을 회고할 때 하늘을 섬기고 인사를 생각하며 온 국민이 합심하고 정부가 온 힘을 다하여 큰 과실없이 온 힘을 다하여 나라의 운세가 형통하였습니다. 바라옵건데 새해도 노력하고 마음을 합하여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옵고 새해도 많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大統領 朴正熙





**180 고암 이응로-문자추상화**  
顧庵 李應魯-文字抽象畫

종이에 채색, 1979년 작  
133.5×62.5cm  
1904~1989년

₩ 20,000,000~25,000,000

근대 서화가인 해강 김규진(金圭鎭)에게 서예와 묵화(墨畵)를 배웠던 고암 이응로의 문자추상화(文字抽象畵)이다. 그의 문자추상화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는데, 특히 197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에 작가의 독자적 예술관과 문자추상이라는 독창적 조형언어가 만들어졌다. 문자추상은 한자나 한글의 형상을 자유롭게 나열하여 암시적인 형태를 나타내거나 명확한 윤곽의 선(線)으로 표현하는 장식적이고 평면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글씨 같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한 형태들이 서로 얹히고 포개져 있으며,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로 보는 사람을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유도한다. 이응노는 충남 홍성(洪城)에서 태어나 1938년부터는 수묵담채(水墨淡彩)의 사실적(寫實的)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해 제17회 선전(鮮展)에서 이왕직상(李王職賞)을 받았다. 홍익대 및 서라벌 예대 교수를 지냈으며, 1960년대에 콜라주 기법과 자유로운 수묵 담채 형상의 작업을 추구한 뒤 문자 추상을 시도하였다. 1965년 제8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명예 대상(大賞)을 차지하여 주목받았으며, 파리에 동양미술연구소(東洋美術研究所)를 열어 묵화(墨畵)·서예 등을 가르쳤다. 이 무렵부터 '사의적 추상(寫意的抽象)'과 '문자 추상'을 시도하였다. 1967년에는 6·25 전쟁 때 월북(越北)한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독일 동(東)베를린에 갔다가 북한 공작원과 만난 일이 '동베를린 간첩단(東伯林) 사건'에 연루돼 2년 반 동안 옥고(獄苦)를 치렀다. 이때도 종이와 풀을 몰래 얻어 작품을 계속하는 열정을 보였다. 1985년 도쿄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1989년 호암미술관에서 초대전이 열리던 중 파리에서 심장마비로 타계했다.





**181 청전 이상범-삽화 두점**  
 靑田 李象範-插畫 二點

종이에 수묵  
 각 11×16cm  
 1897~1972년  
 ₩ 700,000

청전 이상범(李象範)이 미술 고문으로 있을 때 김기진(金基鎭, 1903~1985, 팔봉)이 1954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연재했던 역사소설 <통일천하(統一天下)>에 그렸던 삽화이다. <통일천하>는 김기진의 대표적인 소설로서 1956년에 남향문화사에서, 1965년에 계몽사에서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삽화는 이상범의 소묘실력과 구성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간결하면서도 시원스런 선묘와 생동하는 동세와 특징적 표정 묘사에서 이상범의 삽화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김기진의 또 다른 역사소설 <성군(星群)>(1960~1964)에 그렸던 삽화 1점이 2005년 서울옥션에서 22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1920~40년대에 노수현(盧壽鉉)·안석주(安碩柱)·이승만(李承萬) 등과 전문 삽화가로서 활동하여 초창기 삽화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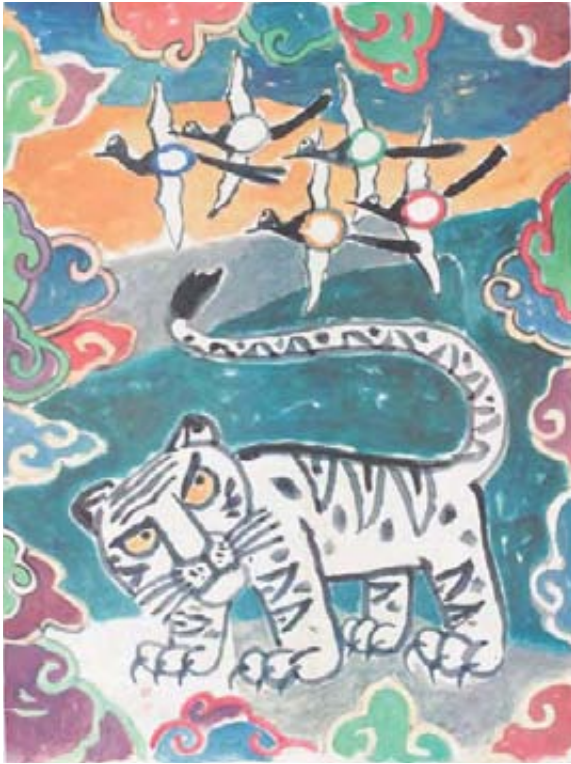


**182 이만익-피리쟁이**  
 李滿益

판화 8/28, 1985년 작  
 55×42cm  
 1938년~

₩ 500,000

한국의 설화 등 한국적인 소재를 특유의 화법으로 그려내는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널리 알려진 이만익(李滿益, 1938~)의 그림을 판화로 찍은 작품이다. 스물여덟개의 판 중 여덟 번째로 찍은 것이다. 두 마리의 호랑이와 나무 위에 쭈그려 앉아 피리를 부는 소년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민화에서 볼 수 있는 우화적 특성을 단순화 선과 색채로써 보여주는 서정적인 작품이다. 작가 이만익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경기중학교 3학년 때인 1953년 제2회 국전에서 입선하였으며, 이후 국전에서 서울대 3학년 때와 1961년 졸업 후 3년 연속 특선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계속된 낙선으로 제도권에 환멸을 느끼고 파리로 떠나 사회현실의 부조리와 현대인의 소외의식을 그렸다. 귀국 후 그는 한국적 소재로 한국적 미감을 통한 독자적인 그림세계를 추구하면서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자리매김하였다.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미술감독, 제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 미술감독,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등의 공연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183** 운보 김기창-호랑이와 새  
雲甫 金基昶

판화, 1988년 作  
89×66cm  
1913~2001년

₩ 300,000



**184** 김상유-삼층장  
金相游

판화 5/70, 1970년 作  
64×39cm  
1926~2002년

₩ 300,000



**185** 이만익-좋은날A  
李滿益

판화 93/266, 1989년 作  
37×58cm  
1938년~

₩ 300,000



**186** 이만익-새벽길  
李滿益

판화 34/266, 1989년 作  
37×58cm  
1938년~

₩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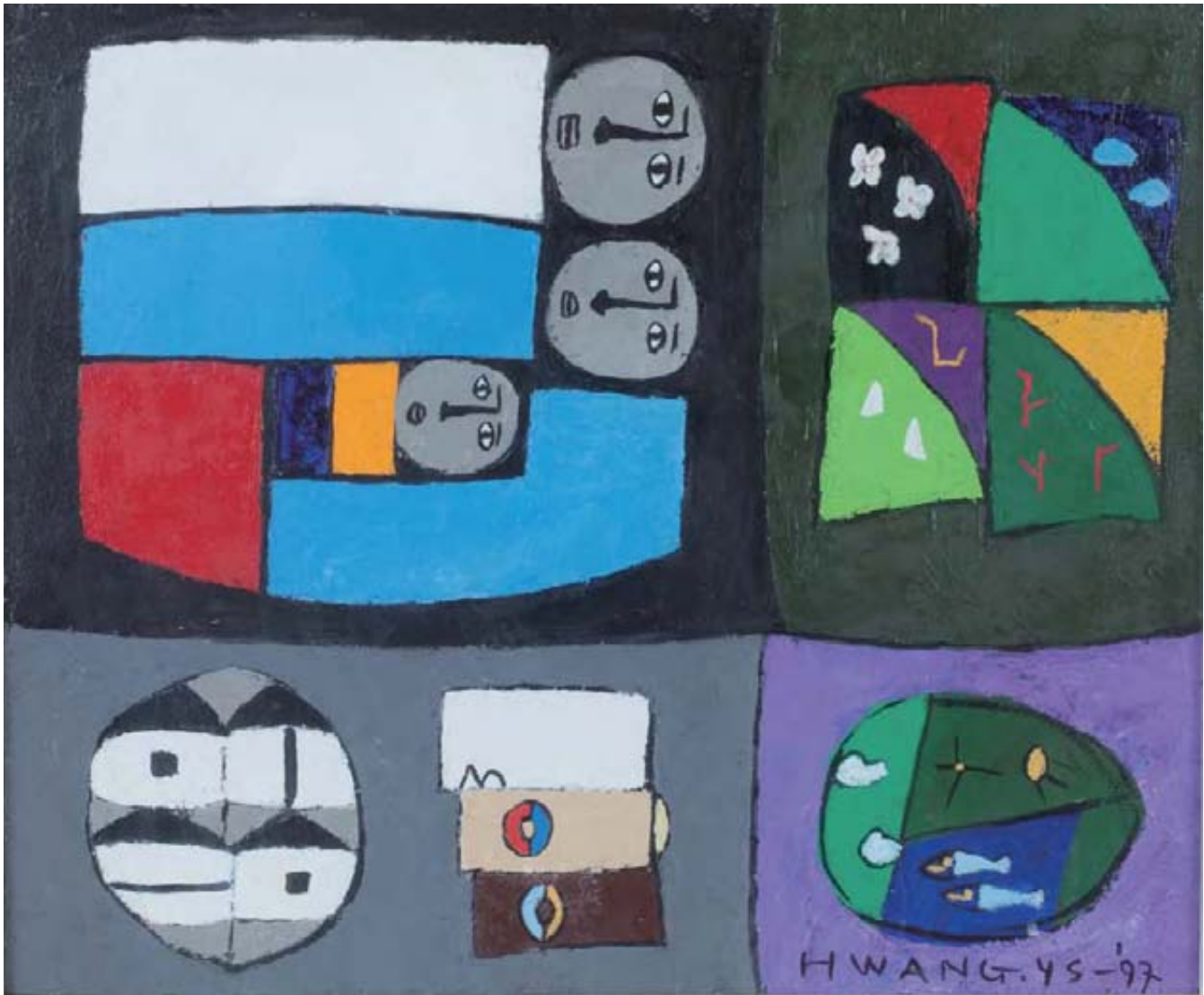


**187 박영선-유럽풍경**  
朴泳善

캔버스에 유채  
36×40.5cm  
1910-1994년

₩ 3,000,000

박영선은 평양에서 태어나 1931년 평양고등보통학교 졸업반 때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부에 풍경화로 입선하였다. 한국 양화의 선구자들인 같은 평양 출신의 김관호(金觀鎬)와 김찬영(金讚永)이 1925년에 개설하였던 소성회(朔星會) 회화연구소에서 유화의 기초를 익히며 서양화가의 길을 열었다. 1933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36년 가와바타[川端]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에 연 5회 특선하였다. 같은 무렵 일본문전(日本文展)에서도 3회 입선하였으며, 1947년까지 개인전도 5회 열었다. 해방 후인 1949년 제1회 국전부터 추천작가,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뒤 이화여자대학교 · 홍익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1955년 프랑스로 건너가, 1959년까지 파리 아카데미 그랑 쇼미에르에서 수학하면서 파리 국제미술전람회에 출품하는 한편 개인전도 열며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60년부터 서라벌예대 · 중앙대 교수를 지냈으며, 1972년 국전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되고, 1978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 되었다. 한국 미술계에 이바지한 공로로 3·1문화상, 예술원상 등을 받았다.



**188 황영성-가족 이야기**  
 黃榮性

캔버스에 유채, 1997년 작  
 60,6×72,7cm  
 1941년~

₩ 4,000,000~5,000,000

독특한 향토성과 서정성으로 가족과 고향의 이야기를 그린 황영성의 작품이다. 작고 나지막한 초가가 웅기종기 모인 마을, 큰 눈을 꿈벅이는 소, 사이좋게 모여 앉은 가족 등의 모습들이 정겹게 그려져 있다. 생명력 있는 시골 모습을 생명력 강한 녹색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부감법으로 그렸다. 그림 속 화면 분할은 기하학적 구성이라기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논밭의 모습이다. 황영성의 작품에는 형태를 단순화시켜 하나의 구성적인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만들어내는 독특한 작품세계가 담겨있다.



**189 황영성-마을 이야기**  
黃榮性

캔버스에 유채, 1990년 作  
60.6×72.7cm  
1941년~

₩ 4,000,000~5,000,000

1950년 6.25사변 당시 전라도 광주에 정착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며 국내외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황영성은 향토성과 서정성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끊임없이 화면에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어 유럽화단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황영성은 1941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광주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국전 문공부장관상(1973)과 몬테칼로 국제회화제 특별상(1991), 이인성 미술상(2004)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추천작가 및 심사위원을 지냈다. 2006년 이탈리아의 나폴리 현대미술관, 독일 드레스덴 미술관, 2007년에 프랑스 생테티엔느 시립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 190 정기호-주님과 함께

鄭基瑚

캔버스에 유채, 2005년 작

136×16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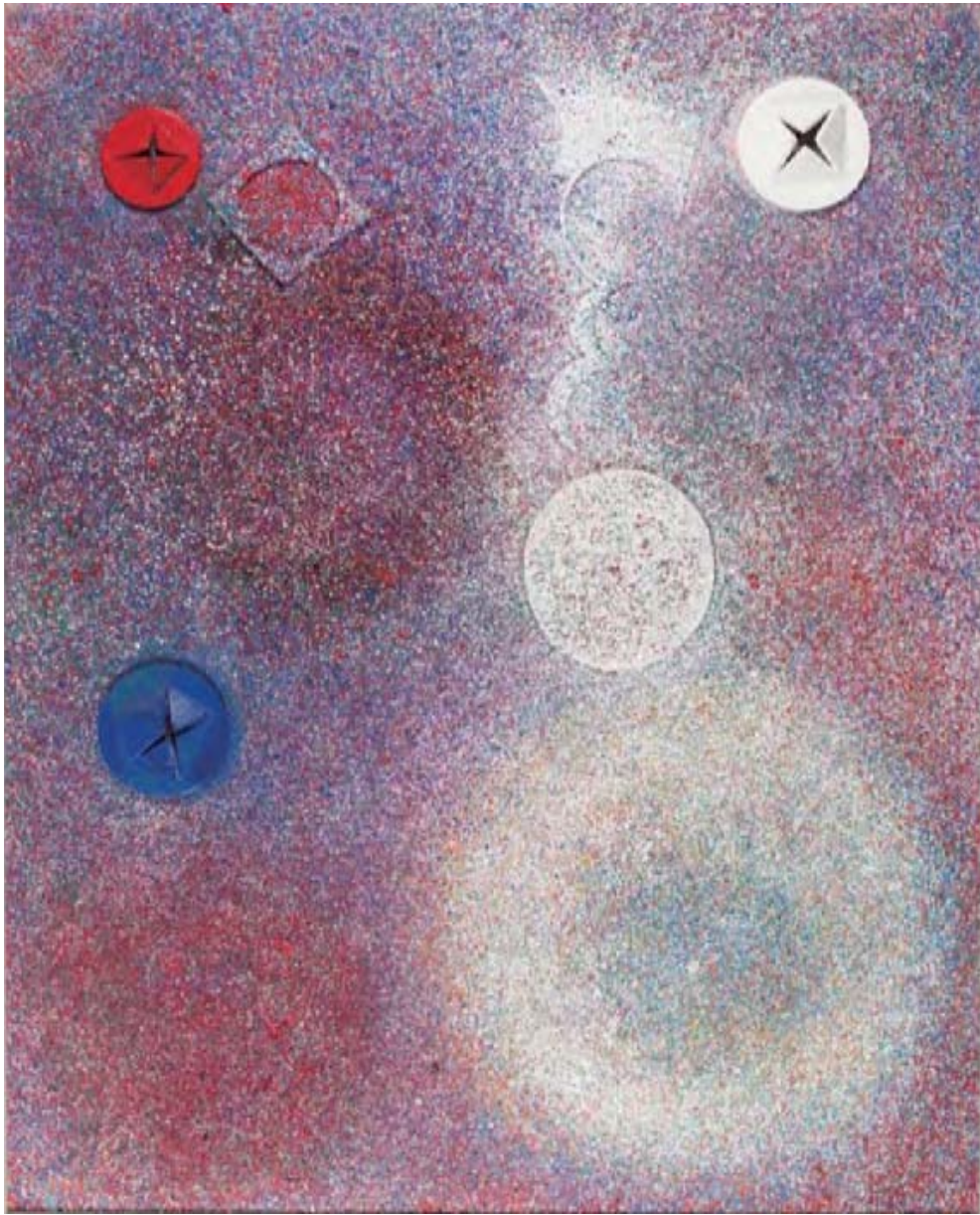
1938년~

₩ 12,000,000~15,000,000

재불화가 정기호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캔버스 그림으로 순수와 상상의 세계로 초대한다. “형태를 뜨고 채색을 하고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수법이 매우 단순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가식이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장난스러울 뿐만 아니라 벽찬 설렘으로 술렁인다. 청색의 주조색을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를 꿈꾸거나 다리 위에 누운 사랑스러운 여인, 소나무를 그리며 마냥 즐거워하는 화가, 동그라미와 삼각형, 그리고 타원이 사이좋게 어울리는 도형 등에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긍정성과 낙천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서성록(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

“그림 그리기에 온 몸을 던졌다가 미친 화가들이 더러 있다. 소설가 김동인과 이제하 씨는 그들을 ‘광화사(狂畫師)’라 불렀다. 산악인이자 소설가인 박인식(59) 씨가 1980년대 초에 만난 정기호(71)씨도 광화사였다. 피를 칠하고 살을 저며 바르는 듯 오체투지(五體投地)로 캔버스에 돌진해 유화(油畫)가 아니라 혈화(血畫)를 그리는 그를 만나고부터 박씨 인생도 바뀌었다. 정기호씨의 광기에 가까운 열정에 곧바로 전염된 그는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유럽으로 날아가 미술과 문학에 인생을 건 방랑객이 됐다. 박인식 씨는 실명 단편소설 ‘광화사, 새벽에 머리를 감다’에서 그 만남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바야흐로 천재 예술가의 예술혼에서 피어나는 후광을 목격한 나머지, (나는) 정기호씨의 천재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사명을 가진 전도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정재숙 <피 토 하듯 그림에 미친 사내, 정기호의 붓질 보았나>(중앙일보, 2010. 5. 18)]

정기호는 그로리치화랑(1977)·선화랑(1979)·석화랑(1983)·화랑춘추(1984)·한국화랑(1987) 등에서의 개인 초대전을 가졌으며, 한국크로키회 회장을 지냈다.



**191 조성희-White and Silver Light**  
曹星熙

캔버스에 유채, 2009년 作  
161×129cm

₩ 10,000,000~12,000,000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제적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조성희의 우주를 그린 추상화이다. 그의 캔버스는 무수히 많은 별들로 가득한 우주이다. 화가로서 신비로운 별들을 표현할 때 맑고 밝은 투명한 빛의 아름다운 색상들이 총동원되었다. 캔버스의 표면에 분사된 물감의 분말들은 광대한 천공의 별무리들이다. 두꺼운 종이로 오려붙인 별은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아와 같은 별자리가 된다. 분사와 콜라주로 광활한 천공의 우주가 표상된 것이다.

“예술가는 별의 이미지를 펼쳐 보인다. 내면에 품은 환상의 별을 토해내는 것이다. 세월 속에 잉태하고 키워낸 생명과 삶의 메시지들이 별이라는 기호를 통해 작품으로 발현된다.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조각적 형식을 빌려 남다른 상념의 세계를 구현한다. 예술가들이 쏟아내는 별 이야기는 다양하다. 천공의 별자리에 나오는 동물이 되기도 하고, 신화 속 인물의 이미지로 나타나거나 동서로 빚겨 흐르는 은하수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 아니면 색면 추상의 순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할 것이다.” [김영호 <내 안의 별>(2009. 10. 22~11. 8. 조선화랑 개인전 도록)]

작가 조성희는 홍익대 미대를 졸업하고 국전에서 특선을 차지했으며, 구상전에서 금상·은상·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 뉴욕 프랫 아트 인스티튜트 및 파리의 오티스/파슨 아트 인스티튜트를 수학하면서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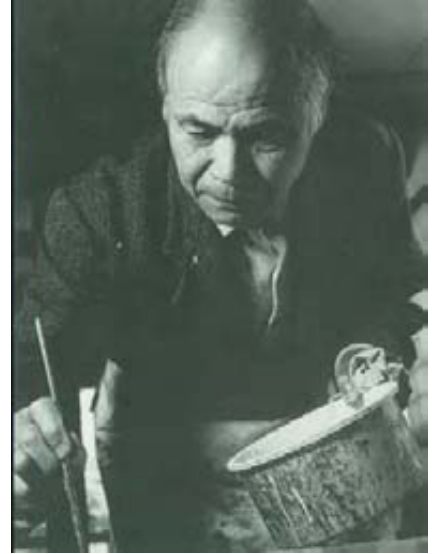


## 192 남관-문자추상화

南寬-文字抽象畫

캔버스에 혼합재료, 1981년 작  
92×183cm, 120호  
1911~1990년

₩ 80,000,000~90,000,000



인간의 내면세계를 상형문자 같은 독특한 형상으로 표현해온 남관의 문자추상화이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각자로 불리는 남관은 자신만의 독특한 문자추상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도 큰 호평을 얻었던 작가이다. 남관의 작품에 나타나는 추상성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함을 볼 수 있다.

“자연 풍경처럼 보이는 드로잉의 배경과 상형문자로 구축된 초월적 공간 속에 민간이나 동식물의 이미지 형상이 없다면 그의 드로잉은 완벽한 추상표현주의 회화이다. 드로잉의 배경은 유화와 달리 두터운 마티에르가 없어 감정 노출이 즉흥적으로 일어난다. 겹쳐진 색조의 변화가 많으며, 푸른색과 붉은 자주색, 그리고 흰색의 여백은 색면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려는 평면적 추상회화이다. 배경에 등장한 상형문자 형태 역시 드로잉에서는 순수한 색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평면인 것이다.” [유재길, <남관의 드로잉 : 자연과 인간, 심상(心象)의 이미지>(현대갤러리 전시회 1995.7.7~7.21, 도록)]

남관은 1960년도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초기의 추상적 기법에 일관하면서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는 실험과 탐구의 결과이며, 우주의 새로운 질서의 표현과 한국의 전통적인 형태를 자신의 표현양식과 조화되어 형상화함으로써 한국조형예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이며 국제적인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는 가장 원시적인 동양 고대 상형문자의 형상을 현대적인 색상과 표현기법을 통해 독창적인 형태와 색상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은 인간 내면을 세계를 거슬러 올라간 곳, 다시 말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태초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감성적이면서도 암시적인 이미지의 지적 미학을 보여준다.

남관은 경북 청송에서 출생하였고, 14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태평양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2차 대전과 6·25동란이라는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체험하였고 파리초기의 고통을 겪으면서 동시대의 상황인 전후 새롭게 형성된 국제화단의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아 실험정신의 산물인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전후의 사회적 상황과 세계적인 추상미술의 배경은 남관을 구상에서 추상적인 표현으로의 변화를 가지게 하였으며, 그 추상적 회화는 독자적 개인양식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전쟁의 체험에서 온 심상적 추상과 기호적 문자추상이 그것이다. 1958년 한국인 최초로 살롱 드메 전에 초대 되었으며, 1966년 프랑스 망통회화비엔날레에서 1등상을 수상하며 이후 유럽 각지에서 많은 인지도를 얻은 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1968년에 귀국 후 홍익대 교수로 있는 한편, 서울과 파리를 왕복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현재 그의 작품은 파리 국립현대미술관, 파리 시립현대미술관, 룩셈부르크 국립미술관, 토리노 국제미술관, 폰피두센터 등 국내외의 미술관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수집가들에게 소장되어 있다.



### 193 박수근-나무 스케치 朴壽根

종이에 연필  
14.3×10.8cm  
1914~1965년

₩ 12,000,000~15,000,000

'국민화가' 박수근의 스케치 작품이다. 화면 가득히 연필로 우뚝 솟은 나무의 모습을 그렸다. 굵은 줄기를 가운데 그리고 그 주위에 수많은 이파리들을 그렸다. 오른쪽 아래에 연필로 '수근'이란 그의 서명이 적혀 있다. 스케치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연구를 위해 선행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나무의 본질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그림을 그린다. 화면 끝까지 뻗어있는 크게 자란 나무들은 비록 흑백의 그림이긴 하지만, 생명력이 느껴진다.

박수근은 나무를 비롯해 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대상을 골라서 그림으로 그린 화가로 유명하다. 아내와 자녀들, 이웃집 할아버지, 동네 아이들이 그림의 모델이 되었다. 화려하고 거창한 대상보다는 평범한 대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박수근은 이러한 평범한 대상을 울퉁불퉁한 화강암의 표면 같은, 그만의 독특한 회화세계를 구축하였다. 거친 표면 위에 선을 그리기에 섬세한 선의 묘사보다는 분명하고 힘이 있는 '대담한 필법으로 주제를 스케치'한 것이다. 마무리 단계에 대상을 표현하고 색을 입힌다.

“박완서의 처녀작이자 출세작인 '나목'이라는 소설은 6·25 동란 중 밤 벌이로 PX에서 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손수건에 초상화를 그려주던 박수근을 모델로 하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은 그가 그린 벌거벗은 나목들은 시들어가는 고목(枯木)이 아니라 모진 추위를 견디며 새봄을 준비하는 겨울 나무였다는 얘기로 끝난다. 전시장에서 박완서 선생을 만나게 되어 소설 속 작품이 어느 것이냐고 물으니 '나무와 여인'(3호)이라고 한다. 박수근 그림에 나오는 서민들의 모습은 하루를 넘긴다는 것 자체가 힘겨웠던 50년 전 우리네 삶의 표정인데 우리는 나목처럼 그것을 견디어냈고 그것을 그린 그림은 어느덧 문화재가 될 정도로 세월이 훌쩍 가버렸다는 얘기가.” [유홍준 <유홍준의 국보순례 51, 박수근의 나목(裸木)> 조선일보, 2010. 5. 12]

박수근은 강원도 양주군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전답이 물에 떠내려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열두 살 때 밀레의 <만종>을 보고 감명을 받아 그림을 독학한 그는 열여덟 살 때인 1932년에 그의 작품 <봄이 오다>가 선전(鮮展)에서 입선하여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1953년 국전(國展)에서 <집>으로 특선을 차지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박수근은 진정한 뜻으로서 한국의 화가이며 민중의 화가였다. 여기서 한국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밟고 다니는 우리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며, 민중이라 함은 그 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실체들을 가리키고 있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그의 미술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모습과 그 위에 살고 있는 동포의 표정을 배우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뜻에서 그의 미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은 아니며 계몽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유준상)



# 에이티 옥션 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에이티옥션(이하 '회사'라고 함)이 제공하는 경매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함)와 관련하여 경매 절차 등 제반 사항과 회사 및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위탁자'라 함은 본인 소유의 작품(이하 "물품" 을 포함함)을 회사의 경매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판매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② '응찰자'라 함은 회사의 경매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 경매에 응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③ '낙찰자'라 함은 회사의 경매에 응찰하여 작품을 낙찰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④ '시작가'라 함은 경매사가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단, 시작가는 내정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⑤ '낙찰가'라 함은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리고 응찰자의 패들(응찰 번호판)을 지칭함으로써 확정되는 최고 응찰 가격을 말합니다.
- ⑥ '구매가'라 함은 응찰자가 경매에서 낙찰한 가격에 낙찰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 ⑦ '내정가'라 함은 회사와 위탁자가 경매 전에 합의한 최저 낙찰가를 말하며, 비공개로 원칙으로 합니다.
- ⑧ '추정가'라 함은 회사가 미술시장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경매 작품의 가격을 말합니다.
- ⑨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등록을 마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유료의 정회원과 무료의 준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⑩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경매에 참가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탁자·응찰자·낙찰자 또는 회원을 말합니다.

## 제3조 [회원]

- ① (정회원) 정회원은 회사 소정의 양식에 등록하고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이 부여됩니다.
- ② (정회원 특전) 회사는 정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정회원은 회사로부터 경매도록 및 온라인상의 각종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받고, 회사가 시행하는 경매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 ③ (준회원) 준회원은 무료 회원으로서 회사가 시행하는 경매에 응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온라인상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회사의 서비스 이용 정도에 따라 도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자격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2. 정회원의 경우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낙찰대금 등 기타 경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또는 회원명의 대여 등 경매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5. 경매에 관한 위법 행위나 약관 위배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⑤ (회원등록 말소)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에 동일한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회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며,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4조 [경매의 방식]

- ① (회사의 업무) 회사는 작품의 경매, 작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매매 증개,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매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경매 작품의 사용) 회사는 위탁 계약이 성립된 작품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와 관련 인쇄물에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③ (경매 작품 전시) 회사는 경매가 열리기 전에 응찰 희망자들이 경매 작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회(프리뷰)를 개최합니다. 전시회와 경매에 대한 참관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④ (경매 번호) 경매는 도록에 기재된 작품 번호(Lot)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예정된 작품의 경매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일 번호의 여러 작품들을 분할하거나 여러 번호의 작품들을 일괄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⑤ (경매의 참관) 경매 참관과 작품의 위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 작품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 ⑥ (내정가의 결정) 회사와 위탁자는 경매를 시행하기 전에 경매 작품의 최저낙찰가적인 내정가를 정합니다. 다만, 위탁자와의 합의에 따라 내정가를 경매 시작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경매 시작가격은 내정가의 구속을 받지 않아 내정가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⑦ (내정가의 입찰) 경매사는 위탁자와 합의한 내정가를 지키기 위하여 내정가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경매사의 입찰은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 응찰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응찰이 내정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응찰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⑧ (경매사의 호가) 호가(呼價)는 전적으로 경매사의 재량에 의하여 경매사는 경매 진행시 호가 증가분을 미리 제시합니다. 응찰자는 패들을 들고 응찰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구두로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경매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⑨ (추정가의 제공) 회사는 응찰에 참가가 되도록 경매작품에 대하여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를 정한 뒤 응찰자에게 제공합니다. 추정가는 경매의 참고를 위한 가격일 뿐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가격이 아니며, 낙찰 가격과도 무관합니다. 대외적으로 인용되는 것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⑩ (낙찰 결정) 경매사는 최고 응찰가를 1회 이상 호가하고 경매봉을 두드린 후 최고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낙찰자와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⑪ (재경매 등) 경매사는 응찰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나 응찰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효 응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해당 작품을 재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고 경매사가 다음 작품의 경매에 착수한 후에는 누구도 이전 경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5조 [작품의 위탁]

① (위탁 조건) 위탁자는 소정의 출품료를 회사에 내고 본인 소유의 작품에 대한 경매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의 각 호의 경우 위탁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위탁하는 작품이 진위여부에 대한 시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탁하는 작품이 회사의 경매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작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위탁자와 회사가 위탁하는 작품의 내정가를 합의하지 못한 경우
- ② (출품료) 위탁자는 작품을 위탁할 때 도록 등재비 · 작품 감정료 · 작품 보관료 · 유찰 수수료 등 제비용에 해당하는 출품료로 작품 1점당 100,000원을 회사에 선납해야 합니다. 출품료는 위탁품의 낙찰과 관계없이 유찰되어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③ (작품 감정료) 위탁자는 특별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회사 규정(특별 감정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용을 특별감정 출품료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 ④ (위탁자의 책무)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지닙니다.
1.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하는 작품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위탁자는 위탁할 작품이 어떠한 채권 · 채무 관계 또는 유치권 · 담보권 등에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위탁자는 위탁할 작품의 소유권과 그 밖의 관련 권리가 낙찰과 동시에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회사가 위탁품을 경매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하면 위탁자는 그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해당 작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위탁자는 인수지연 중에 발생하는 작품의 훼손 · 분실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회사에 부담시킬 수 없으며, 회사의 통보 후 7일 경과 후에는 회사 규정의 보관료가 징수됩니다.
  5. 위탁자는 위탁품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위탁품이 매장문화재 · 도굴품 · 장물 등 불법적인 작품으로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위탁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대금 전액을 즉시 회사로 환급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입는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6. 위탁자는 경매 작품 위탁 계약서에 서면으로 합의한 이후에는 경매 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경매 작품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경매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위약별로 추정가 평균치의 10%에 해당하는 철회 수수료를 철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위탁 철회로 회사가 손해를 당할 경우 회사는 위 위약별 약정과 별개로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위탁자는 유찰된 작품을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경매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해당 작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위탁자는 경과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작품 보관료를 회사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⑤ (감정 평가) 회사는 위탁자에게 위탁품을 위탁받은 후 즉시 감정 평가를 하고, 감정 평가 후 위탁품이 경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를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즉시 당해 작품을 인수해야 합니다. 즉시 인수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하는 작품 멸실 · 훼손 · 분실 등의 문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수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제6조 [판매대금과 위탁수수료]

① (판매대금의 금액) 위탁품이 낙찰되는 경우 회사는 낙찰자에게 낙찰 작품의 구매대금을 수금해 낙찰가에서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 낙찰자가 받을 판매금액은 위탁 수수료와 제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② (위탁 수수료의 요율) 위탁 수수료는 해당 작품의 낙찰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각 낙찰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탁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낙찰가 1억원 이하: 낙찰가의 10%(부가가치세 별도)
2. 낙찰가 1억원 초과: 낙찰가 1억원까지에 대한 낙찰가의 10%(부가가치세 별도)와 낙찰가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한 낙찰가의 8%(부가세 별도)를 합한 금액

\*예시1: 낙찰가가 200만원일 경우

1. 위탁 수수료는  $2,000,000(\text{낙찰가}) \times 10\% = 200,000$ 원의 세전 위탁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20,000원을 합산한 220,000원입니다.
2. 위탁자의 판매대금은  $2,000,000(\text{낙찰가}) - 220,000(\text{위탁 수수료}) = 1,780,000$ 원입니다.

\*예시2: 낙찰가가 3억원일 경우

1. 위탁 수수료는  $(100,000,000 \times 10\%) + (200,000,000 \times 8\%) = 26,000,000$ 원의 세전 위탁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2,600,000원을 합산한 28,600,000원입니다.
2. 위탁자의 판매대금은  $300,000,000(\text{낙찰가}) + 28,600,000(\text{위탁 수수료}) = 328,600,000$ 원입니다.

③ (판매대금 지급) 회사는 낙찰자에게 낙찰 작품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여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다만, 낙찰가 3억원 이상은 2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구매대금 등의 납부를 지체하여 회사가 위 기간 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로부터 작품 대금 등을 수금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제7조 [응찰 방법 및 낙찰]

- ① (응찰 자격) 경매에는 회사의 회원 또는 회원에게서 위임받은 사람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 ② (응찰 방법) 경매의 응찰은 현장응찰 · 서면응찰 · 전화응찰 세 방법이 있습니다.
- ③ (현장 응찰) 현장응찰은 회사의 정회원으로서 사전에 회사 소정의 응찰등록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 뒤 패들을 교부받아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패들을 교부받은 회원은 경매장에 참석하여 경매사의 호가에 의거해 패들을 들어 응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④ (서면 응찰) 서면 응찰은 응찰자의 사정에 의해 현장 응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회사의 직원이 대리하여 응찰하는 방식입니다. 경매일 하루 전날까지 회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면 응찰이 가능합니다.
- ⑤ (전화 응찰) 전화 응찰은 응찰자의 사정에 의해 현장 응찰 및 서면 응찰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응찰자가 회사의 직원과 전화로 통화하여 실시간으로 응찰하는 방법입니다. 경매일 하루 전날까지 회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전화 응찰이 가능합니다.
- ⑥ (낙찰 결정) 낙찰은 내가가 이상을 제시한 현장 응찰자 · 서면 응찰자 · 전화 응찰자 중에서 최고의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이 주어집니다.
- ⑦ (낙찰 우선순위) 현장 응찰자 · 전화 응찰자 · 서면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 낙찰 우선순위는 서면 응찰자 · 현장 응찰자 · 전화 응찰자의 순이며, 동일한 가격의 서면 응찰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회사에 먼저 서면 응찰서를 제출한 서면 응찰자에게 낙찰됩니다.
- ⑧ (낙찰 철회)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로서 회사가 인정하고 위탁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별로 10일 이내에 납부해야만 낙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의 낙찰 철회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철회한 회원에게는 향후 회사의 경매에서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⑨ (응찰 금지)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 작품에 대하여 응찰할 수 없습니다.

### 제8조 [구매대금 및 구매수수료]

- ① (구매대금의 범위) 낙찰자가 회사에 납부할 구매 대금은 낙찰 받은 금액에 구매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 ② (구매수수료의 요율) 구매수수료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각 낙찰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매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낙찰가 1억원 이하: 낙찰가의 10%(부가가치세 별도)
  3. 낙찰가 1억원 초과: 낙찰가 1억원까지에 대한 낙찰가의 10%(부가가치세 별도)와 초과 금액에 대한 낙찰가의 8%(부가가치세 별도)를 합산한 금액

\* 예시1: 낙찰가가 5천만원일 경우

1. 구매수수료는  $50,000,000(\text{낙찰가}) \times 10\% = 5,000,000$ 원의 세전 구매수수료와 부가가치세 500,000을 합산한 5,500,000원입니다.
2. 구매대금은  $50,000,000(\text{낙찰가}) + 5,500,000(\text{구매수수료}) = 55,500,000$ 원입니다.

\* 예시2: 낙찰가가 3억원일 경우

1. 구매수수료는  $(100,000,000 \times 10\%) + (200,000,000 \times 8\%) = 26,000,000$ 원의 세전 구매수수료와 부가가치세 2,600,000원을 합산한 28,600,000원입니다.
2. 구매대금은  $300,000,000(\text{낙찰가}) + 28,600,000(\text{구매수수료}) = 328,600,000$ 원입니다.

### 제9조 [구매대금 납부와 작품 인도]

- ① (구매대금 납부 기간)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낙찰가가 5천만원 이상이면 14일,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이면 21일 이내)에 각각 경매 낙찰가 · 구매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 즉 구매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 ② (연체 이자)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낙찰가가 5천만원 이상이면 14일,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이면 21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8%의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 ③ (구매대금 미납 조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낙찰가가 5천만원 이상이면 14일,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이면 21일 이내)에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낙찰자에게 구매대금의 완납을 최고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대금 및 이에 대한 연체 이자 등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작품의 낙찰을 취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위탁자를 대신하여 낙찰자를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비용을 계약 위반한 낙찰자에게 청구하며, 낙찰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④ (구매대금 납부 방법) 낙찰자는 구매대금을 현금 · 자기앞 수표 · 폰뱅킹 · 인터넷 뱅킹 · 메일 뱅킹 등의 회사 계좌이체 · 회사 은행 계정 송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 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가 구매대금을 입금할 에이티 옥션의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좌번호: 006001-04-185803
  2. 은행명: 국민은행
  3. 예금주: 에이티옥션
- ⑤ (구매대금 분납) 낙찰자는 응찰 전에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⑥ (낙찰 작품 인수) 구매자는 대금 완납 이후 7일 이내에 낙찰 받은 작품을 인수해야 하고, 작품 인수가 지연될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보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 완납 후 21일 후에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 구매 작품은 일반 창고로 이동되고, 구매 작품의 보관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해당 작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국외 반출 금지) 낙찰자는 낙찰 작품이 문화재 및 유물일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 및 낙찰에 임해야 합니다.

### 제10조 [응찰자의 의무]

① (도록 내용의 한계) 경매 도록에 기재된 작가명 · 작품명 · 재질 · 크기 · 출처 등 모든 내용은 회사의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닙니다.

② (작품 상태의 관찰) 회사는 위탁받은 작품을 '있는 그대로' 경매에 출품합니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응찰 희망 작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매 작품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명과 작품 이미지(도판) 가운데 회사는 본 약관 13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찰자는 전시회 관람 등을 통하여 작품의 훼손 및 복구 여부, 도록 기재의 오류 및 생략 부분, 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③ (낙찰 철회 금지) 회사는 응찰자가 위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응찰하여야 합니다.

### 제11조 [경매 후 세일]

① (애프터 세일) 위탁자가 작품을 위탁하면서 회사에 별도의 반대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위탁자의 작품이 경매 출품 후 유찰될 경우에는 회사가 위 작품을 1주일 동안 보관하고, 이를 '경매 후 세일(애프터 세일)'에 다시 출품하는 것에 대하여 위탁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경매 출품 후 유찰된 모든 작품이 경매 후 세일에 출품되는 것은 아니며, 경매 후 세일의 출품여부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사가 결정합니다).

② (애프터 세일 방식) 경매 후 세일은 서면 응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찰 마감 일시는 경매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경과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③ (애프터 세일 약관) 경매 후 세일에는 에이티옥션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12조 [운송과 보험]

① (운송부담) 낙찰자 또는 위탁자가 낙찰 및 위탁 작품의 운송을 원할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 하에 회사가 주선할 수 있습니다.

② (운송 보험) 회사는 위탁자가 회사에 경매 작품을 인도할 때부터 회사에서 보관 관리를 중지하는 시점까지, 또는 경매 예정일로부터 50일까지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합니다. 다만 위탁자는 원할 경우 회사가 만족할 만한 보험증권을 직접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보증]

회사는 도록에 게재된 각 작품에 대하여 아래 항목의 조건으로 보증합니다.

① (보증서 발행) 회사는 경매 종료 후 구매자가 원할 경우에는 중개인으로서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보증 내용은 도록에 굵게 인쇄된 표제 사항에 국한되며, 그 외의 추정가 · 보조 설명 등의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닙니다.

② (보증 기한) 중개인으로서 회사의 보증 기한은 낙찰 후 3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낙찰 대금과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1. 낙찰자는 회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작품이 거래된 경매 일자와 작품 번호, 문제 제기 등 납득할 만한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해 3개월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낙찰자는 해당 작품을 경매 당시에 동일한 상태로 회사에 인도해야 합니다.

④ (이견 해소) 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회사와 낙찰자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 회사는 해당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낙찰자와 회사 모두가 인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⑤ (보증 제외)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1. 경매 작품에 대한 의견이 경매 당시에는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그 이후 전문가 의견이 변경되었거나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2. 경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방법이 아니거나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보증 내용이 틀렸음이 증명되는 경우
3.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경매장에서 고지를 한 경우

⑥ (위탁자 의무) 회사가 보증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위탁자도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습니다.

⑦ (보증 한도) 보증 내용은 보증 기한 내에 한하여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첫 구매자가 낙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작품을 상속한 자에게는 보증내용이 양도됩니다. 그 보증과 관련한 회사의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찰자 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⑧ (보상책임) 회사의 보증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찰자 또는 구매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회사는 이자나 통화 가치 변화에 따른 손해 등 지불 금액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 제14조 [회사의 권한 및 책임 한계]

- ① (일정 변경)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예정 고시한 경매일자 · 시간 ·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프리뷰 입장) 회사는 프리뷰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의 성명과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재량으로 프리뷰 입장을 원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탁품 사용권) 위탁계약이 성립된 작품에 대하여 회사는 홈페이지와 관련 인쇄물에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 ④ (낙찰 취소) 경매 작품의 진위사비, 거래의 불법성 사비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 계약된 위탁 작품을 경매에 출품하지 않을 수 있고,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외에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⑤ (응찰 취소)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매수 신청이 있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실수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응찰이 경매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5조 [개인 정보 보호]

- ① (정보수집 범위)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할 때 계약 이행 또는 정보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래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 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 등록 번호 (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
  3. 주소
  4. 전화 번호
  5. 희망 ID (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 (회원의 경우)
  7. 전자우편 주소 (또는 이동 전화 번호)
- ② (정보제공 제한) 제공된 개인 정보는 이용자의 서면 또는 공인 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에 의한 동의 없이는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회사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이용자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합니다.

## 제16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① (약관 공지) 회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록 · 입찰확인서 · 위탁계약서 등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회원 가입 계약 또는 경매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 ② (약관 설명)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오해할 수 없도록 필요한 경우 중요한 부분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약관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약관 개정 공지)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 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⑤ (약관 개정 적용)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 약관은 그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 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본 조의 제4항에 의한 개정 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⑥ (관련 법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또는 상거래 관례에 따릅니다.

##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관할 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② (적용 법률)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AT auction

## 경매 응찰 등록 신청서

경매 일자	2011. 5. 27(금)	경매 명칭	제2회 고미술품 및 근·현대미술품 경매		
응찰 부문	현장응찰[ ]	서면응찰[ ]	전화응찰[ ]	접수일자	년 월 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자택주소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 ■ 응찰 작품

Lot, No	작품명	작가명	응찰가격

낙찰할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며, 부득이 철회하실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고,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응찰 작품에 대하여 (주)에이티 옥션이 본인을 대신하여  
상한가까지 응찰해줄 것을 위임합니다.(서면응찰에 한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

\*응찰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본 신청서를 아래의 주소나 팩스로 보내신 뒤 전화를 걸어 확인해주시시오.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2층 (주)에이티 옥션(110-775)

팩 스: 02-737-2382 (응찰 담당자 앞) 이메일: sale@at-auction.com





에이티 옥션의 회원이 되시면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에이티 옥션 회원의 특전

### 정회원

1. 에이티 옥션의 모든 경매에 응찰하실 수 있습니다.
2. 에이티 옥션의 간행물(각종 도록, 소식지)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에이티 옥션 홈페이지의 경매 정보 등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준회원

1. 에이티 옥션 홈페이지의 경매 정보 등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방법

1. 온라인 등록: [www.at-auction.com](http://www.at-auction.com)의 회원가입 페이지를 이용하여주십시오.
2. 이 페이지에 수록된 신청서 내용을 작성하신 뒤 절취선을 따라 떼어내신 뒤 팩스 02-737-2382로 보내주십시오.
3. 에이티옥션 프리뷰 전시장에 방문하시어 그곳에 마련된 회원카드를 작성해 제출하여주십시오.

### 회원 가입 문의

전 화 02-3675-7533/4

이메일 [sale@at-auction.com](mailto:sale@at-auction.com)



# 에이티 옥션 미술품 경매 출품작 접수

주식회사 에이티 옥션은 다음 경매에 출품할 고미술품 및 근·현대미술품의 위탁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미술품을 투명하고 공정한 경매를 통하여 판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 위탁 품목

- 고미술품: 토기, 도자기, 서화, 민화, 금속유물, 목기, 민속품 등
- 근·현대미술품: 동양화, 서양화, 서예, 판화, 조각, 사진 등
-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내용 삽입

## ■ 위탁 수수료

- 낙찰가가 1억원 미만인 경우: 낙찰가의 10%
- 낙찰가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낙찰가 1억원까지에 대한 낙찰가의 10%와 낙찰가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한 낙찰가의 8%를 합산한 금액(이상 부가세 별도)

## ■ 위탁 문의

☎ 전화 02-3675-7533~4



## AT auction

Art & Treasure Auction 에이티 옥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2층(110-750)  
Tel. 02-3675-7533/4, Fax. 02-737-2382  
Homepage: [www.at-auction.com](http://www.at-auction.com)



# SBS 김민서 경매사와 함께 하는 미술품 경매

주식회사 에이티 옥션이

제2회 고미술품 및 근·현대미술품 경매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숨결이 담긴 고미술품과 미술가의 예술성이 깃든 현대미술품을  
합리적·객관적 가격으로 소장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이번 에이티 옥션의 경매를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미술과 창조적 현대미술을 간직해보시기 바랍니다.

## ▪ 경매 일시: 2011년 5월 27일(목) 오후 5시

▪ 전시(프리뷰) 일시: 2011년 5월 20일(금) ~ 26일(목) 오전 10시 ~ 오후 7시

▪ 경매 / 전시 장소: 에이티옥션 경매/전시장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2층)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5번 출구로 나와 120m 직진해서 오른쪽 천도교 건물

### 경매 참여 방법

**1** 에이티옥션의 정회원에 가입합니다. 신청서 접수 및 연회비(10만원) 납부는 필수입니다. 당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에이티옥션 소개, 경매 안내, 약관 등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에이티옥션의 전시장을 방문하여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들을 살펴봅니다. 구매하시고 하는 작품의 상태·크기·재질·보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회원 가입 및 경매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에이티옥션의 경매장을 방문하여 원하는 작품의 경매에 응찰합니다. 현장 응찰이 어려운 분께서는 서면이나 전화로 응찰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티옥션의 경매에서 작품을 낙찰 받으셨다면, 낙찰가와 낙찰수수료를 합한 구매대금을 납부하고 낙찰 작품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낙찰수수료는 1억원 미만이면 낙찰가의 10%, 낙찰가가 1억원 초과이면 초과분에 대한 낙찰가의 8%입니다.

**5** 에이티옥션 및 경매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은 02-3675-753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T옥션 경매사  
김민서  
SBS TV '아이디어 하우스'  
경매사

## ATAuction

Art & Treasure Auction 에이티 옥션

[www.at-auction.com](http://www.at-aucti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2층 (우 110-775)  
전화 02-3675-7533, 전송 02-737-2382, 전자우편 sale@at-auction.com

# 제2회 에이티 옥션 고미술품 및 근·현대미술품 경매

ANTIQUÉ / MODERN ART / CONTEMPORARY ART SALE

발행일

2011년 5월 16일

발행처

(주)에이티옥션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2층

전화 (02)3675-7533~4

팩스 (02)737-2382

이메일 [sale@at-auction.com](mailto:sale@at-auction.com)

홈페이지 [www.at-auction.com](http://www.at-auction.com)

제작

(주)에이티옥션

인쇄

홍진씨앤피(주)

© (주)에이티옥션 2011.

이 도록에 수록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주)AT Auction에 있으며  
본 회사의 허락 없이 무단전재를 금합니다.